정답과 해설

채움

인문·예술

Part ❶ 인문

Ⅰ. 논리 4

Ⅱ. 동양 철학 20

Ⅲ. 서양 철학 41

Ⅳ. 철학 융합 70

Ⅴ. 심리, 윤리 102

Ⅵ. 역사 122

Part ❷ 예술

Ⅰ. 예술 일반 144

Ⅱ. 건축 161

Ⅲ. 회화, 사진 173

Ⅳ. 음악, 영화 186

빠른 정답 찾기

Part ❶ 인문

Ⅰ 논리

본문 14~27쪽

01	001 ② 002 (1) ○ (2) × (3) ○ 003 ① 004 ④ 005 ㄴ 006 ③
02	007 ⑤ 008 (1) × (2) ○ 009 ④ 010 ① 011 (1) 귀납 (2) 미결정성 (3) 흄, 라이헨바흐 012 ④
03	013 ⑤ 014 ㄱ, ㄷ 015 ④ 016 ② 017 ④
04	018 ② 019 ㄱ, ㄴ 020 ① 021 ④ 022 (1) × (2) × 023 ④ 024 ⑤ 025 ② 026 ① 027 ② 028 (1) 봉착 (2) 기인 (3) 잇따랐다 029 ④
05	030 ④ 031 (1) 주연 (2) 소개념, 대개념 (3) 매개념 032 ⑤ 033 ⑤ 034 ⑤ 035 ⑤ 036 (1) × (2) ○ (3) ○ 037 ④

Ⅱ 동양 철학

본문 28~47쪽

06	038 ④ 039 (1) ○ (2) × (3) ○ 040 ④ 041 ⑤ 042 ⑤
07	043 ① 044 (1) 한비자 (2) 양주 (3) 한비자 045 ① 046 ① 047 (1) ○ (2) × (3) ×
08	048 ② 049 (1) 폐 (2) 정 (3) 성인 050 ③ 051 ⑤ 052 (1) ○ (2) × (3) ×
09	053 ⑤ 054 (1) ○ (2) × (3) ○ 055 ⑤ 056 ② 057 ①
10	058 ② 059 ① 060 ① 061 ④ 062 (1) × (2) ○ (3) ○ 063 ③ 064 ② 065 (1) 물질, 정신 (2) 신기 (3) 심주지각설 066 ⑤
11	067 ⑤ 068 ② 069 ④ 070 ④ 071 (1) × (2) ○ (3) × 072 ⑤ 073 ② 074 ㄷ 075 ③
12	076 ④ 077 (1) ○ (2) × (3) × 078 ③ 079 ① 080 ㄱ, ㄴ 081 ⑤ 082 ④ 083 ⑤ 084 ① 085 ② 086 ①

Ⅲ 서양 철학

본문 48~79쪽

13	087 ⑤ 088 (1) ○ (2) ○ (3) × 089 ① 090 ⑤ 091 ①
14	092 ① 093 (1) 정당화 (2) 자기 동일성 (3) 절대적 094 ② 095 ① 096 ①
15	097 ⑤ 098 ① 099 ⑤ 100 ④ 101 ㄱ, ㄴ 102 ① 103 ④ 104 (1) ○ (2) × (3) × 105 ③
16	106 ② 107 ㄱ, ㄴ 108 ③ 109 ① 110 (1) ○ (2) × (3) × 111 ④ 112 ④ 113 ② 114 ①
17	115 ③ 116 (1) 사건 (2) 탐색 (3) 주체 117 ⑤ 118 ⑤ 119 ① 120 ③ 121 ③ 122 (1) × (2) × (3) ○ 123 ③
18	124 ④ 125 ① 126 ① 127 ③ 128 ㄱ 129 ② 130 ④ 131 (1) ○ (2) × (3) ○ 132 ⑤
19	133 ⑤ 134 (1) 망각 (2) 기억 (3) 기억 135 ④ 136 ② 137 ㄴ 138 ③ 139 ② 140 (1) × (2) ○ (3) ○ 141 ①
20	142 ④ 143 ② 144 ③ 145 ④ 146 (1) 타자 (2) 타자 (3) 비상호적 147 ④ 148 ③ 149 (1) ○ (2) ○ (3) × 150 ① 151 ① 152 ②
21	153 ⑤ 154 (1) × (2) × (3) ○ 155 ⑤ 156 ④ 157 ② 158 ③ 159 ⑤ 160 ㄷ 161 ③

Ⅳ 철학 융합

본문 82~113쪽

22	162 ① 163 ㄱ, ㄷ 164 ② 165 ② 166 (1) ○ (2) × (3) × 167 ④ 168 ③ 169 (1) 모순 (2) 상보 (3) 쟁론 170 ③ 171 ④ 172 ③ 173 ③
23	174 ① 175 (1) ○ (2) × 176 ② 177 ③ 178 ㄱ, ㄴ 179 ② 180 ④ 181 ⑤ 182 ② 183 (1) 예술, 직관 (2) 철학, 사유 (3) 표상, 철학
24	184 ④ 185 ⑤ 186 ④ 187 ② 188 ② 189 ② 190 (1) 인과 (2) 원인, 결과 (3) 예측 191 ⑤
25	192 ④ 193 (1) × (2) ○ 194 ① 195 ① 196 (1) 상도 (2) 권도 (3) 권도, 상도 197 ⑤ 198 ③ 199 (1) × (2) × (3) ○ 200 ③ 201 ①
26	202 ② 203 ㄱ, ㄴ 204 ① 205 ④ 206 (1) × (2) ○ (3) ○ 207 ⑤ 208 ② 209 (1) 형상 (2) 현상계 (3) 이데아계 (4) 질료 210 ②
27	211 ② 212 ③ 213 ① 214 ③ 215 (1) ○ (2) × (3) × 216 ③ 217 ⑤ 218 (1) 없다 (2) 이성 219 ② 220 ② 221 ①
28	222 ① 223 ㄱ 224 ① 225 ④ 226 (1) × (2) ○ (3) ○ (4) × 227 ④ 228 ③ 229 (1) 자의적 (2) 불명확성 (3) 재현 230 ④
29	231 ① 232 (1) 내재주의 (2) 외재주의 (3) 게티어 233 ⑤ 234 ② 235 ① 236 ② 237 (1) ○ (2) ○ (3) × 238 ①

Ⅴ 심리, 윤리

본문 114~133쪽

30	239 ③ 240 (1) 자아 (2) 타자 (3) 소외 241 ② 242 ④ 243 (1) × (2) ○ (3) × (4) ○ (5) ×
31	244 ① 245 (1) ○ (2) × (3) ○ 246 ④ 247 ① 248 ①

32	**249** ② **250** (1) × (2) ○ (3) × **251** ④ **252** ① **253** ⑤
33	**254** ④ **255** (1) ○ (2) ○ (3) × **256** ④ **257** ② **258** (1) 동기적 (2) 인지적 **259** ④
34	**260** ① **261** (1) 잠재적 (2) 높다 (3) 변하지 않는다 **262** ⑤ **263** ② **264** (1) ○ (2) × **265** ④ **266** ① **267** ㄱ, ㄴ **268** ①
35	**269** ③ **270** (1) × (2) ○ (3) ○ **271** ⑤ **272** ② **273** ③ **274** ⑤ **275** ③ **276** ㄴ, ㄷ **277** ③ **278** (1) 자혜 (2) 정의 (3) 있으나, 없다 **279** ⑤
36	**280** ⑤ **281** ㄱ, ㄴ **282** ④ **283** ④ **284** (1) ○ (2) ○ (3) × **285** ⑤ **286** ① **287** (1) 태생적 (2) 결과적 **288** ⑤

Ⅵ 역사

본문 134~153쪽

37	**289** ① **290** (1) ○ (2) × (3) ○ **291** ⑤ **292** ③ **293** ㄴ, ㄷ
38	**294** ③ **295** (1) 드로이젠 (2) 랑케 **296** ④ **297** ② **298** ②
39	**299** ④ **300** (1) ○ (2) × (3) × (4) × (5) ○ **301** ③ **302** ③ **303** ㄱ, ㄴ, ㄷ **304** ③ **305** ④ **306** (1) 소 (2) 대 (3) 소 (4) 대 **307** ② **308** ③ **309** (1) 자각 (2) 직면 (3) 설정 **310** ①
40	**311** ③ **312** (1) ○ (2) ○ (3) × **313** ⑤ **314** ④ **315** ③ **316** ② **317** ⑤ **318** ㄴ, ㄷ **319** ⑤ **320** ④ **321** (1) 단축되다 (2) 축적되다 (3) 초래하다 (4) 집착하다 **322** ②
41	**323** ① **324** (1) × (2) × **325** ④ **326** ⑤ **327** ㄱ, ㄴ **328** ④ **329** ④ **330** (1) × (2) × (3) × (4) × **331** ⑤
42	**332** ① **333** (1) × (2) ○ **334** ② **335** ④ **336** 공정성, 유동성, 인성, 단기적 **337** ⑤ **338** ⑤ **339** ② **340** ③

Part ❷ 예술

Ⅰ 예술 일반

본문 156~171쪽

43	**341** ④ **342** (1) × (2) ○ (3) × **343** ④ **344** ④ **345** ④
44	**346** ③ **347** ㄱ, ㄴ, ㄷ **348** ① **349** ① **350** ①
45	**351** ② **352** (1) × (2) ○ (3) × (4) ○ **353** ④ **354** ⑤ **355** (1) 일자 (2) 예지계 (3) 테오리아 **356** ③ **357** ③ **358** (1) 플라톤 (2) 플로티노스 (3) 피타고라스 **359** ⑤ **360** (1) ○ (2) × (3) × (4) ○ (5) ○
46	**361** ③ **362** ② **363** ④ **364** ③ **365** ㄱ, ㄷ **366** ③ **367** ② **368** (1) 자연 (2) 오디세우스 (3) 부하들 **369** ⑤
47	**370** ④ **371** (1) × (2) × **372** ⑤ **373** ① **374** ㄱ, ㄷ, ㄹ **375** ③ **376** ② **377** (1) 프랑스 (2) 프리드 (3) 텐 **378** ④

Ⅱ 건축

본문 172~181쪽

48	**379** ③ **380** ㄴ, ㄹ **381** ① **382** ① **383** (1) ○ (2) ○ (3) ×
49	**384** ③ **385** (1) 중세 시대 (2) 공공 (3) 직사각형 (4) 트란셉트 **386** ④ **387** ⑤ **388** ③
50	**389** ② **390** (1) ○ (2) ○ (3) ○ (4) × **391** ③ **392** ⑤ **393** (1) 승선교 (2) 옥천교 (3) 옥천교
51	**394** ② **395** (1) 들 (2) 근 (3) 들 **396** ④ **397** ① **398** (1) × (2) ○ (3) ○ **399** ② **400** ① **401** (1) 다양한 (2) 통합 (3) 곡선 **402** ② **403** ① **404** ② **405** ②

Ⅲ 회화, 사진

본문 182~193쪽

52	**406** ② **407** (1) ○ (2) × (3) × **408** ③ **409** ③ **410** ㄴ, ㄹ, ㅁ
53	**411** ③ **412** (1) ○ (2) × (3) ○ **413** ② **414** ④ **415** ②
54	**416** ① **417** (1) 재현 (2) 로댕 (3) 감광액 **418** ② **419** ④ **420** (1) × (2) ○ (3) × **421** ④
55	**422** ② **423** (1) × (2) ○ (3) × **424** ⑤ **425** ③ **426** ④
56	**427** ① **428** ㄱ, ㄹ **429** ④ **430** ③ **431** (1) 위 (2) 옆 (3) 위, 옆 **432** ③ **433** ② **434** (1) ○ (2) × (3) ○ **435** ⑤

Ⅳ 음악, 영화

본문 194~200쪽

57	**436** ① **437** (1) ○ (2) × (3) × **438** ④ **439** ③ **440** ㉠ 선율 ㉡ 아나포라 ㉢ 장식 ㉣ 트릴 ㉤ 트레몰로
58	**441** ④ **442** (1) ○ (2) ○ (3) × **443** ④ **444** ⑤ **445** ㄱ, ㄹ
59	**446** ④ **447** (1) 신 (2) 신 (3) 짧은 **448** ⑤ **449** ⑤ **450** (1) ㄱ, ㄷ (2) ㄴ, ㄹ **451** ② **452** ③ **453** (1) × (2) × **454** ⑤

I 논리

01 베이즈주의의 조건화 원리

지문 분석 본문 14~15쪽

주제 베이즈주의자의 조건화 원리에 따른 믿음의 정도 변화

해제 이 글은 베이즈주의자의 관점에서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임의의 명제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두고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의 입장 차이를 밝힌 뒤, 베이즈주의자의 관점에서 조건화 원리에 따른 믿음의 정도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실용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믿음의 태도에 대한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의 입장 차이

❷ (**조건화 원리**)의 개념 및 조건화 원리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변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

❸ (**베이즈주의자**)의 관점에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이유

00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상반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문단에서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믿음의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알 수 있으나, 이 글에서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오·오·이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4문단에서 베이즈주의자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2문단에서 베이즈주의자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의 명제 A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명제 B가 명제 A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명제 B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2문단에서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가질 경우, 베이즈주의는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베이즈주의자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문단을 통해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는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임의의 명제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00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베이즈주의자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

4문단에서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2) 교체 ~~베이즈주의자~~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 ×)

1문단에 따르면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은 베이즈주의자가 아니라 전통적 인식론자이다.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았다.

(3) 베이즈주의자의 관점에서 명제 A가 참임을 새롭게 알게 되면 이와 관련 있는 명제 B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변한다. (○, ×)

2문단에 따르면 베이즈주의의 관점에서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그와 관련 있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변한다고 할 수 있다.

00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인식론**: 인식의 기원과 본질, 인식 과정의 형식과 방법 따위에 관하여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부문.

정·정·이

① 베이즈주의 관점에서 본 인식론

– 조건화 원리를 중심으로

이 글은 전통적 인식론과는 다른 베이즈주의의 인식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조건화 원리를 중심으로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② 짜깁기 ~~전통적 인식론과 베이즈주의 비교~~

– 믿음의 태도를 중심으로

1문단에서 전통적 인식론과 베이즈주의의 차이가 언급되긴 했지만 이 글의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전통적 인식론과 베이즈주의 비교'를 표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부재 조건화 원리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

– 실용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4문단에서 베이즈주의자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를 조건화 원리의 현대적 의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조건화 원리의 한계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부재 베이즈주의의 ~~실용성에 대한 평가~~

– 상식의 정당화를 중심으로

이 글에서 베이즈주의의 실용성에 대한 평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부재 베이즈주의의 ~~형성 배경과 발전 과정~~

– 전통적 인식론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 글에서 베이즈주의의 형성 배경이나 발전 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정·오 지름길

② 전통적 인식론과 베이즈주의 비교

– 믿음의 태도를 중심으로

표제는 내용 전체를 함축하여 나타내는 제목이고, 부제는 표제에 덧붙어 그것을 보충하는 작은 제목이에요. 따라서 표제와 부제에는 핵심 단어를 포함하여 지문의 전체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해요. 1문단에 ②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한 선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글은 전반적으로 베이즈주의 관점에서 조건화 원리에 따른 믿음의 정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니, ②처럼 지문에 내용이 있어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반영하는 것은 오답으로 걸러 낼 수 있어야 해요.

00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2문단에서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4문단에서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② 짜깁기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2문단에서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조건화에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③ 상반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3문단에서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⑤ 짜깁기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문단에서 베이즈주의자는 인식 주체가 어떤 명제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2문단에서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임의의 명제 A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인식 주체가 임의의 명제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조건화 원리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05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문단에서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믿음의 정도 ~~및 행위~~에 관한 것이다.

2문단에서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ㄷ. 짜깁기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 그와 관련 있는 다른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강해진다~~.

2문단에서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 그와 관련 있는 다른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는 등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믿음의 정도가 반드시 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00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 ㉡: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가장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이다.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가 거짓임을 가장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정도의 문제로 본 것이다.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도의 문제로 본 것은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가 아니라 '베이즈주의자(㉡)'이다. '베이즈주의자(㉡)'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 '내일 눈이 온다.'를 참이라고 믿는다면,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내일 눈이 온다.'를 참이라고 믿는다면 이미 태도가 정해진 것이므로,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② ㉠: '내일 눈이 온다.'를 참이라고 믿지 않는 동시에 거짓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가 주장한 믿음의 태도 중 하나가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지 않는 동시에 거짓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④ ㉡: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같을 수 있다.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을 정도의 문제라고 보았다.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⑤ ㉡: '오늘 구름이 많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내일 눈이 온다.'가 참임을 그 조건이 없을 때보다 강하게 믿는다면, 조건화 원리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변한 것이다.

2문단에 따르면 '베이즈주의자(㉡)'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아 명제에 대한 기존 믿음의 정도가 변화한다고 하였다. 즉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던 인식 주체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면, 이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아 명제에 대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가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2 귀납의 논리적 한계

지문 분석 본문 16~17쪽

주제 귀납의 논리적 한계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

해제 이 글은 귀납의 논리적 한계와 그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귀납은 그 특성상 정당화 문제와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 정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임을 논증한 바 있다. 그리고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철학자들은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귀납이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귀납**)의 개념과 특성

❷ 귀납의 (**정당화**)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

❸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

00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병렬적**: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의 것.
- **위상**: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고찰**: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정·정·이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문단에서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중 하나로 정당화 문제를 제시한 후, 3문단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 한 라이헨바흐의 논증을 설명하고 있다. 또 4문단에서 귀납의 다른 논리적 한계로 지적되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제시한 후, 5문단에서 이 문제를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해소하려 한 현대 철학자들의 시도를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2문단에서 흄이 귀납의 논리적 한계로 지적한 정당화 문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을 뿐,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이 귀납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글에서 과학의 방법으로서 귀납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귀납의 위상이 높아진 과정을 역사적으로 깊이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거나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지 않다.

00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귀납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

1문단에서 귀납은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키며,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귀납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지는 않다.

(2) 귀납의 논리적 한계와 해소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

귀납의 논리적 한계 중 정당화 문제와 관련한 흄의 주장과 이를 해소하려는 라이헨바흐의 논증, 귀납의 논리적 한계로 미결정성 문제를 지적한 어떤 현대 철학자의 주장과 그럼에도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00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변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함.

정·정·이

④ 귀납을 비판하는 측의 견해와 옹호하는 측의 견해를 번갈아 가며 제시하고 있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지적한 흄의 견해와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 한 라이헨바흐의 견해,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를 지적한 일부 현대 철학자들의 견해와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의 견해를 번갈아 가며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귀납의 효용을 밝히는 ~~이론의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귀납의 효용을 밝힌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귀납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추론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귀납의 두 가지 논리적 한계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제시하였을 뿐, 새로운 추론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부정~~하는 측의 관점에서 다른 측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귀납을 비판하는 측의 견해와 옹호하는 측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의 관점에서 다른 측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귀납을 옹호하는 측에서도 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부재 귀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닌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양측의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귀납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지닌 철학자들이 소개된 것은 맞지만, 양측의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01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확보**: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

정.정.이

① 상반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해소될 수 없다

1문단에 따르면 귀납은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으로,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2문단에서 흄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논리적 한계로 지적한다.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인데, 많은 관찰 증거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오.오.이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5문단에서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지만, 이러한 시도가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5문단에서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④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2문단에서 흄은 귀납의 논리적 한계로 정당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라는 주장은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고 하였다.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1문단에서 귀납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011 답 (1) 귀납 (2) 미결정성 (3) 흄, 라이헨바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연역,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1문단에서 귀납은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을 가리키며,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2) 교체 귀납의 (정당화, 미결정성)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4문단에서 어떤 현대 철학자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3) 교체 (흄, 라이헨바흐)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데, (흄, 라이헨바흐)은/는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고자 하였다.

2문단에서 흄은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라는 주장은 자연이 일양적이라는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고 하였다. 또 3문단에서 라이헨바흐는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01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타파**: 부정적인 규정, 관습, 제도 따위를 깨뜨려 버림.

정·정·이

④ 다른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과학의 방법으로서 귀납이 지닌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3문단에서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이라고 보았다. 또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으므로 귀납이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다른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과학의 방법으로서 귀납이 지닌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③ 짜깁기 귀납의 정당화와 관련한 순환 논리를 ~~타파~~하고 있다.

2문단에서 흄은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과 '자연이 일양적이다.'라는 지식이 서로가 서로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고 하였다. 3문단에서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해소 방안을 제시할 뿐, 순환 논리를 타파하거나(③)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①).

② 짜깁기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하고 있다.

2문단에 따르면 자연의 일양성은 미래의 세계와 과거의 세계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는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연의 일양성은 경험하기 전에 알 수 있는 지식인 선험적 지식이 될 수 없다. 또한 3문단에서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일양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귀납이 다른 방법에 비해 더 나은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

⑤ 짜깁기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을 ~~부정~~하여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고 있다.

라이헨바흐의 논증에서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03 유비 논증

지문 분석 본문 18~19쪽

주제 동물 실험의 찬반 논쟁을 통한 유비 논증의 이해

해제 이 글은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설명하고, 유비 논증에 근거한 동물 실험의 유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의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유비 논증의 개연성과 관련하여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동물 실험 찬성 측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다음 유비 논증의 낮은 개연성 문제와 윤리성 문제를 들어 동물 실험 찬성 측의 주장을 비판하는 반대 측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2. 유비 논증을 바탕으로 한 (**동물 실험**) 찬성 측의 주장
3. 동물 실험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대**) 측의 비판

01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5문단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오·오·이

① 짜깁기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3문단을 통해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 커질 때 높아진다.

② 범위 오류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4문단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고통은 직접 느껴서 알고,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고 할 수 있다.

③ 인과 오류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3문단에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④ 짜깁기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2문단에 따르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로 볼 때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일 뿐, 정보가 아니며 이것이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다고도 할 수 없다.

014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의 유사성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다.

4문단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유효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ㄷ. 동물 실험을 할 때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4문단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의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성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오·오·이

ㄴ. 짜깁기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인간과 유사성이 없으므로 실험 결과가 무시된다.

3문단에 따르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인간과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따라서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도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이 글에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

01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의적**: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또는 그런 것.
- **주목**: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또는 그 시선.

정·정·이

④ ㉡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할 만큼 크지 않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본다.

4~5문단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만 있을 뿐,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할 만큼 크지 않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익을 주는 것을 회의적으로 본다.

2문단에 따르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의심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범위 오류 ㉠은 고통을 포함한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고 본다.

2~3문단에 따르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가진 유사성을 근거로 자신들의 유비 논증이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4문단에서 ㉠이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의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고통을 포함한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했다고 볼 수 없다.

③ 교체 ㉠은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2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다.

⑤ 교체 ㉠은 동물 실험과 관련 없는 특성일 경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이 낮아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낮지 않다고 본다.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인간과 실험동물 간에 유사성이 없

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일 경우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다.

정·오 지름길

④ ㉡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할 만큼 크지 않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본다.
⑤ ㉡은 동물 실험과 관련 없는 특성일 경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이 낮아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낮지 않다고 본다.
④에서는 ㉡이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는 입장, ⑤에서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했어요. ④와 ⑤ 모두 ㉡의 입장을 진술하고 있는데, 내용이 정반대죠? 이를 통해 ④와 ⑤ 중 하나는 잘못된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5문단에서 ㉡은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⑤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선지를 먼저 훑어보고 지문의 내용과 선지를 대조해 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01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	ⓑ	ⓒ
②	㉮	㉰	㉯

2문단에서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물 실험을 통해 ⓐ로부터 얻게 된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는 '어떤 개(㉮)'와 '다른 개(㉱)'가 유사성이 있으므로 ㉮의 특성이 ㉱에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이다. 즉 ⓐ는 ㉮이며, ㉮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는 실험동물을 통해 결과를 적용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는 ㉮와 ㉱의 유사한 성질인 '비슷하게 생긴(㉱)'이며, ㉮로부터 얻게 된 결과인 ⓒ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	ⓑ	ⓒ
①	교체	㉮	~~㉰~~	~~㉯~~
③	교체	~~㉮~~	~~㉰~~	~~㉯~~
④	교체	~~㉮~~	~~㉰~~	~~㉯~~
⑤	교체	~~㉮~~	㉰	㉯

016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다.

01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상반 B는 날개의 유무를 실험과 관련 ~~없는~~ 있는 특성으로 보아 ~~무시한 뒤~~ 고려하여, 실험동물을 선정하고 있군.
3문단에 따르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 간에 유사성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일 경우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B는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라 볼 수 있지만, 날개가 있는 동물의 실험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날개의 유무를 실험과 관련 있는 특성으로 보고, 이를 고려하여 실험동물에서 날개가 있는 동물을 제외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A는 배, 포도, 복숭아가 길 건너 가게에서 팔리고 있다는 특성을 직접 확인하였군.
A는 과일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대상(배, 포도, 복숭아)이 길 건너 가게에서 팔리고 있음을 어제 직접 보았다.

② A는 사과가 배, 포도, 복숭아와 같이 과일에 속한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길 건너 가게에서 사과도 팔 것이라 추론하였군.
A는 과일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이 길 건너 가게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과가 배, 포도,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과일에 속한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사과도 그 가게에서 팔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③ B는 인간과 동물이 가진 소화 기관의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군.
B는 인간이 사용할 약을 개발하기 위해 소화 기관을 가진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가진 소화 기관의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B와 달리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날개가 있는 동물, 날개가 없는 동물 모두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이 글로 보아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약을 개발하려는 B는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인간과 동물의 소화 기관이라는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날개 없는 동물이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날개가 있는 동물이든 날개가 없는 동물이든 모두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04 지식의 구분

지문 분석 본문 20~23쪽

주제 지식의 구분에 대한 두 가지 입장

해제 이 글은 지식의 구분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는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주장한 지식의 구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콰인의 반박과 콰인이 제안한 총체주의에서 지식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총체주의의 특징 및 한계를 밝히고 있다. 특히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종합 명제로 구분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콰인은 이러한 구분을 부정하고 총체주의를 주장하면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을 상정하고 이 둘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 구분
2.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에 대한 (**콰인**)의 반박과 총체주의 제안
3. 논증을 통해 종합 명제와 (**분석 명제**)의 구분을 부정한 콰인
4. (**콰인**)의 지식 구분
5. (**총체주의**)의 특징과 한계

01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1문단에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문단에서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제주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 ㉡ 모두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 아니요

1문단에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하였다. 또 예측이 맞을 경우, 혹은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므로 과학적 지식이 개별적으로 누적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콰인(㉡)'은 4문단에서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므로, 과학적 지식이 개별적으로 누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③ 범위 오류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 아니요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를 상정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콰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였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④ 범위 오류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 아니요

1문단에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2문단에서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⑤ 범위 오류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 ㉡: 아니요

3문단에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이 해당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과 같은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한다고 하였으므로,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4문단에서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고, 또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둘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르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오 지름길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과 ㉡에 대한 정보가 모두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먼저 선지들 중에서 ㉠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선지들을 골라내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들은 굳이 ㉡에 대해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골라낸 선지 중에서 ㉡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선지를 고르면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 문제는 ②만 ㉠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이기 때문에, ㉡에 대해 살펴보지 않아도 바로 정답을 맞힐 수 있어요.

019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수학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가?

1문단에 따르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 수학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고 하였다.

ㄴ. 과학적 지식은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되는가?

1문단을 통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ㄷ. 교체 개별적인 가설, 기존의 지식, 여러 조건 등이 모두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되는가? (콰인)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총체주의로, 이는 콰인의 주장이다.

02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상반 중심부 지식은 주변부 지식의 토대이므로 수정할 수 ~~없다~~. (있다)

4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콰인(㉡)'의 관점에서 중심부 지식이 주변부 지식의 토대인 것은 맞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적 지식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오·이

②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은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다.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콰인(㉡)'은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④ 주변부 지식은 중심부 지식과 달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뀐다.

'콰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고 보았다.

⑤ 지식의 변화는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다.

'콰인(㉡)'은 지식의 변화가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02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3문단에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을 부정하는 콰인의 논증이 제시되어 있다. 즉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와 같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인데,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콰인에 따르면 이 동의적 표현은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게 되고, 이 필연성 개념은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교체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논리 실증주의자)

1문단에 따르면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② 짜깁기 논리 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3문단에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것이 분석 명제라고 하였다.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하여 총각이 미혼의 성인 남성임을 밝힌 것은 경험을 활용한 방법이므로, 분석 명제임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상반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4문단에서 콰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고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으므로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았다. 또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관찰과 실험 등의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⑤ 상반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같을 / 바뀌지 않는)

3문단에 따르면 동어 반복 명제는 "총각은 총각이다."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는 명제를 말한다. 콰인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며,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기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22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짜깁기 콰인이 상정한 중심부 지식은 종합 명제와, 주변부 지식은 분석 명제와 ~~대응한다~~. (○, ⊗)

4문단에서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주변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심부 지식이 종합 명제와, 주변부 지식이 분석 명제와 대응한다고 볼 수 없다.

(2) 짜깁기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 ⊗)

3문단에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된다고 하였으므로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문단에 따르면,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이므로,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의 참 판별과 관련이 없다.

02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설만으로 예측을 도출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콰인은 가설, 기존 지식,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예측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보았다. 즉 가설만으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인과 오류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일 뿐, 과학적 지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설이 과학적 지식의 후보라고 본 것은 논리 실증주의와 포퍼의 입장이며, 콰인이 가설을 과학적 지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② 인과 오류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도출하면 ~~순환론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콰인은 종합 명제와 분석 명제를 서로 다른 것이라 구분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논증에서 순환론을 근거로 제시하였을 뿐, Ⓐ의 이유로 순환론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③ 인과 오류 ~~가설로는 지식을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콰인이 지식을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구분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맞지만, 이는 '지식의 구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는 '지식을 검증하는 과정'에 대한 주장이므로, 이를 Ⓐ의 이유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인과 오류 ~~가설과 예측을 시험하는 관찰이나 실험 등의 방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콰인은 Ⓐ와 같이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도출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였을 뿐, 가설과 예측을 시험하는 관찰이나 실험 등의 방법의 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02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4문단에서 총체주의를 제안한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는 예측인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실용적 필요에 따라 전체 지식인 ⓒ의 수정을 통해 가설인 ⓐ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오·오·이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2문단에서 콰인은 예측이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되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총체주의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자 입장에서는 예측인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가설인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할 것이다.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4문단에서 콰인은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자 입장에서는 예측인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인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2문단에서 콰인은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며 총체주의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자 입장에서는 예측인 ⓑ는 가설인 ⓐ와 전체 지식인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4문단에 따르면 콰인은 주변부 지식은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뀐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 입장에서 예측인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가 전체 지식인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 볼 것이다.

02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상반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없다.

2문단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

2문단에서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③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문단에서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02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외시**: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정·정·이

① 경험과 무관한 지식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4문단에서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명확히 나눌 수는 없다고 하며 지식 중에 경험과 무관한 것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5문단에서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험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가 존재하는데 총체주의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심부 지식까지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총체주의에서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할 때 중심부 지식까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주변부 지식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③ 교체 총체주의 실용적 필요가 있다면 주변부 지식이 아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총체주의를 제안한 콰인에 따르면 실용적 필요에 의해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즉 ③은 총체주의의 입장과 유사한 주장이므로,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④ 교체 총체주의 가설로부터 도출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가설로부터

도출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총체주의의 입장과 가까우므로,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⑤ 교체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를 구분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총체주의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종합 명제)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분석 명제)를 구분하는 것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은 총체주의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02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다다른다

㉢의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문맥상 '어떤 수준이나 한계에 미치다.'라는 뜻의 '다다르다'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②가 적절하다.

오·오·이

① 교체 잇따른다

'잇따르다'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르다. 또는 다른 물체에 이어지다.' 또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교체 봉착한다

'봉착하다'는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치다.'라는 의미로,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교체 회귀한다

'회귀하다'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교체 기인한다

'기인하다'는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라는 의미로,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028 답 (1) 봉착 (2) 기인 (3) 잇따랐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그의 식당은 계속된 경영난으로 폐점 위기에 (봉착 도달)하였다.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부닥쳤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침.'이라는 의미의 '봉착'이 적절하다.

(2) 교체 그의 불면증은 앞날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 (기인 회귀)한 것이다.

그가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이 지나친 걱정 때문이라는 의미이므로,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둠.'이라는 의미의 '기인'이 적절하다.

(3) 교체 오늘따라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들이 (잇따랐다 다다랐다).

좋은 일들이 이어 발생했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했다.'라는 의미의 '잇따랐다'가 적절하다.

02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황**: 일의 사정과 상황.
- **동요**: 생각이나 처지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림.
- **궁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정·정·이

④ 교체 ㉣: 앞으로의 일 따위가 잘되어 갈 것으로 여기는.

'결정적'은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 바뀔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이다. '앞으로의 일 따위가 잘 되어 갈 것으로 여기는. 또는 그런 것'은 '낙관적'의 사전적 의미이다.

오·오·이

① ㉮: 판단이나 결론 따위가 이끌려 나온.

'도출되다'는 '판단이나 결론 따위가 이끌려 나오다.'라는 의미이다.

② ㉯: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한다.

'상정하다'는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하다.'라는 의미이다.

③ ㉰: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다.

'견고하다'는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다.'라는 의미이다.

⑤ ㉱: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어.

'강구하다'는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우다.'라는 의미이다.

05 삼단 논법의 타당성

지문 분석 본문 24~27쪽

주제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요소인 '주연'

해제 이 글은 삼단 논법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주연과 매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삼단 논법의 타당성에 대해 언급한 뒤,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하나인 주연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삼단 논법의 예를 통해 소개념, 대개념, 매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설명하고, 주연과 관련하여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법칙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난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를 그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삼단 논법**)에서 타당성의 의미
2.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주연**)
3. 삼단 논법의 소개념, 대개념, (**매개념**)의 의미와 관계 및 주연과 부주연
4. 주연과 관련한 삼단 논법의 (**타당성**) 판단 법칙
5.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의 예

03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상반 삼단 논법에서 추론 형식의 타당성은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과 관계가 없다

1문단에 따르면 삼단 논법이란 세 단계의 명제로 구성된 추리 방식이다. 그리고 논리학에 있어 타당성은 추론 절차의 올바름을 뜻하며, 이는 명제의 참·거짓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삼단 논법에서 대개념은 대전제와 결론에 등장한다.

3문단에서 결론의 술어 개념을 대개념이라 하고, 대개념이 들어 있는 전제를 대전제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개념은 대전제와 결론에 등장함을 알 수 있다.

② 삼단 논법은 세 단계의 명제로 구성된 추리 방식이다.

1문단에서 삼단 논법이란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 즉 세 단계의 명제로 구성된 추리 방식을 말한다고 하였다.

③ 삼단 논법에서 결론은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3문단에서 결론의 주어 개념을 소개념이라 하고, 결론의 술어 개념을 대개념이라 한다고 한 것을 통해 삼단 논법에서 결론은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삼단 논법에서 '주연'과 '부주연'은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에 관한 용어이다.

2문단에 따르면 명제 안에서 어떤 개념이 그 대상의 전부를 지칭하도록 사용되었을 때 '주연되었다', 그 대상의 일부분만 지칭하도록 사용되었을 때 '부주연되었다'고 한다.

정·오 지름길

① 삼단 논법에서 대개념은 대전제와 결론에 등장한다.
③ 삼단 논법에서 결론은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단 논법의 세 명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①, ③의 적절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주어 개념	+	술어 개념
• 대전제:	매개념	+	대개념
• 소전제:	소개념	+	매개념
• 결 론:	소개념	+	대개념

031 답 (1) 주연 (2) 소개념, 대개념 (3) 매개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명제 안에서 어떤 개념이 그 대상의 전부를 지칭하도록 사용되었을 때 '(주연, 부주연)되었다'고 한다.

2문단을 보면 명제 안에서 어떤 개념이 그 대상의 전부를 지칭하도록 사용되었을 때 '주연되었다'고 한다고 하였다.

(2) 교체 삼단 논법에서 결론의 주어 개념을 (소개념, 대개념)이라 하고, 결론의 술어 개념을 (소개념, 대개념)이라 한다.

3문단에서 결론의 주어 개념을 소개념이라 하고, 결론의 술어 개념을 대개념이라 한다고 하였다.

(3) 교체 '타당한 삼단 논법에서는 (대개념, 소개념, 매개념)이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는 것이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법칙이다.

4문단에서 주연과 관련하여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법칙은 '타당한 삼단 논법에서는 매개념이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03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삼단 논법의 두 전제에서 매개념이 각각 부주연되었다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2문단에 따르면 명제 안에서 어떤 개념이 대상의 일부분만 지칭하도록 사용되었을 때 부주연되었다고 한다. 4문단에서는 삼단 논법의 각 전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매개념이 모두 부주연되어 각각 대상의 서로 다른 부분을 지칭하고 있으면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상반 매개념은 대전제와 소전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3문단에서 매개념은 소전제와 대전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소개념과 대개념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② 교체 논리학에 있어 타당성은 추론 결과의 참을 뜻한다.
절차의 올바름

1문단에서 논리학에 있어 타당성은 추론 절차의 올바름을 뜻하며, 명제의 참·거짓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③ 교체 삼단 논법에서 대개념은 두 전제에 모두 포함된다.
매개념

3문단으로 보아 대개념이 들어 있는 전제를 대전제라고 하며, 두 전제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매개념임을 알 수 있다.

④ 상반 주연은 명제에서 주어 개념이나 술어 개념이 대상의 일부를 지칭함을 이른다.
부주연

2문단에서 주연은 명제에서 주어 개념이나 술어 개념이 그 대상의 전부를 지칭하느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대상의 전부를 지칭하도록 사용되었을 때 '주연되었다'고 한다고 하였다. 대상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은 주연이 아니라 부주연이다.

03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지칭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문단에서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매개념이 각각에서 부주연되었을 때 지칭하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인과 오류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주연되면, 매개념이 소전제와 결론에서 지칭하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인과 오류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주연되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인과 오류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결론에서 지칭하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전제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주연되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매개념이 지칭하는 부분이 같을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이를 ㉠의 이유로 볼 수 없다(①, ②). 한편 매개념은 결론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소전제와 결론에서 매개념이 지칭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비교할 수 없다(①, ③).

④ 인과 오류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지칭하는 부분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를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지칭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

03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B]에서 대전제의 '남학생들'과 소전제의 '남학생들'은 모두 부주연된 매개념이므로 각각 대상을 지칭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

5문단에 따르면 [B]에서 대전제의 '남학생들'은 '어떤 남학생들'이므로 전체 남학생들의 일부만을 지칭하고, 소전제의 '남학생들'도 '이 학교의 학생들'인 남학생들만을 의미하므로 전체 남학생들의 일부만을 지칭한다. 즉 매개념인 '남학생들'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었기 때문에 각각 지칭하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A], [B]에서 '축구팬'은 대전제와 결론에서 지칭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진다.

[A], [B]에서 대개념인 '축구팬'은 대개념으로, 매개념과 관련한 오류인 ㉡과 관련이 없다.

② 범위 오류 [A]에서 대전제의 '남학생들'과 소전제의 '남학생들'은 모두 부주연되었으므로 각각 대상의 일부만을 지칭한다.

③ 짜깁기 [A]에서 대전제의 '남학생들'과 소전제의 '남학생들'은 모두 주연된 매개념이므로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
있다

[A]에서 대전제의 '남학생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남학생들을 지칭하므로 주연되었고, 소전제의 '남학생들'은 '이 학교의 학생들'인 남학생들만을 지칭하므로 부주연되었다. 따라서 대상의 일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소전제의 '남학생들'뿐이다(②). 그리고 매개념이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었기 때문에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있다(③).

④ 상반 [B]에서 대전제의 '남학생들'과 소전제의 '남학생들'의 경우 전자는 부주연, 후자는 주연되었으므로 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
부주연 도출될 수 없다

[B]에서 대전제의 '남학생들'도 '어떤 남학생들'이고, 소전제의 '남학생들'도 '이 학교의 학생들'인 남학생이므로 전체 남학생들의 일부만을 지칭한다. 이처럼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었으므로 타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

03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결론을 '어느 철학자도 사업가가 아니다.'로 바꾸면 추론이 ~~타당하게 된다.~~ 타당하지 않다

〈보기〉에서 대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므로 합리적인 사람 중 일부를 지칭하고, 소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 중 철학자인 일부를 지칭한다. 두 전제에서 매개념이 모두 부주연되어 각각 대상의 서로 다른 부분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기〉의 삼단 논법은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론을 어떻게 바꾸든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

오·오·이

① '철학자'는 결론의 주어 개념이므로 소개념이다.

3문단에서 결론의 주어 개념을 소개념이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철학자'는 소개념에 해당한다.

② '합리적인 사람'은 두 전제에 모두 등장하는 개념이므로 매개념이다.

3문단에서 대전제와 소전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소개념과 대개념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매개념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모두 등장하는 '합리적인 사람'은 매개념에 해당한다.

③ 소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의 일부만을 지칭하므로 부주연되었다.

2문단에서 어떤 개념이 그 대상의 일부분만 지칭하도록 사용되었을 때 '부주연되었다'고 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소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모든 합리적인 사람 중에서 철학자인 사람만을 지칭하므로 부주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었으므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대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합리적인 사람으로 합리적인 사람 중 일부를, 소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 중 철학자인 일부를 지칭한다. 이렇게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었기 때문에 〈보기〉는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이며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

03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보기〉에서 결론의 '사업가'는 결론의 ~~주어~~ 술어 개념이므로 대개념이다. (○, ×)

〈보기〉에서 '사업가'는 결론의 술어 개념이며, 대전제에 들어 있으므로 대개념이다.

(2) 〈보기〉의 대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의 일부만을 지칭하므로 부주연되었다. (○, ×)

〈보기〉의 대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합리적인 사람으로, 모든 합리적인 사람 중 일부만을 지칭하므로 부주연되었다.

(3) 〈보기〉의 대전제를 '모든 합리적인 사람은 사업가다.'로 바꾸면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된다. (○, ×)

〈보기〉의 대전제를 '모든 합리적인 사람은 사업가다.'로 바꾸면, 대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사람을 지칭하므로 주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타당한 삼단 논법에서는 매개념이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라는 법칙을 지키게 되므로,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된다.

03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학생 ㉮가 세운 삼단 논법에서 매개념이 적어도 ~~한 번 주연~~되었기에 도출된 결론은 ~~타당하다.~~

〈보기〉의 삼단 논법의 매개념은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대전제에서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누나와 동생을 지칭하고, 소전제의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역시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 학교 △△ 동아리원을 지칭하므로 모두 부주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었기 때문에, 도출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오·오·이

①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개념과 대개념의 매개 역할을 한다.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두 전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매개 역할을 하므로 매개념에 해당한다.

② 학생 ㉮가 세운 삼단 논법에서 '클래식 음악을 싫어한다'는 대개념이다.

'클래식 음악을 싫어한다'는 결론의 술어 개념이며, 대전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개념에 해당한다.

③ '누나와 동생'은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전부를 지칭하지 않는다.

'누나와 동생'은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 중 일부의 사람이므로 전부를 지칭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⑤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나 지칭하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각각 부주연되었을 때 지칭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보기〉의 두 전제에서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주연되었으므로 지칭하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II 동양 철학

06 '명명덕'과 '친민'에 대한 해석

지문 분석 본문 28~29쪽

주제 '명명덕'과 '친민'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의 차이

해제 이 글은 『대학』의 '명명덕', '친민'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한 두 사상가의 해석을 제시하고, 그 해석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학문적 입장과 견해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희와 정약용의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해석)의 차이가 있는 『대학』의 '명명덕'과 '친민'

❷ '(명명덕)'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 차이

❸ '(친민)'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 차이

❹ 주희와 정약용의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03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문단에서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고 했으므로,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1문단에서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킨다고 했을 뿐, 대학을 공자가 건립했다고는 하지 않았다.

② 교체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기질)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2문단에서 주희는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주희는 사람들이 기질을 교정하지 못해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상반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1문단에 따르면 훈고란 경문 해석에서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이다. 3문단에서는 주희가 '친'보다는 '신'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고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는데, 정약용이 본래 글자를 고치는 것을 옳지 않게 보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교체 ~~정약용~~(주희)의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4문단에서 주희는 개인의 마음 수양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해석에서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관심을 둔 이가 주희임을 알 수 있다.

03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주희는 '명명덕'을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 ×)

2문단에서 주희는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2) 교체 ~~정약용~~(주희)은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다. (○, ×)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사람은 주희다.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3) 경문 해석의 차이는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 ×)

1문단에서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04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주희는 백성을 가르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를 사용하였다.

3문단에서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는데, 이는 '친'보다는 '신'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① 짜깁기 정약용은 '효', '제', '자'를 ~~마음에 새기는 태도~~를 ⓐ로 보았다.

정약용은 효, 제, 자와 같은 덕목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명명덕(ⓐ)'이라고 보았다.

② 교체 ~~정약용~~은 ⓐ가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토대로 한다고 여겼다. (주희)

'명명덕(ⓐ)'이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명덕)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긴 사람은 정약용이 아니라 주희이다.

③ 짜깁기 주희는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을 가리는 기질을 교정하는 것을 ⓐ로 보았다.

주희는 인간이 본래 지닌 마음의 밝은 능력(명덕)이 기질에 가려 발휘되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한데, 이것을 '명명덕(ⓐ)'이라고 하였다. 명덕을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으로 본 것은 정약용이다.

⑤ 상반 정약용은 백성들이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모습은 ~~아니기에~~ '친민'을 ⓑ로 고치는 것에 반대하였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하고,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덕목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04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보기〉에서 왕양명은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왕양명은 백성을 가르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하고자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② 상반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동일하지 않은)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 (같다)

정약용은 '명덕'을 '효', '제', '자'의 덕목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왕양명과 정약용의 '명덕' 해석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①). 또한 '명덕'을 인간이 본래 지닌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본 것은 주희이므로,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같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②).

③ 상반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다)

〈보기〉에서 정약용은 왕양명이 '친민'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왕양명의 '친민' 해석이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상반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

〈보기〉를 통해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음을 알 수 있고, 3문단을 통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을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문제의 경우 〈보기〉를 바탕으로 오답 선지를 먼저 걸러 낼 수 있어요. 〈보기〉에서 정약용이 '명덕'과 '친민'에 대한 왕양명의 해석이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①과 ③을 먼저 걸러 낼 수 있어요. 또한 〈보기〉에서 왕양명이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는 점에서 ④를 걸러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②와 ⑤만 지문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04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통: ①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함. ② 서로 어떠한 일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음.

정·정·이

⑤ 범위 오류 왕양명과 정약용 ~~모두~~ 백성들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을 '친민'으로 여긴다.

정약용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을 '친민'으로 여겼다. 그러나 왕양명은 백성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자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을 뿐, 백성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을 '친민'으로 여겼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왕양명은 주희와 '명덕'에 대한 관점이 일치한다.

이 글과 〈보기〉를 통해 왕양명과 주희는 모두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왕양명은 백성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에서 주희와 상통한다.

〈보기〉에서 왕양명은 백성을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음을, 이 글에서 주희는 백성을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양명과 주희는 모두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약용은 '명덕'의 이해와 '친민'의 해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여긴다.

〈보기〉에서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정약용이 '명덕'의 이해와 '친민'의 해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왕양명과 정약용 모두 '신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보기〉에서 왕양명은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아,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의 '친민'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또 이 글에서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게 보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왕양명과 정약용은 모두 '신민'보다는 '친민'을 적합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07 국가와 개인에 대한 견해

지문 분석 본문 30~31쪽

주제 국가와 개인에 대한 양주와 한비자의 견해

해제 이 글은 전국 시대의 사상가인 양주와 한비자가 국가의 질서 회복과 개인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모색하였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양주는 인간이 자신만을 위한다는 위아주의를 주장하며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에 희생되지 않는 개인의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한비자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입장에서 법치주의와 절대 군주론을 주장하며, 군주가 엄한 법으로 다스리면 국가가 강력해지고 백성(개인)도 이롭게 된다고 보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에 대한 두 사상가의 상반된 견해를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철학 사상가들의 등장
❷ 국가보다 (**개인**)의 삶의 중요성을 역설한 양주
❸ 법치를 통한 강력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비자
❹ 국가와 개인에 대한 (**양주**)와 (**한비자**)의 상반된 견해

04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제약**: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
- **의사**: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정·정·이

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존재이다.

2문단에서 양주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을 위한다는 위아주의를 주장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한비자는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간주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양주와 한비자 모두 동의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개인의 삶이 국가의 제약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한비자는 강력한 공권력을 이용한 법치를 통해 국가가 강력해지고 백성들이 보호를 얻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삶이 국가의 제약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양주는 사회 규범이나 국가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 개인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②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③ 범위 오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한비자는 법치의 진정한 의의가 백성을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공평무사한 정신으로 질서를 확립하여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군주 정치를

최선으로 여겼다는 점으로 보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양주는 사회 규범이나 국가 지향적 이념에 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므로, ③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④ 범위 오류 개인과 국가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이상적이다.
한비자는 법치를 통해 국가는 강력해지고, 동시에 백성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얻어 자신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양주는 사회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인위적인 허식으로 보고,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④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범위 오류 사회 질서의 안정과 발전보다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양주는 국가에 의해 개인의 삶이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통찰하고, 개인은 사회 규범이나 국가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 개인을 희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삶의 절대적 가치를 자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사회 질서의 안정과 발전보다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한비자는 군주가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국가의 혼란을 치유할 수 있으며, 법은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보다 사회 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44 답 (1) 한비자 (2) 양주 (3) 한비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군주는 백성들을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한비자)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한비자는 강력한 법치주의로 무장한 국가의 중요성과 절대 군주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군주가 법의 화신이 되어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국가의 혼란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2) 교체 국가와 같은 외적 존재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양주)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주는 국가와 같은 외적 존재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했으므로, 양주는 국가와 같은 외적 존재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3) 교체 백성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얻어 자신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한비자는 법치를 통해서 국가가 강력해지고, 동시에 백성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얻어 자신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04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짜깁기 양주는 한비자와 달리 ~~인위적인 규범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중요시한다.
양주는 강력한 법치주의를 주장한 한비자와 달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인위적인 허식으로 보았으므로, 인위적인 규범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글을 통해서는 양주가 자신의 생명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는 것을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중요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오·이

② 양주는 한비자와 달리 강력한 공권력이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긴다.
양주는 강력한 공권력을 독점한 국가에 의해 개인의 삶이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한비자는 강력한 공권력으로 상벌 체제를 확립하면 백성들이 법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긍정하였다.

③ 한비자는 양주와 달리 국가의 체제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긍정한다.
양주는 국가 체제를 부정했지만 한비자는 강력한 법치주의로 무장한 국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한비자는 국가의 체제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긍정했다고 볼 수 있다.

④ 한비자는 양주와 달리 국가 지향적 이념이 백성에게 이롭다고 여긴다.
양주는 국가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 개인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반면, 한비자는 군주가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국가의 혼란을 치유할 수 있고 결국 백성을 보호하고 이롭게 한다고 보았다.

⑤ 한비자는 양주와 달리 법을 통해 무질서한 사회에서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양주는 사회 규범에 의해 오히려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한비자는 법치를 통해 국가가 강력해지고 백성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얻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04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제재**: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
- **시류**: 그 시대의 풍조나 경향.
- **무욕**: 욕심이 없음.

정·정·이

① 양주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규범에 얽매여 개인의 삶을 잃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보기〉에서 백이와 숙제는 나라와 군주에 대한 충성과 절의라는 가치 규범에 얽매여 수양산에 은둔해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양주는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므로, 백이와 숙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오·이

② 상반 양주는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무책임하게 현실을 도피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로 볼 것~~이다.

〈보기〉에서 백이와 숙제는 나라와 군주에 대한 충성과 절의의 대명사로 추앙받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이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무책임하게 현실을 도피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2문단에서 양주의 사상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을 만큼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주가 백이와 숙제를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지도 않을 것이다.

③ 짜깁기 한비자는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군주를 억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의 신하로, 그들의 군주는 은나라 주왕이다. 백이와 숙제는 자신의 군주인 주왕을 죽인 주나라의 무왕을 인의를 배반한 신하라고 비판한 것이지, 군주를 억압한 것이 아니다. 또한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한비자는 절대 군주론을 주장하였으므로, 군주를 억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④ 상반 한비자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3문단에 따르면 한비자는 강력한 공권력으로 상벌 체계를 확립하면 상을 얻기 위해 인간이 법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한비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인 인간을 강력한 공권력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 주왕에 대한 충성과 절의로 수양산에 은둔해 지내다가 굶어 죽은 것이므로, 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강력한 공권력으로 그들은 제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⑤ 상반 양주와 한비자 모두 부당한 국가 권력과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무욕의 처신을 높이 인정하여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고 볼 것~~이다.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양주는 국가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 개인이 희생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한비자는 법치의 진정한 의의는 백성을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양주와 한비자 모두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게 된 백이와 숙제를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고 볼 것이라 하기 어렵다.

04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인의**: ① 어짊과 의로움. ②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정·정·이

(1) 양주는 개인주의자들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양주는 위아주의를 주장하였으므로 개인주의자들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2) 교체 한비자는 법보다 인의로 다스려지는 국가를 이상적인 사회로 볼 것이다. (○,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한비자는 강력한 법치주의로 무장한 국가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므로, 인의보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를 이상적인 사회로 볼 것이다.

(3) 상반 백이와 숙제는 위아주의를 ~~긍정하며~~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켜 행동한 것이다. (○, ×)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백이와 숙제는 나라와 군주에 대한 충성과 절의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으므로, 자신만을 위한다는 위아주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08 순자의 수양론

지문 분석 본문 32~33쪽

주제 성인에 이르기 위해 '심'의 수양을 강조한 순자의 수양론

해제 이 글은 순자의 수양론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자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심을 수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 심을 수양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상태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심'을 수양하면 '(**성인**)'에 이를 수 있다고 본 순자의 수양론

❷ '(**심**)'의 특성과, '폐'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야기되는 문제

❸ 심을 수양하는 방법 – '(**허**)', '(**일**)', '(**정**)'

❹ 성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함을 강조한 순자

04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지**: 몸이나 마음, 기술 따위가 어떤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

정·정·이

② 상반 '일'은 사물의 구별이 없이 통합된 심의 상태이다.

3문단에서 '일'은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심이 '일'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물을 혼동하지 않고 도에 집중하게 되어 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물의 구별이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도'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2문단에서 심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道)'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도'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임을 알 수 있다.

③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하다.

4문단에서 순자는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양에 정진할 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④ 성인은 '대청명'이라는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한 존재이다.

4문단에서 순자는 편견을 극복하고 도를 인식하여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이상적 상태를 '대청명'이라 부르고, 이에 도달한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였다.

⑤ '심'이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면 객관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3문단에서 인간의 심은 항상 움직이면서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기 쉽고, 이렇게 되면 심은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였다.

049 답 (1) 폐 (2) 정 (3) 성인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순자는 심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폐)(이)라고 규정했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자는 인간의 심이 편견에 빠지면 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심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폐'라고 규정했다.

(2) 교체 순자는 (정)은/는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자는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정'이라고 하였다.

(3) 교체 순자는 도를 인식하여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이상적 상태에 도달한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였다.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자는 편견을 극복하고 도를 인식하여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이상적 상태를 '대청명'이라 부르고, 이에 도달한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였다.

05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짜깁기 순자는 ㉢의 상태에 이르면 과거의 지식을 ~~새롭게 수용한 것으로 바꾸어~~ 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본다.

3문단에 따르면 '허(㉢)'의 상태는 심이 과거의 지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과거의 지식을 새롭게 수용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한편 심이 허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 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순자는 ㉠을 '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이나, 편견에 빠지기 쉬운 불안정한 것으로 본다.

2문단에서 순자는 '심(㉠)'이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심은 불안정하여 외부 사물에 의해 편견에 빠지기 쉬우므로, 인간

은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순자는 ㉡의 상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2문단에서 순자는 심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폐(㉡)'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심이 폐의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어긋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순자는 ㉣을 여러 가지 사물이 서로 다름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3문단에서 순자는 '일(㉣)'은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순자는 ㉤의 상태에 이르면 고요함을 유지하여 도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3문단에서 순자는 '정(㉤)'은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이 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고요함을 유지하여 도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05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순자와 장자는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채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3문단에서 순자는 '허'는 심이 과거의 지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기존 지식을 비운다고 볼 수 없으나, 새로운 지식을 채운다고는 볼 수 있다. 반면 〈보기〉에서 장자는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날마다 덜어냄을 통해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기존 지식을 비운다고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지식을 채운다고는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순자와 장자는 모두 '허일정'을 '심'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군.

3문단에서 순자가 '허'를 심이 과거의 지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일'을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 '정'을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보기〉에서 장자가 '허일정'을 심을 비우고 심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며 고요함의 상태에서 외적 사물에 동요되지 않고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순자와 장자는 모두 '도'에 이르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고 있군.

이 글에서 순자는 심은 '허일정'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도를 인식하여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보기〉에서 장자 역시 '도'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순자와 장자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군.

3문단에서 순자는 '정'은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보기〉에서 장자는 '허일정'을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순자는 욕망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장자는 욕망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군.

2문단에서 순자는 '심'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보기〉에서 장자가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5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장자는 허일정을 심을 비우고, 심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며, 고요함의 상태에서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 ×)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장자는 허일정을 심을 비우고, 심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며, 고요함의 상태에서 외적 사물에 동요되지 않고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2) 교체 ~~순자~~ 장자는 심을 수양하는 방법인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 ×)

이 글에서 순자는 심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인물은 순자가 아니라 장자이다.

(3) 인과 오류 장자는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보기〉에서 장자는 도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고 날마다 덜어냄을 통해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 볼 때 장자는 성인이 되기 위한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보다는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09 '명(名)'에 관한 노자의 견해

지문 분석 본문 34~35쪽

주제 '명(名)'과 관련한 노자의 견해와 사회 안정 방법

해제 이 글은 노자의 사상, 특히 '명'에 관한 견해와 그가 주장한 사회 안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상반된 것의 공존이 세계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노자의 사고방식을 소개하면서, 명이 존재나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한다는 노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노자의 관점에서 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유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명에 관한 노자의 견해가 지니는 의의와, 명에 관한 노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가 주장한 이상 사회와 사회 안정 방법을 밝히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도덕경』을 관통하는 (**노자**)의 사고방식
❷ '(**명**)'과 관련한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노자의 견해
❸ '명'과 관련한 (**유가**)의 입장에 대한 노자의 비판
❹ (**노자**)가 주장한 이상 사회와 사회 안정 방법

05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범법자**: 법을 어긴 사람.
- **양산**: 많이 만들어 냄.

정·정·이

⑤ 짜깁기 노자의 입장에서 '명'은 대상에 부여되어 ~~그 대상이 지닌 상반된 속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2문단에서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명'은 대상에 부여된 것으로 존재나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 '명'의 강화는 그 반대적 측면을 동반하게 되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명'이 그 대상이 지닌 상반된 속성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도덕경』에는 '상반된 것의 공존'에 관한 노자의 생각이 들어 있다.

1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노자의 『도덕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는 생각이라고 하였다.

② 노자는 법의 엄격한 시행이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노자는 "법령이 더욱 엄하게 되면 도적도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③ 노자는 탐욕과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문명사회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5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노자는 문명사회를 탐욕과 이기심 및 이를 정당화시켜 주는 이념의 산물로 본다고 하였다.

④ 노자에 따르면, 'A는 A이다.'와 같은 사유에 매몰된 사람은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노자는 A와 ~A가 공존하는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A는 A이다.'와 같은 사유에 매몰되어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05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노자는 상반된 것의 공존이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보았다. (○, ×)

1~2문단에 따르면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공존이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보았다.

(2) 교체 ~~노자~~ 유가의 입장에서 '명'은 사회가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 기준이다. (○, ×)

3문단에 따르면 '명'을 지향하는 것은 유가의 입장이다. 그리고 4문단에서 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 기준으로 '명'을 정해 놓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사회 질서가 안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다.

(3) 노자는 갈등과 투쟁이 극심했던 사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 ×)

5문단에서 '명'에 관한 노자의 견해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갈등과 투쟁이 극심했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05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문호**: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나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익**: 개인의 이익.

정·정·이

⑤ 특정 체계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5문단에 따르면 노자는 '명'으로 규정해 놓은 특정 체계나 기준 안으로 인간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에서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평화로운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볼 때, '적은 사람들이 모여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규모의 원시 공동체 사회(㉠)'는 특정 체계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짜깁기 국가의 문호를 열어 놓아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

5문단에서 노자가 말한 '열린 세계'는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의 문호를 열어 놓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노자는 욕심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주장한 것이지, 삶의 풍요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② 상반 백성들이 인과 예의 이념을 지향함으로써 욕심 없이 생활할 수 있다.

3문단에서 노자는 유가에서의 '인'과 '예'와 같은 '명'의 강화는 그 반대적 측면에 동반하게 되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인과 예의 이념을 지향하는 것은 노자가 주장한 공동체 사회인 ㉠과 거리가 멀다.

③ 상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 명확하여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

5문단에서 노자는 '명'으로 규정해 놓은 특정 체계나 기준 안으로 인간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를 주장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 명확한 것은 노자가 주장한 공동체 사회인 ㉠과 거리가 멀다.

④ 상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효율적 체계를 마련하여 백성들 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다.

5문단을 통해 노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나 탐욕, 이기심 등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보인 반면, '명'으로 규정해 놓은 특정 체계나 기준과 같은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를 긍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효율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노자가 주장한 공동체 사회인 ㉠과 거리가 멀다.

05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짜깁기 노자는 공자와 달리 '예'와 같은 이념이 실현되려면 이념을 지향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예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사람은 공자이다. 노자는 유가에서의 '예' 등과 같은 '명'의 강화는 그 반대적 측면을 동반하게 하여 사회의 혼란을 가중한다고 보았으므로, '예'와 같은 이념이 실현되도록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들을 비판하였을 뿐,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오·이

① 노자는 공자와 달리 '명'이 불변하는 이상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자는 '명'을 불변하는 이상적 기준으로 보았으나, 노자는 '명'을 존재나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노자는 '명'의 강화는 그 반대적 측면을 동반하게 되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하였다.

③ 공자는 노자와 달리 '예'에 의해 사회의 혼란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자는 유가에서의 인, 의, 예, 충, 효 등과 같은 '명'의 강화는 사회의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한 반면, 공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예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④ 공자는 노자와 달리 사회 구성원들이 '명'에 부합하도록 마땅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명'을 불변하는 이상적 기준으로 보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예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자는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 기준으로 '명'을 정해 놓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사회 질서가 안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다.

⑤ 노자와 공자 모두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노자는 '명'의 강화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하면서, '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에 관한 견해를 밝힌 노자는 적은 사람들이 모여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규모의 원시 공동체 사회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공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예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사회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로 볼 때 노자와 공자의 관점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사회의 혼란을 바로 잡는 데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05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훌륭한 임금은 임금답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가능해진다.

『도덕경』의 "차원 높은 덕은 덕스럽지 않으므로 덕이 있고, 차원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므로 덕이 없다."로 볼 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는 공자의 정명론에 대해 노자는 훌륭한 임금은 임금답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가능해진다고 반응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오·이

② 상반 신하가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아야 바른 정치가 펼쳐진다~~.

『도덕경』의 "차원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므로 덕이 없다."로 볼 때, 노자의 관점에서 신하가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차원 낮은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바른 정치가 펼쳐진다고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③ 상반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그의 아들도 ~~아들다워지게~~ 된다.

노자는 A와 ~A가 공존하는 것이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A는 A이다.'와 같은 사유에 매몰되어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것이나 아들이 아들다운 것은 'A는 A이다.'와 유사한 맥락의 말이므로, 노자는 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④ 교체 아들에게 덕이 있다는 판단은 그 덕을 ~~잃지 않을 때~~ 덕스럽지 않을 때 가능하다.

『도덕경』의 "차원 높은 덕은 덕스럽지 않으므로 덕이 있고, 차원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므로 덕이 없다."로 볼 때, 노자는 아들에게 덕이 있다는 판단을 그 덕을 잃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덕이 덕스럽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반응할 것이다.

⑤ 상반 군, 신, 부, 자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에 맞는 덕을 필요로 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군, 신, 부, 자가 각각의 위치에 따라 그에 맞는 덕을 필요로 한다고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10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

지문 분석 본문 36~39쪽

주제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

해제 이 글은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 중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을 설명하고 있다. 서학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한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이익과 19세기 최한기에 이르기까지 서양 의학을 수용한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을 통시적으로 제시하며, 그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 있다.

한 줄 요약

1. 19세기 중반까지 조선 사회에 영향력이 미미했던 서양 (**의학**)
2. 아담 샬의 영향을 받은 18세기 실학자 (**이익**)의 인체관
3. 홉슨의 의학에 영향을 받은 19세기 실학자 (**최한기**)
4. 인체를 자발적인 운동을 하는 (**몸 기계**)로 본 최한기의 인체관
5. 홉슨의 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심주지각설**)의 유용성을 주장한 최한기
6. 최한기가 주장한 심주지각설의 (**신기**)의 특징
7. 최한기의 (**인체관**)이 지니는 의의

05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담 샬의 영향을 받은 18세기 실학자 이익의 인체관과, 홉슨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실학자 최한기의 인체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서양 의학의 영향으로 조선에서 인체관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 이익, 최한기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거나 이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이익이 심주지각설의 '심'을 전통적 관점대로 심장으로 본 것과 달리 최한기는 심주지각설의 '심'을 신기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견해를 절충하

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담 샬, 홉슨과 같은 서양의 지식인들이 이익, 최한기와 같은 동양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인체관을 정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5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양상**: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정·정·이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을 다룬 글로, 서학이 유입되기 시작한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이익의 인체관을 거쳐 19세기 최한기의 인체관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과 관련하여 통념을 제시하거나 이를 반박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문답 형식~~으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묻고 답하는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06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학설**: 학술적 문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론 체계.

정·정·이

① 같은 학설에 대한 두 학자의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익은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한 반면, 최한기는 '심'을 신기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주지각설이라는 하나의 학설에 대한 두 학자의 다른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조선 시대 의학의 주류 사상~~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18~19세기의 실학자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3문단에 따르면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조선 시대 의학의 주류 사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조선 시대 기존 인체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의 기존 인체관에 대해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 기존의 심주지각설에서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 등이 언급되고 있을 뿐, 그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④ 교체 동양 사상이 서양 의학에 수용된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양 의학이 이익과 최한기에 의해 조선에서 어떻게 동양 사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부재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익과 최한기가 주체적으로 정립한 바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내용이 서술되고 있지 않다.

06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력**: 세력이나 재산이 있음.
- **투영**: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하여 나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정·이

④ 범위 오류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3문단에서 홉슨의 책들에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 최한기는 『전체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 기계로 형상화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홉슨에 의해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이 동양에 소개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문단에서 아담 샬의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아담 샬은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4문단에서 최한기는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졌다고 하였다.

②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2문단에서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했다고 하였다.

③ 이익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2문단을 통해 이익이 몸의 운동은 뇌가 주관한다는 것을 긍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5문단을 통해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견해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익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2문단에서 『주제군징』에는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5문단에서 『전체신론』은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하였다.

06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이익은 ~~근대 해부학~~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수용하였다.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 서양 의학 지식

(○, (×))

2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주제군징』에는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겨 있지 않았으므로, 이익이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은 로마 시대의 생리설과 중세의 해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익과 아담 샬은 공통적으로 뇌가 몸의 운동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 ×)

2문단에서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둘 다 뇌가 몸의 운동을 주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최한기는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을 접합하여 인체관을 주체적으로 정립하였다.

((○), ×)

7문단에서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며, 그의 시도는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06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조치**: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함. 또는 그 대책.
- **영향력**: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나 정도.

정·정·이

③ 범위 오류 당시 조정에서는 천문학·지리학과 달리 의학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내렸다.

3문단에서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고 하였다. 이때 금지된 서학에는 천문학·지리학은 물론 의학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학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서양 의학은 당시 조선의 의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3문단에 서양 의학은 당시 조선 의원들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의 이유로 적절하다.

② 당시 조선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다.

3문단에서 당시 조선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의 이유로 적절하다.

④ 서양 해부학이 발생시키는 윤리적인 문제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였다.

3문단에서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였다.

⑤ 당시 조선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의 내용이 풍부하거나 천문학의 내용보다 충격적이지 않았다.

3문단에 따르면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때 지구의 모

양이나 움직임은 천문학의 내용이므로, ㉠의 이유로 적절하다.

06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범위 오류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보기〉에서 데카르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라고 주장했다고 하였으므로,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한기는 5문단을 통해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두뇌라고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보기〉에서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였으므로,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물질)를 독립적으로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문단에서 최한기는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보기〉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공간을 차지하는 특징을 갖는 물질과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 정신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정신'은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6문단에서 최한기는 신기가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신기' 역시 형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보기〉에서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하였다. 반면 최한기는 6문단에서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하였으므로,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4문단에서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어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되어 있듯이 데카르트는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으므로, 데카르트 역시 그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결국 무한 소급의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도 최한기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065 답 (1) 물질, 정신 (2) 신기 (3) 심주지각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데카르트는 (물질, 정신)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물질,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보기〉에서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2) 교체 최한기는 인체를 몸 기계로 형상화하면서,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창조주, 신기)를 상정하였다.

4문단을 통해 최한기는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 기계로 형상화하면서, 인체가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동의 최초 원인으로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한 홉슨과 달리, 최한기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최한기는 홉슨과 달리 (뇌주지각설, 심주지각설)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5문단을 통해 최한기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이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그 대신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06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최한기는 심주지각설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C의 주장에 동의하겠군.

5~6문단에 따르면 최한기는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보았지만, 이때의 '심'은 신기로,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신기가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며,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체의 운동과 감각, 생명 유지를 위한 의지적 활동을 주재하는 것이 심장이라는 C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오·오·이

① 홉슨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를 상정했다는 점에서 A의 주장에 동의하겠군.

4문단에서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인체를 만들고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A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② 이익은 사지가 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 뇌라는 B의 주장에 동의하겠군.

2문단에서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 긍정했다고 하였으므로, 사지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뇌라는 B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③ 아담 샬은 뇌가 적극적으로 기능하여 감각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B의 주장에 동의하겠군.

2문단에서 아담 샬은 『주제군징』에서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뇌는 감각 기관과 사지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는 B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④ 이익은 감각을 주재하는 것이 심장이라는 C의 주장에 동의하겠군.

2문단에서 이익은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C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11 맹자의 '의(義)' 사상

지문 분석

본문 40~43쪽

주제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

해제 이 글은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맹자의 '의' 사상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소개하고, 공자가 생각한 '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강화한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전국 시대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
2. '인'과 '의'에 대한 (**공자**)의 견해
3. 맹자가 생각한 '(**의**)'의 의미
4. '의'에 대한 맹자의 견해 ① – '의'는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함.
5. '의'에 대한 맹자의 견해 ② – 인간에게는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
6. '의'에 대한 맹자의 견해 ③ – '의'를 현실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06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던 전국 시대의 시대적 환경을 언급하며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을 설명하고, 2문단에서 '의'에 대한 공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3~6문단에서 '의'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재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2~3문단에서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라고 하며 맹자의 '의'가 공자의 '의'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1문단에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가 재조명되고 있지는 않다.

06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공자와 맹자의 '의' 사상을 병렬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과 '의'에 대한 공자의 사상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계승하여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맹자의 사상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즉 '의'에 관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를 병렬적으로 나란히 비교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전국 시대의 사상적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1문단에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전국 시대의 사회상과, 양주와 묵적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던 사상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③ 맹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사상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6문단에서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는 맹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강조한 맹자의 사상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06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일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

정·정·이

④ 영향 관계에 있는 유학자들의 '의'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자의 '인'과 '의'에 관한 관점을 소개한 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의'에 관한 견해를 강화한 맹자의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향 관계에 있는 두 유학자의 '의'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유학이 현실 정치에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공자와 맹자의 견해가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현실 정치에 적용된 사례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부재 양주와 묵적의 사상을 맹자의 사상과 비교하고 있다.

1문단에서 전국 시대의 사상계가 양주와 묵적의 사상에 경도되었다고만 하였을 뿐, 양주와 묵적의 사상을 맹자의 사상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다른 학파의 반박을 열거하고 있다.

3~6문단에서 '의'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뿐이다. 이 글에는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다른 학파의 반박이 열거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현실에서 유학적 가치를 실천한 유학자의 일화를 언급하고 있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도 '의'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 맹자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현실에서 유학적 가치를 실천한 유학자의 일화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7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확산**: 흩어져 널리 퍼짐.

정·정·이

④ 짜깁기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3문단에서 맹자는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맹자가 '의'의 의미 확장보다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6문단에서 맹자는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하였다.

② '의'의 실천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6문단에서 맹자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했다고 하였다.

③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3문단에서 맹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으로 규정했다고 하였다.

⑤ 사회 규범으로서 '의'는 '인'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3문단에서 맹자는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했다고 하였으며,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했다고 하였다.

07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맹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의'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였다. (○, ×)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맹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였다.

(2) 맹자는 인간의 내면에는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하였다. (○, ×)

5문단에서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 교체 맹자는 사회 안정을 위해 '인'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하며, '인'의 실천을 위해 '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

공자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본 사람은 맹자가 아니라 공자이다.

07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맹자가 '의'에 대한 공자의 견해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문단에서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강화하고 있을 뿐, 공자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맹자가 공자의 견해를 비판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오·이

① 공자가 '인'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인가?

2문단에서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전국 시대의 사상계는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

1문단에서 전국 시대의 사상계가 양주와 묵적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③ 맹자가 주장한 사회 구성원의 의무는 무엇인가?

3문단에서 맹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6문단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④ 맹자가 불의한 행위를 막는 동기로 본 것은 무엇인가?

5문단에서 맹자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07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수치심**: 수치(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를 느끼는 마음.

정·정·이

② 교체 맹자는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고, 묵적은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4문단에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다. 반면 〈보기〉에서 묵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맹자는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고, 묵적은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맹자와 묵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맹자는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 등으로 보았다. 반면 〈보기〉에서 묵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③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묵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4문단에서 맹자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반면 〈보기〉에서 묵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고, 묵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5문단에서 맹자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

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보기〉에서 묵적은 '의'의 실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⑤ 맹자는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 묵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3문단에서 맹자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했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묵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정·오 지름길

④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고, 묵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지문의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④에서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으로 표현되었어요. 이때 '수치심'의 의미를 몰랐다면 두 표현이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기 어렵겠죠? 따라서 어휘 공부도 평소에 열심히 해야 돼요.

074 답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ㄷ. 맹자와 묵적은 모두 '의'를 통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3문단에 따르면 맹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고, 〈보기〉에 따르면 묵적은 '의'가 실현되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맹자와 묵적 모두 '의'를 통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ㄱ. 교체 맹자는(묵적)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다.

〈보기〉에서 묵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맹자는 인간에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다고만 하였을 뿐,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ㄴ. 교체 맹자는(묵적)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면 '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보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인물은 맹자가 아니라 묵적이다(ㄴ).

07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우선시**: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보거나 일차적인 것으로 여김.
- **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정·정·이

③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4문단에서 맹자는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자신의 나라에 이로움이 있는지 묻는 양혜왕에게 맹자는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취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답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곧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5문단에서 맹자가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볼 때, 맹자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곧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② 상반 왕이 백성들의 사익 추구를 도울 때 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문단에서 맹자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왕이 백성들의 사익 추구를 도우면 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④ 상반 개인적 이익을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시한다면 백성 개인의 삶이 완성될 것입니다.

3문단에서 맹자는 '의'를 개인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 규범을 설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5문단에서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개인적 이익을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 역시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므로, 백성 개인의 삶이 완성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상반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아랫사람의 행위를 의로써 포용(배제)할 때 사회의 질서가 수립될 것입니다.

5문단에서 맹자는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 추구는 '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볼 때, 맹자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아랫사람의 행위를 의로써 배제해야 한다고 말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2 천(天) 개념

지문 분석 본문 44~47쪽

주제 동양에서 천(天) 개념의 다양한 양상과 변천

해제 이 글은 동양에서 천(天) 개념이 '자연 천', '상제 천', '의리 천'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양상을 중심으로 그 변천을 밝히고 있다. 먼저 '자연 천', '상제 천', '의리 천'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그 변화 과정에서 천 개념이 당대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양에서의 천 개념은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동양에서 (**천**)에 대한 다양한 이해
2. 천 개념 ① – 자연 현상으로서의 '(**자연 천**)'
3. 천 개념 ② – 절대적 권능으로서의 '(**상제 천**)'
4. 천 개념 ③ – 도덕적 의미로서의 '(**의리 천**)'
5. (**천**) 개념의 변천과 그 의미

07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천은 인간에게 자연 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

2문단에서 천은 자연 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교체 천명 의식은 ~~동경 생활의 경험에서~~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비롯되었다.

3문단에서 천명은 가치 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등장했다고 하였다.

② 교체 천은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1문단에서 천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고 하였으므로, 천은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상반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문단에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 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⑤ 교체 ~~내면화된 천~~ 천명은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다.

3~4문단에 따르면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은 천명이라 할 수 있다.

07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자연 천' 개념은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에 따라 자리를 잡게 되었다. (○, ×)

2문단에서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 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 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였다.

(2) 교체 '상제 천' 개념하에서 천은 ~~가치 중립적인~~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었다. (○, ×)

3문단에 따르면 가치 중립적이었던 천은 '상제 천' 개념하에서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었다.

(3) 상반 '의리 천' 개념하에서 천명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띠었다. (○, ×)

4문단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가 부작용을 가져오자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이 수정되면서 '의리 천' 개념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7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제의**: 제사의 의식.

정·정·이

③ 부재 천과 결부된 존재에 대한 ~~제의의 형식~~

3문단에서 천이 상제와 결부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상제에 대한 제의의 형식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천 개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1문단에서는 동양에서 천이 하나의 표본이자 기준이었음을, 2~5문단에서 '자연 천', '상제 천', '의리 천' 개념에서의 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② 인간이 천에 대하여 가졌던 인식

2문단의 '천은 자연 현상 가운데 ~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

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3문단의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등에서 천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알 수 있다.

④ 천이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

3문단에서 인간이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는데, 이에 따라 천이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천이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⑤ 독점적 천명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원인

4문단을 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가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여 부작용이 심화된 것이 천명 의식에 변화를 가져온 원인임을 알 수 있다.

07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자율성**: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
- **타율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하여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성질.

정·정·이

① 상반 '자연 천'에서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연 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② '상제 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3~4문단에 따르면 '상제 천'은 백성에 대한 통치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상제 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의리 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잘 발휘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5문단에서 '의리 천' 개념하에서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의 실현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리 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을 잘 발휘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5문단에서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됨에 따라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였다. 이렇게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었는데, 이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5문단에서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한다고 할 수 있다.

080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이다.

5문단에서 '의리 천' 개념이 더욱 심화되어 천이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였다.

ㄴ. 인간은 내면에 천으로서의 본성을 갖고 있다.

5문단에서 '의리 천' 개념하에서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여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였으므로, 인간 내면에 천으로서의 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오·오·이

ㄷ. 교체 천은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한다.

3문단에 따르면 천이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은 '상제 천' 개념하에서이다.

08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내세**: 삼세의 하나.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을 이른다.
- **획일적**: 모두가 한결같아서 다름이 없는 것.
- **폄훼**: 남을 깎아내려 헐뜯음.

정·정·이

⑤ 천의 의지를 안다는 것이 통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3문단에 따르면 천의 의지인 천명은 통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동양에서 천의 의지를 안다는 것이 통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천을 통해 내세에 대한 뚜렷한 지향을 보였다.

이 글에서 천을 통해 내세에 대한 지향을 보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문단에는 오히려 동양은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상반 삶과 관련하여 천 개념이 비교적 획일적이었다.

1문단에 따르면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삶과 관련하여 천에 대한 이해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상반 생업에 미치는 천의 영향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었다.

2문단에 따르면 천은 자연 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양은 생업에 미치는 천의 영향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상반 현상적으로 천을 인식함으로써 도덕을 절대시하였다.

2~3문단에서 '자연 천' 개념하에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데, 이러한 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천을 인식하는 자연 천 개념하에서 도덕을 절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08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자연 천	상제 천	의리 천
④	ㄱ, ㄹ	ㄴ	ㄷ

ㄱ, ㄹ은 천을 절대적 권능이나 도덕적 의미가 없는 자연 현상이나 작용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자연 천'에 해당한다. 반면 ㄴ의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는 '상제'에 대응되므로, 이는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 천'에 해당한다. ㄷ은 천명을 인심 즉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여 사람과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는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된 천명 의식을 보여 주므로 '의리 천'에 해당한다.

오·오·이

	자연 천	상제 천	의리 천
① 교체	~~ㄱ~~	~~ㄴ, ㄹ~~	ㄷ
② 교체	~~ㄴ~~	~~ㄱ~~	~~ㄷ, ㄹ~~
③ 교체	~~ㄱ~~	ㄴ	~~ㄷ, ㄹ~~
⑤ 교체	ㄱ, ㄹ	~~ㄴ~~	~~ㄴ~~

082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다.

08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권력 행사에서 중시해야 할 점이 '의리 천'과 공통되는군.

4문단에 천명 의식이 수정되면서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고, 도덕적 의미로서 '의리 천' 개념이 자리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기〉의 물(백성)은 배(군주)를 뜨게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보면, 권력 행사에서 백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 '의리 천'과 공통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자연 천'과 같이 물이라는 자연의 힘이 부각되는군.

③ 부재 자연이 신성한 대상으로 인식된 '상제 천'과 연관되는군.

〈보기〉의 물은 단순한 자연의 힘(①)이나 신성한 대상(③)으로 인식되지 않고, 백성을 비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② 부재 '상제 천'의 명령이 물의 뜻으로 치환되어 드러나는군.

〈보기〉에서 물은 백성을 비유하는 것으로, '상제 천'의 명령과 물의 뜻이 치환되고 있지 않다. 083번-⑤의 해설에 따르면, 물(백성)의 뜻은 '상제 천'이 고려하는 요소이지, 치환되는 것이 아니다.

④ 교체 '의리 천'과 같이 백성의 명에 의해 통치자가 결정되는군.

4문단의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통치자를 결정하는 것은 '천'이지 '백성'이 아니다.

08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짙어 건물 외벽을 점검했다.

ⓐ는 '드러나는 기미, 경향, 느낌 따위가 보통 정도보다 뚜렷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이다.

오·오·이

② 교체 ~~짙게~~ 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액체 속에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진하다.'라는 뜻이다.

③ 교체 철수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안개나 연기 따위가 자욱하다.'라는 뜻이다.

④ 교체 정원에서 꽃향기가 ~~짙게~~ 풍겨 온다.

'일정한 공간에 냄새가 가득 차 보통 정도보다 강하다.'라는 뜻이다.

⑤ 교체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다.

'그림자나 어둠 같은 것이 아주 뚜렷하거나 빛깔에 아주 검은색이 있다.'라는 뜻이다.

정·오 지름길

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짙어 건물 외벽을 점검했다.
② 짙게 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③ 철수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④ 정원에서 꽃향기가 짙게 풍겨 온다.
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다.

각 문장에서 '짙다'의 주체를 찾아 이와 성격이 가장 비슷한 것을 살펴보면 답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짙었다(ⓐ)'의 주체는 '경향'이고, ①의 주체는 '가능성', ②의 주체는 '커피', ③의 주체은 '안개', ④의 주체는 '꽃향기', ⑤의 주체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추상적인 개념어인 '경향'과 가장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술한 '짙다'의 의미도 ⓐ의 의미와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

08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드러나는 기미, 경향, 느낌 따위가 보통 정도보다 뚜렷하다.

ⓐ는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사전적 의미로는 '드러나는 기미, 경향, 느낌 따위가 보통 정도보다 뚜렷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오·이

① 교체 ~~액체 속에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진하다.~~

'용액의 농도가 짙다.', '커피를 짙게 타다.' 등에 쓰인 '짙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③ 교체 ~~빛깔을 나타내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보통 정도보다 빛깔이 강하다.~~

'짙은 빨강', '화장이 짙다.' 등에 쓰인 '짙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08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교체 ㉮: ~~누리고~~

'영위'는 '일을 꾸려 나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누리다'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위하고'는 '누리고'가 아니라 '꾸려 나가고'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오·이

② ㉯: 아우르는

'포괄'은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포괄하는'을 '아우르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 떠받들어졌고

'숭배'는 '우러러 공경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숭배되었고'를 '떠받들어졌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 받아들여지면서

'수용'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용되면서'를 '받아들여지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 여겼다

'간주'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다고 여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간주하였다'를 '여겼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III 서양 철학

13 몸을 중심으로 한 인간 존재의 규명

지문 분석 본문 48~49쪽

주제 몸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견해

해제 이 글은 영혼·정신·의식·마음 등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 전통적 견해와 달리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 의해 규율화되어 행동한다고 본 푸코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와 달리 인간의 몸이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본 메를로퐁티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전통적 견해와 달리 (**몸**)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 학자들

❷ (**푸코**)의 견해 - (**정치·사회**)적 권력에 의해 인간의 몸이 규율화됨.

❸ (**메를로퐁티**)의 견해 - 인간은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임.

❹ 인간의 몸에 대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

08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은 규제에 의해 몸이 규율화되는 과정에, ㉡은 세계와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목한다.

㉠은 푸코가 제시한 개념으로, 그에 따르면 정치·사회 조직이 제시한 규제를 반복적인 훈육을 통해 체화시킨 결과, 규제가 몸에 각인되어 몸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한편, ㉡은 메를로퐁티가 제시한 개념으로, 그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로 그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생산해 낸다고 보았다.

오·오·이

① 부재 ㉠은 세계를 ~~긍정적으로~~, ㉡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 글을 통해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없으므로, ㉠, ㉡에 그러한 인식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② 범위 오류 ㉠은 외부와 몸의 관계를 ~~우연적인 것~~으로, ㉡은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에서는 외부의 권력이 요구하는 행동을 체화한 결과 몸이 그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외부와 몸의 관계를 우연적으로 본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에서는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 습관을 형성한 결과 몸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외부와 몸의 관계를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③ 교체 ㉠은 세계에 반응하는 주체의 의도에, ㉡은 세계에 의해 변화된 결과에 주목한다.

08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에서는 세계에 의해 변화된 결과에, ㉡에서는 세계에 반응하는 주체의 의도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부재 ㉠은 인간을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은 인간을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

㉠에서는 정치·사회 조직이 제시한 규제를 체화하여 규제가 몸에 각인된다는 점에서 인간을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에서는 인간 존재를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로 본다고 할 수 없다.

08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푸코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된다고 본다. (○, ×)

2문단에서 푸코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된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2)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몸을 행위의 주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

4문단에 따르면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모두 몸을 행위의 주체로 파악하여,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교체 메를로퐁티는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몸의 불안정성과 변화를 강조한다.~~ 은 행위가 습관화되면서 안정성을 얻는다고 본다 (○, ×)

4문단에서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이 행위를 통해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가 습관화되면서 안정성을 얻는다고 보았다. 몸의 불안정성과 변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푸코이다.

08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짜깁기 푸코는 몸이 사회적 권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로 반복적인 훈육~~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푸코는 인간의 몸은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

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반복적인 훈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째서 규율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오·오·이

② 푸코는 사회적 권력으로 인해 인간의 몸이 특정한 행동 양식을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2문단에서 푸코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 의해서 규정된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제는 몸에 각인되며 몸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③ 메를로퐁티는 몸이 규율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를 세계에서의 삶을 전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3문단에 따르면 우리의 몸이 어째서 규율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은 메를로퐁티로,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삶을 전개하기 위해 습관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④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모두 인간의 몸을 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했다.

4문단에서 몸을 행위의 주체로 파악하여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입장이 서로 통한다고 하였다.

⑤ 푸코는 몸이 규정된 행동 양식을 따름으로써 변화한다고 본 반면, 메를로퐁티는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 안정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2, 4문단에서 푸코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된다고 하였는데, 규율이 변화하는 시기에 권력 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변화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은 행위가 습관화되면서 안정성을 얻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9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메를로퐁티는 B씨가 사고 낼 뻔한 것을 기존에 형성했던 습관이 달라진 환경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메를로퐁티는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인 세계에서 삶을 전개하기 위해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B씨가 사고를 낼 뻔한 것은 기존에 형성했던 습관이 달라진 환경과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푸코는~~ 메를로퐁티 A군이 자리를 양보한 것을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행동이라 보겠군.

메를로퐁티는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주체인 인간 존재가 세계와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생산한다고 보았으므로, ①은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볼 수 있다.

② 교체 ~~푸코는~~ 메를로퐁티 B씨가 사고 낼 뻔한 것을 몸이 세계와 관계 맺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군.

메를로퐁티는 '세계에의 존재'로서의 우리는 세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세계와 관계 맺으며 살고 있는 몸이라고 보았으므로, ②는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볼 수 있다.

③ 교체 ~~메를로퐁티는~~ 푸코 A군의 행동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관련 있는 행동이라 여기겠군.

푸코는 정치·사회적 권력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한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푸코의 견해로 볼 수 있다.

④ 교체 ~~메를로퐁티는~~ 푸코 A군의 행동 이유를 몸에 각인된 규제가 몸을 통해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겠군.

푸코는 반복된 훈육으로 인해 개인들 모두 규정된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제가 몸에 각인된다고 보았으므로, ④는 푸코의 견해로 볼 수 있다.

09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3문단에서 '메를로퐁티(ⓐ)'는 몸과 정신은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는 관점을 지녔다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으므로,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할 수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신체를 통해 정신의 모습을 유추~~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신체를 통해 정신의 모습을 유추하는 것과 관련한 '메를로퐁티(ⓐ)'의 견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다.

③ 상반 신체는 인간의 존재 탐구에서 중요한 대상이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 학자로, 몸을 행위의 주체로 파악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교체 신체가 드러내는 것은 사회에 의해 규정된 행동 양식이다. 푸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된다고 본 사람은 푸코이다. 푸코의 관점에서 몸을 종속적으로 본 〈보기〉를 비판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상반 신체와 정신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상호 관련성은 없다~~.

'메를로퐁티(ⓐ)'는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데리다의 차연 개념

지문 분석 본문 50~51쪽

주제 차연 개념을 통한 데리다의 주장과 의의

해제 이 글은 후설의 의식 주체 개념을 비판한 데리다의 차연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후설이 주장한 의식 주체의 개념과 그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인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차연 개념을 통해 데리다가 주장하는 바와, 데리다의 사상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서양 근대 철학의 형이상학적 사고방식 속에서 후설이 주장한 (**의식 주체**)의 개념

❷ 후설의 의식 주체를 비판한 (**데리다**)의 차연 개념

❸ 의식 주체 개념이 지닌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념인 (**차연**)

❹ 차연 개념을 통한 데리다의 주장과, 데리다 사상의 (**의의**)

09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주체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으며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리다는 '차이'와 '연기'의 의미를 지닌 '차연'이라는 개념을 개진했다. 이에 따르면 주체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과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드러나고 그 의미에 대한 최종 해석은 계속 연기되는 것이다.

오·오·이

② 교체 의식 주체 객체는 주체로부터 비롯되고 주체와의 본질적인 차이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객체가 주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객체보다 주체가 우월하다고 보는 것으로 후설의 '의식 주체'와 관련이 있다.

③ 교체 의식 주체 주체가 지닌 절대적 지위는 나머지 다른 것들을 구별하는 확고한 기준이 된다.

주체가 지닌 절대적 지위는 후설의 '의식 주체'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2문단에 따르면 데리다에게 주체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④ 교체 의식 주체 주체가 그 자체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후설의 '의식 주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식 주체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차연은 이러한 후설의 의식 주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부재 주체의 의미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모호성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차연'은 '차이'와 '연기'의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다른 대상들과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드러나고 그 의미에 대한 최종 해석은 계속 연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미의 모호성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차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093 답 (1) 정당화 (2) 자기 동일성 (3) 절대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후설이 주장한 의식 주체는 객체에 대한 주체의 지배를 (비판, 정당화)한다.

1문단에서 의식 주체에 대한 후설의 관점은 이원 대립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주체와 객체가 우열 관계 내지 착취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객체에 대한 주체의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2) 교체 데리다는 (자기 동일성, 다양성)을 지닌 주체란 허구이자 환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데리다는 차연 개념을 통해 자기 동일성을 지닌 주체란 허구이자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3) 상반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은 의식 주체의 (상대적, 절대적) 위상 속에 은폐되어 있는 객체의 가치를 밝히는 개념이다.

3문단에서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은 의식 주체의 절대적 위상 속에 은폐되어 있는 객체의 가치를 밝히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였다.

09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데리다가 개진한 차연 개념의 한계점

이 글에 데리다가 개진한 차연 개념이 '차이'와 '연기'의 의미를 지닌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한계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후설이 바라본 의식 주체의 특징

1문단의 '후설에 의하면 의식 주체는 ~ 우월하며 본질적이다.'에서 드러나 있다.

③ 정신에 관한 후설의 관점이 지닌 문제점

1문단의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 정당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에서 드러나 있다.

④ 데리다가 의식 주체 개념을 문제 삼은 이유

3문단의 '데리다가 의식 주체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 욕망을 합리화했기 때문이다.'에서 드러나 있다.

⑤ 주체의 자기 동일성과 관련한 후설과 데리다의 견해

1문단의 '후설에 의하면 ~ 자기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와 4문단의 '데리다가 주장하는 바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 주체란 ~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에서 주체의 자기 동일성과 관련한 후설과 데리다의 견해가 각각 드러나 있다.

09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이데올로기**: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

정·정·이

① 짜깁기 ~~식민국이 스스로 열등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식민주의를 해체할 수 있겠군.

식민국을 열등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은 종주국과 식민국을 우열 관계로 보는 이원 대립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서양 근대 철학의 형이상학적 사고방식과 관련된 것이므로, 식민국이 열등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데리다의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오·이

② 종주국은 식민국과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겠군.

데리다는 이원 대립과 위계의 가치 질서를 만들어 낸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보기〉의 식민주의는 종주국과 식민국이 우열 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종주국의 식민 지배 행위에 대해 ②와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③ 식민주의는 종주국을 절대적 주체로 설정하면서 식민국의 가치를 은폐하려는 이데올로기이군.

데리다는 이원 대립과 위계의 가치 질서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기〉가 설명하는 식민주의에 따르면 종주국은 절대적 위상을 지닌 주체이며 식민국은 그 위상 속에 은폐되어 있는 객체일 뿐이므로, ③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④ 종주국의 무력 침략은 종주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데리다는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절대 주체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욕망을 합리화했다는 이유로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식민주의에 대해 ④와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⑤ 식민주의의 문제는 상대적 차이를 지닌 나라들의 관계를 위계질서를 지닌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겠군.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주체가 없다고 보는 데리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식민주의는 상대적 차이를 지닌 나라들의 관계를 위계의 가치 질서에 따라 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① ~~식민국이 스스로 열등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식민주의를 해체할 수 있겠군.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대개 지문에 제시된 관점과 〈보기〉의 관점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에서도 지문에 제시된 데리다의 관점과 〈보기〉에서 다루는 식민주의의 관점이 대립하고 있어요. 따라서 데리다가 〈보기〉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한 내용이므로, 〈보기〉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골라낼 수 있어요. 식민국이 열등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보기〉의 식민주의의 관점에 해당하므로, 데리다는 이를 부정해야 하는데 ①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09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각 나라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4문단에서 데리다는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주체의 부재를 확인하고 주체는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지 자기 동일성을 지닌 우월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데리다의 사상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식민 지배 문제를 본다면 나라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오·오·이

② 상반 종주국과 식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간의 차이를 ~~거부~~ 인정해야 한다.

3~4문단을 통해 데리다는 주체를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

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차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③ 짜깁기 힘이 센 나라와 약한 나라의 국민 모두 ~~자기 동일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데리다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 주체란 허구이자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므로, 데리다 입장에서 힘이 센 나라와 약한 나라의 국민 모두 자기 동일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④ 짜깁기 힘이 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착취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데리다는 주체와 객체가 우열 관계 내지 착취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원 대립과 위계의 가치 질서를 만들어 낸 후설의 의식 주체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데리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할 때 힘이 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착취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⑤ 짜깁기 ~~종주국은 주체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식 주체인 정신을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후설의 입장이다. 데리다는 후설의 의식 주체를 비판하는 입장이므로 종주국이 주체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데리다의 입장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15 반자유의지 논증과 비판

지문 분석 본문 52~55쪽

주제 반자유의지 논증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해제 이 글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에 관한 논증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두 관점을 소개하고, 그중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반자유의지 논증에 관한 비판적 입장의 주장과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한 줄 요약

1. 인간의 (**본성**)에 관한 두 관점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질문
2.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
3.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
4.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5.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이유

09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2문단에 따르면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이때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1문단에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 즉 물리적 사건일 뿐이다.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1문단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고 본다.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영혼은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이는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하는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09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반자유의지 논증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본다.

2문단에 따르면 임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이때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할 경우 모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오·오·이

② 교체 종교적 인간관에서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원천은 ~~몸~~ 영혼이다.

1문단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관에서 인간의 결정의 원천은 영혼이다.

③ 교체 ~~유물론적~~ 종교적 인간관은 물리적 실체인 몸과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을 완전히 구별한다.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에게 물리적 실체인 몸과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완전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종교적 인간관이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09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선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의 주체가 '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문단에서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5문단에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즉 선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오·이

① 인과 오류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② 인과 오류 ~~선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택의 주체가 '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면, 이는 곧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선결정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조건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인과 오류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4문단에 따르면 선택을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④ 인과 오류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3문단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것을 이유로 ㉡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10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4문단에서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앞서 말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 있을 수 없다.

오·오·이

① 상반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가 있을 수 있다.

② 상반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의 주체이고 그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다.

③ 짜깁기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있든 그렇지 않든 / 있다

4문단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결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 있을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와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사람이 선택의 주체이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도 있을 수 있다.

101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ㄴ.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4문단에서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ㄱ)는 것이고, 둘째는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ㄴ)는 것이다.

오·오·이

ㄷ. 교체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와 다르다고 하였다.

10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는 ㉯와 달리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를 비판하는 입장 모두 같은 결론을 수용한다.

2문단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은 ㉮, ㉯일 경우 모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르면 ㉮를 고려할 때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를 고려할 때의 결론(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오·오·이

② 상반 ㉯는 ㉮와 달리 당사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르면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할 때(㉯) 당사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③ 짜깁기 ㉮와 ㉯ 모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와 ㉯ 모두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④ 범위 오류 ㉮와 ㉯ 모두 이전의 사건들로 인해 당사자의 선택 이전에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전의 사건들로 인해 당사자의 선택 이전에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만 해당한다.

⑤ 범위 오류 ㉮와 ㉯ 모두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3문단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르면 ㉮를 고려할 때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를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10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의 실험은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입각한 것으로, 인간의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3문단을 보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H의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

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부인될 수 있고,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오·오·이

① 상반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H의 가설이 입증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상반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H의 가설이 입증된다면 인간의 선택은 선결정되므로, 무작위 가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③ 상반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H의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된다는 가정이 부정된다. 이렇게 볼 때 선결정 가정은 참이 아니게 된다.

⑤ 짜깁기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H의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된다는 가정이 부정되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부인된다.

10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 ×)

2문단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였다.

(2) 상반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범위 오류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 ×)

4문단에 따르면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는 조건과,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B가 '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회사로 돌아온 선택은 반자유의지 논증에 의하면 B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2문단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와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모두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에 의하면 B의 선택 역시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오·오·이

① A가 '나' 식당의 할인권을 가졌던 이전의 사건에 의해 '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선결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군.

반자유의지 논증에 따르면, A가 '나' 식당의 할인권을 가졌던 이전의 사건에 의해 '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선결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② A가 '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선결정된 경우에도 그 결정이 A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 보는 입장도 있겠군.

선택을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보는 입장에서는 A가 '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선결정된 경우에도 그 결정이 A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도 있다.

④ B의 뇌에서 선택 시점에 회사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신경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군.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B의 뇌에서 선택 시점에 회사에 돌아가기를 결정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B가 회사로 돌아가기로 한 선택이 할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에 의해 선결정된 것이라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B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군.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르면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하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16 악셀 호네트의 인정 이론

지문 분석 본문 56~59쪽

주제 상호 인정 관계에서 긍정적 자기의식을 통한 성공적인 자아실현

해제 이 글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호네트가 주장한 '목적격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통한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밝힌 뒤,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하는 경우와 사회적 무시로 인해 긍정적 자기의식이 파괴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 인정 관계에 따른 긍정적 자기의식의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며, 개인이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성공적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적 자기의식이 파괴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인정 질서에 저항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 투쟁을 통해 현대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회복될 수 있다는 호네트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한 줄 요약

1.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악셀 호네트의 주장
2. 호네트가 주장한 '목적격 나'와 '(**주격 나**)'의 개념 및 관계
3.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기의식의 형성
4. 상호 인정 관계에 따른 긍정적 (**자기의식**)의 세 가지 유형
5. 자아실현의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기존 인정 질서에의 (**저항**)
6. (**인정 투쟁**)을 통한 건강한 사회로의 회복

10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형화**: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여 하나의 틀에 속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
- **재정립**: 다시 바로 세움.

정·정·이

②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과 자기의식을 유형화하며, 자기의식과 자아실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호네트의 관점을 소개한 뒤, 2~3문단에서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긍정적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설명하며, 5문단에서 긍정적 자기의식과 자아실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특정 관점에서 자아와 자기의식 형성 방법을 소개하며, 자기의식 형성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자기의식 형성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③ 부재 특정 관점에서 자기의식의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기의식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호네트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설명하고, 자아 형성 과정의 특징과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역사적 변천에 따라 자아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자아 형성 과정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며, 자아 형성 과정과 자기의식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자아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③ 특정 관점에서 ~~자기의식의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기의식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4문단을 보고 ③의 '자기의식의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했다는 선지를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4문단은 상호 인정 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 각각의 자기의식이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언뜻 보면 적절한 것 같아 보이는 함정을 잘 피해야 정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요.

107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현대 사회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1문단에서 현대 사회는 개인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가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시에 있다고 지적한 호네트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ㄴ. 특정 철학자가 주장한 개념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4문단에서 호네트가 주장한, 상호 인정 관계에 따른 긍정적인 자기의식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ㄷ. 부재 특정 철학자의 견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이 글은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련한 호네트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10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 **상이한**: 서로 다른.

정·정·이

③ 중심 화제와 관련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호네트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한다고 보았을까?'에서 중심 화제와 관련한 질문을 제기한 후,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의 의의를 부각하고 있다.

이 글에서 유추의 방식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구체적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중심 화제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글에서 구체적 경험은 소개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중심 화제에 관한 상이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절충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 중심 화제에 관한 상이한 관점과 이를 절충한 입장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중심 화제와 관련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중심 화제에 대한 호네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을 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0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인과 오류 무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이다.

5문단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개인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개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인정 질서에 저항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무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가 아닌 원인에 해당한다.

오·오·이

② 무시는 현대 사회를 병리적 사회로 만드는 원인이다.

1문단에서 호네트는 현대 사회가 개인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가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시에 있다고 지적한다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무시는 개인이 원초적 관계에서 형성한 자신감을 파괴한다.

4문단에 따르면 개인은 원초적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배려를 받으며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무시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파괴된다고 하였다.

④ 자신의 능력과 속성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것은 무시에 해당한다.

4문단의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무시에 해당한다.

4문단의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사회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원초적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감을 형성한다. (○, ×)

4문단에 따르면, 원초적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정서적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2) 교체 권리 관계에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은 자부심(자기존중감)을 형성한다. (○, ×)

4문단에 따르면, 권리 관계에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은,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자기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3) 교체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성에 대한 무시를 경험하면 자기존중감(자부심)이 파괴된다. (○, ×)

4문단에 따르면,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부심이 파괴된다고 하였다.

11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굳건해지겠군**: 뜻이나 의지가 굳세고 건실해지겠군.

정·정·이

④ 교체 사회에서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할 때 ~~자부심~~(자기존중감)이 커질 수 있겠군.

4문단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존중감이 형성된다. 자부심은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형성된다.

오·오·이

① '주격 나'와 '목적격 나'의 관계는 일방적이라고 할 수 없겠군.

2문단에서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 주격 나가 새로운 자아상을 목적격 나에게 주장할 수 있고, 목적격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주격 나와 목적격 나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사회적 지지의 획득과 긍정적 자기의식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군.

3문단에서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한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③ 타인의 정서적 배려를 경험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겠군.

4문단에서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정서적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하기 어렵겠군.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개인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11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승인: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정·정·이

④ 인과 오류 [자료 2]: B씨가 시위를 한 이유는 B씨의 ~~'주격 나'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이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이유는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에 '주격 나'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오·오·이

① [자료 1]: A씨의 '주격 나'는 가족들의 기대를 일반화하여 '목적격 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목적격 나'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과 기대를 일반화하여 형성한 자아상이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했고 A씨는 이에 부응하여 도예가가 되었다. 따라서 A씨의 '주격 나'는 가족들의 기대를 일반화하여 '목적격 나'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자료 1]: A씨의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A씨와 아버지가 상호 인정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씨의 '주격 나'는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으라는 가족들의 기대로 형성된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계승한 도예가라는 자아를 형성한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상호 인정 관계 중 원초적 관계를 맺은 것에 해당한다.

③ [자료 2]: B씨의 '주격 나'는 △△시로부터 형성한,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목적격 나'에 반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시로부터 형성한 B씨의 '목적격 나'이다. B씨는 이에 반발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으므로 B씨의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자료 2]: B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B씨의 '주격 나'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씨의 '주격 나'는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에 반발하였으며, 이는 내국인과 이민자의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졌다. 그 결과 B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B씨의 '주격 나'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 행사라는 새로운 자아상을 주장하였고 '목적격 나'가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짜깁기 B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B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다.

오·오·이

① A씨는 자신이 전통 도예 기술을 계승한 도예가로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A씨는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고, 장인 정신을 중시하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므로 A씨는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인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③ B씨는 이웃들로부터 정서적인 배려를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B씨는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이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였다. 타인으로부터의 위로는 정서적 배려에 해당하는 것으로, B씨는 정서적 배려를 경험하면서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11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방편**: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
- **준거**: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정·정·이

① ㉠은 ㉡과 달리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5~6문단을 보면 호네트는 개인의 저항은 기존 인정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다고 말하였으며, 그는 이러한 모든 저항을 인정 투쟁(㉠)이라고 하였다. 반면 〈보기〉에서 홉스는 인간들이 갖는 동일한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가 적이 되어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이 일어나며, 이는 지속적 불안 상태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즉 ㉠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짜깁기 ㉡은 ㉠과 달리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보기〉에서 ㉡은 지속적 불안 상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고 사회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편으로 기능할 수 있다.

6문단을 보면 호네트는 ㉠이 현대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회복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기〉를 보면 홉스는 ㉡이 지속적 불안 상태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으므로, ㉡은 현대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편으로 기능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과 ~~㉡~~은 ~~모두~~ 사회적 준거와 개인의 자아상이 충돌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은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원칙인 인정 질서와 대립하며 발생한다. 반면 ㉡은 인간들이 갖는 동일한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가 적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지 사회적 준거와 개인의 자아상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범위 오류 ~~㉠~~과 ㉡은 ~~모두~~ 사회적 불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은 지속적 불안 상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으나 ㉠이 사회적 불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17 알랭 바디우의 '사건'과 '진리'

지문 분석 본문 60~63쪽

주제 사회 구조의 변화에 관한 알랭 바디우의 견해

해제 이 글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알랭 바디우의 철학적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계기로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바디우의 관점에서 사건과 진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건이 일어난 후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와 관련한 용어인 '주체', '용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바디우가 중요시하는 점을 밝히면서, 그를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사건'과 '진리'
2. (**사건**)의 개념과 대표적 사례
3. 사건의 발생 후 사회에서 일어나는 (**탐색**) 과정
4. 탐색을 통해 만들어지는 (**진리**)의 개념
5. 진리의 (**주체**)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급부
6.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진리와 (**용기**)의 중요성과 자세

1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개인은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3문단의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의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하여 그것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오·오·이

① 짜깁기 정치의 ~~목적은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1문단에 따르면, 바디우는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② 짜깁기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

2문단에서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④ 교체 ~~거짓이 아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리 절차라고 한다.
진리가 만들어지는

4~5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진리 절차라고 한다. 이때 진리란 거짓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탐색을 통해 사회 안에서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⑤ 교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 갈

6문단에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116 답 (1) 사건 (2) 탐색 (3) 주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사건)은/는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2문단에서 사건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였다.

(2) 교체 진리란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이다.

4문단에서 진리란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이자 사회 안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하였다.

(3) 교체 진리 절차에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체)(이)라고 한다.

5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리 절차에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11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개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주체의 일부가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

5문단에 따르면, 바디우는 진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곧 주체는 아니며, 그 사람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바디우의 시각은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지만, 오히려 개인을 다양한 영역에서 주체의 일부가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

오·오·이

① 짜깁기 개인이 ~~탐색을 통해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게~~ 만든다.

탐색을 통해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진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곧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되어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가 생길 수 있다. ㉮가 탐색을 통해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② 짜깁기 개인은 ~~진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개인이 진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개

인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된다는 바디우의 시각에 대한 비판에 해당한다.

③ 짜깁기 정치적 주체인 개인이 예술적 주체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
바디우의 시각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활동은 정치적 주체의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④ 짜깁기 개인이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바디우는 진리 절차에서 사회 안의 요소들을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이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다는 것은 ㉮와는 관련이 없다.

11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발점**: 일이 처음 시작되는 계기.

정·정·이

⑤ 짜깁기 ㉡보다 ㉠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
바디우는 사건(㉠)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진리보다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은 ㉡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된다.
1문단에서 사건(㉠)을 계기로 진리(㉡)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② ㉠은 ㉡이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 자체가 ㉡은 아니다.
6문단에서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하였다.

③ ㉡을 이루는 요소는 ㉠을 이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3~4문단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 안의 각 요소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탐색을 통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살피는데, 이때 사건에 충실한 것들로 분류된 요소들이 진리(㉡)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진리(㉡)를 이루는 요소는 탐색을 통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다고 분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며 ㉡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진다.
2문단에서 사건(㉠)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고, 6문단에서 진리(㉡)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11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교체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이다.
내 특정한 지점
2문단에서 사건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지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② 사건이 사라진 뒤에도 그 이름은 흔적으로 남는다.
3문단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건을 부르는 '이름'은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사회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③ 진리는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4문단에서 바디우는 진리가 정치 이외에도 과학, 예술, 사랑의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12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혼재**: 뒤섞이어 있음.

정·정·이

③ 짜깁기 ⓒ의 여부를 검토할 때, 특정 의도에 따라 선택한 ⓐ를 통해 떠올리는 사건과 사회적 요소 간의 관계를 조사하게 되는군.
바디우에 따르면 탐색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회 안의 특정한 요소를 선택해 그것의 충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요소들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한다.

오·오·이

① 특정 사건이 ⓐ로 불리게 되면 이후의 사람들은 ⓑ를 시도하겠군.
특정 사건이 전에 없던 이름(ⓐ)으로 불리면 사회에 흔적으로 남고, 후에 개인이나 집단이 이름을 통해 사건을 떠

올리며 사회 안의 각 요소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탐색(ⓑ)을 시도한다.

② ⓑ는 사회 안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의 여부를 가려내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군.

탐색(ⓑ)은 사회 안의 요소들 중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를 가려내는 작업으로, 충실성(ⓒ)은 탐색의 판단 기준이다.

④ ⓓ는 ⓒ를 기준으로 하여 ⓑ를 실시한 결과로서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탐색(ⓑ)을 통해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이 진리를 이루는데,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⑤ ⓐ가 흔적으로 남은 사회에서도 사회 안의 각 요소들 속에는 ⓓ와 ⓓ가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겠군.

이름(ⓐ)은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사회에 흔적으로 남는데, 사회 안의 요소들 중 사건에 충실한 요소를 가려내는 탐색을 통해 주체(ⓓ)인 것과 주체(ⓓ)가 아닌 것이 가려지게 된다. 즉 사회 안의 요소들 속에는 주체(ⓓ)와 주체(ⓓ)가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2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수립**: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움.
- **자치**: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

정·정·이

③ 짜깁기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으킨 '파리 코뮌'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겠군.

바디우는 사건의 대표적 예로 파리 코뮌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건이란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며,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파리 코뮌을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 결과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에 의해 혁명적 자치 정부가 수립된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겠군.

바디우는 사건을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면서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고, 사건의 대표적 예로 파리 코뮌을 제시하고 있다.

② 바디우는 '파리 코뮌'이라는 이름은 파리 시민들의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이 사회 안에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겠군.

3문단에 따르면, 바디우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벗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 사건을 전에 없던 이름으로 부르고 이 이름은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사회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본다.

④ 바디우는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여러 요소들과 '파리 코뮌'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진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바디우에 따르면 진리 절차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는 탐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탐색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요소들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한다.

⑤ 바디우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파리 코뮌'을 이어 가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6문단에 따르면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좇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12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파리 코뮌'은 시민들이 자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계획한 사건이다. (○, ×) 자연 발생적인

파리 코뮌은 사건의 대표적 예로, 사건은 미리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일이다. 〈보기〉에서도 파리 코뮌을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이라고 하였다.

(2) 교체 '파리 코뮌'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 사회 구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 ×) 내의 특정한 지점

2문단에 따르면,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3) '파리 코뮌'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벗어나는 독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

파리 코뮌은 시민 계급이 자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최초라고 평가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벗어나는 독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12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인과 오류 '동학 농민 운동'이나 '4·19 혁명'은 ~~자회 내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리를 이룰 수는 없겠군.~~

2문단에서 사건은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탐색을 통해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이 진리를 이룬다고 하였다. 사회 안의 요소 중 사건에 충실한 요소를 가려내는 작업인 탐색을 통해 진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 내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진리를 이룰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동학 농민 운동'이나 '4·19 혁명'과 같은 사건은 미리 계획되거나 예측될 수 없는 사건이겠군.

바디우에 따르면 사건은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동학 농민 운동'이나 '4·19 혁명'과 같은 사건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외치는 것은 바디우에게 있어서 '용기'에 해당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군.

바디우에게 있어 진리를 좇는 용기는 곧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외침은 진리가 아닌 것을 배제하는 외침으로, 용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시에서 '알맹이'나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이라고 칭하는 것은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군.

시에서 계승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맹이'나 '아우성'을 들고 있다. 이는 '탐색'의 결과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시인이 현실 문제인 민족의 통일을 꿈꾸며 '동학 농민 운동'이나 '4·19 혁명'을 떠올리는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과거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군.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과거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에서도 분단 현실이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하여 과거의 사건인 '동학 농민 운동'이나 '4·19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승해 나가야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18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철학

지문 분석 본문 64~67쪽

주제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철학

해제 이 글은 아도르노가 인간의 이성을 긍정하는 계몽주의를 비판하며 제시한 비동일성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이성에 관한 계몽주의자들의 이분법적 인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인간의 이성이 비이성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이유가 이성에 내재된 동일성 사고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일성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일성 사고에 대한 반성의 사유를 강조하였다. 그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의 사유 방식을 제안하며, 비동일성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비동일성 철학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동일성 철학의 논리를 담은 진정한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견해도 언급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이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계몽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
2. 계몽주의자들의 (**이분법**)적 인식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 ① – (**신화**)에 이성적인 면이 있음.
3. 계몽주의자들의 이분법적 인식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 ② – (**계몽(이성)**)에 비이성적인 면이 있음.
4. 이성에 내재된 (**동일성 사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
5. 동일성 사고에 대한 (**헤겔**)과 아도르노의 관점 차이
6. 동일성 철학을 비판한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철학과 그에 따른 진정한 예술

12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분화**: 사물이 단순하거나 같은 성질을 지닌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갈려 나감.

정·정·이

④ 대비되는 두 개념을 통해 비동일성 철학이 추구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이라는 대비되는 두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성 사고에 의해 비동일성이 어떤 한쪽으로 동일화되지 않도록, 비동일성에 대해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비동일성 철학이 추구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기존 이론을 비판하며 계몽주의가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다.

1문단에서 계몽주의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을 뿐, 계몽주의가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인용문~~을 활용하여 계몽주의가 ~~분화된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

이 글에는 인용문이 쓰이지 않았으며, 계몽주의가 분화된 원인을 다루고 있지도 않다.

③ 부재 ~~시대적 흐름~~을 제시하여 비동일성 철학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비동일성 철학과 관련한 시대적 흐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통념에 대한 의문을 통해 비동일성 철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통념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비동일성 철학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하고 있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② 인용문을 활용하여 계몽주의가 분화된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
③ 시대적 흐름을 제시하여 비동일성 철학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서술 방식을 찾는 문제에서는 선지가 '서술적 특징 +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럴 때 선지에서 말한 서술적 특징이 지문에 나오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보다 간단해요. 이 글에는 인용문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②, 시대적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③을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먼저 골라낼 수 있어요.

12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이성과 관련하여 계몽주의자들과 아도르노의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성에 의해 인간이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인간의 역사는 이성을 통해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추구해 왔다고 본 계몽주의자들의 관점과,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자들이 신화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계몽을 이성적인 것으로 규정한 이분법적 인식에 대해, 신화에도 이성적인 면이 있으며 계몽에도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오·오·이

② 교체 동일성 철학에 대한 아도르노의 견해를 비판하는 헤겔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하고, 비동일성 철학을 주장하였다.

③ 부재 헤겔에서 아도르노에 이르기까지 계몽주의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계몽주의자들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 헤겔의 동일성 철학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 등을 서술하고 있을 뿐, 계몽주의의 발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지 않다.

12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검증: 검사하여 증명함.

정·정·이

ㄱ. 대상에 대한 상반되는 관점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5~6문단에서 동일성 사고에 대한 헤겔과 아도르노의 상반된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ㄴ. 사상가의 관점이 담긴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부연하고 있다.

2~3문단에서 아도르노의 관점이 담긴 계몽과 신화에 대한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ㄷ.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근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4문단에서 '사과'와 같은 친근한 사례를 바탕으로 동일성 사고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ㄹ. 부재 다양한 철학적 이론을 분석하여 각 이론이 지닌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계몽주의나 헤겔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한 아도르노의 철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지도 않다.

12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은 미지의 대상인 자연이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문단에서, 아도르노는 ㉡과 같이 말하며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한다고 하였다. 자연이 인간의 이성을 억압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은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아도르노는 ㉠과 같이 선언하며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② ㉠은 자연의 공포로부터 탈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이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도르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 낸 신화에 나타난 인간의 노력을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은 과학적 지식과 수학이 당위적 질서가 되어 인간을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은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폭력과 고통의 관계를 만드는 데에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도르노는 ㉡과 같이 말하며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달한 과학적 지식과 수학이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이 됨으로써 지배와 복종의 작동 방식이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사회·정치, 심리·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폭력과 고통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았다(⑤). 즉 아도르노는 이성의 힘이 당위적인 질서를 만들어 인간을 억압한다고 본 것이다(④).

128 답 ㄱ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아도르노는 이성의 힘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본다.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이성의 힘이 당위적인 질서를 만들어 인간을 억압한다고 보았다.

오·오·이

ㄴ. 교체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자는 신화와 계몽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한다.

2문단을 보면 신화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계몽을 이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계몽주의자들이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 신화에도 이성적인 면이 있으며 계몽에도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ㄷ. 상반 아도르노는 원래부터 인간과 자연은 분리된 상태였다고 본다.

2문단을 통해 아도르노는 원래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12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질적**: 사물의 속성, 가치, 유용성, 등급 따위의 총체와 관련된.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② 짜깁기 끊임없는 반성의 사유를 통해 형성된다.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의 사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일성 사고가 반성의 사유를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대상 고유의 질적 측면을 잃게 만든다.

⑤ 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교환 가능하게 만든다.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에 의해 모든 대상은 고유의 질적 측면을 잃어버린 채(①), 계산 가능한 형태로만 측정이 되어 숫자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쉽게 교환 가능해진다고 보았다(⑤).

③ 전체주의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게 만든다.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에 지배받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④ 인간의 본성과 자연까지 계량화하게 만든다.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가 내재된 이성이, 자연은 물론 인간과 인간의 본성까지 계량화하여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3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상반 만약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K씨를 비동일성으로 본다면, K씨는 자신의 기준으로 A 국가를 ~~끌어들이는 주체~~ 끌어들임을 당하는 대상라고 할 수 있겠군.

5문단을 보면,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에 의해 대상을 끌어들이는 주체를 동일성, 끌어들임을 당하는 대상을 비동일성으로 보았다. 즉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K씨를 비동일성으로 본다면, K씨는 A 국가가 만든 기준으로 끌어들임을 당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오·오·이

① 만약 헤겔의 관점에서 A 국가를 보편자로 본다면, K씨는 특수자로 볼 수 있겠군.

5문단을 보면, 헤겔의 동일성 철학에서 특수자는 보편자의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헤겔의 관점에서 동일성 사고에 따라 대상을 끌어들이는 주체인 A 국가를 보편자로 본다면, A 국가가 제시한 평가 척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K씨는 특수자로 볼 수 있다.

② 만약 헤겔의 관점에서 A 국가를 보편자로 본다면, A 국가가 만든 5단계의 평가 척도는 P씨에게 개념적 틀로 작용했겠군.

P씨는 A 국가가 만든 평가 척도에 따라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였다. 헤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보편자인 A 국가가 만든 개념으로 특수자인 P씨가 끌어들임을 당한 것으로, 이때 A 국가가 만든 5단계의 평가 척도는 P씨에게 개념적 틀로 작용하였다.

③ 만약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A 국가를 동일성으로 본다면, P씨는 자신의 고유성이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5~6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A 국가를 동일성으로 본다면 P씨는 A 국가가 만든 평가 척도라는 개념적 틀에 의해 끌어들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도르노는 P씨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파괴되었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만약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P씨를 비동일성으로 본다면, P씨가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성 사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겠군.

아도르노의 관점에 따르면, P씨는 소득을 기준으로 삶의 만족감을 조사한 평가 척도에 의해 A 국가에 끌어들임을 당한 비동일성으로 볼 수 있다. P씨는 원래 자신의 삶에 만족했지만 동일성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행복한 삶의 기준이 달라지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13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헤겔은 아도르노와 달리 동일성 사고를 긍정한다. (○, ×)

5문단에서,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헤겔은 아도르노와 달리 동일성 사고를 긍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 교체 아도르노의 '비동일성'은 헤겔의 '~~보편자~~ 특수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 ×)

5문단을 보면 아도르노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의 핵심 개념인 '보편자'와 '특수자'를 각각 '동일성'과 '비동일성'으로 보았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아도르노의 '비동일성'은 끌어들임을 당하는 대상으로, 헤겔의 '특수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3)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에 의해 대상을 끌어들이는 주체를 '동일성'으로 본다. (○, ×)

5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에 의해 대상을 끌어들이는 주체를 '동일성'으로 본다고 하였다.

13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조성**: 주음(主音) 및 그 화음에 따라 결정되는 곡조의 성질.
- **으뜸음**: 음계의 첫째 음. 음계의 기초가 되는 음으로 장조에서는 '도', 단조에서는 '라'이다.

정·정·이

⑤ 짜깁기 서로 다른 음이 한 번씩 사용될 때까지 같은 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곡하는 것은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 동일성 사고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음이 한 번씩 사용될 때까지 같은 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곡하는 것은 기존의 음악적 질서에서 벗어난 방식이다. 이는 동일성 사고의 논리로부터 벗어난 방식에 해당한다.

오·오·이

① 조성 중심의 작곡법은 특수자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파괴하는 방식의 예술 형태라고 볼 수 있다.

③ 으뜸음을 중심으로 다른 음이 종속되도록 작곡하는 방식은 동일성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으뜸음을 중심으로 다른 음이 종속되도록 작곡하는 조성 중심의 작곡법은 동일성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③)으로,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는 특수자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파괴하는 방식의 예술 형태에 해당한다(①).

② 어떤 음도 조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동일성 철학의 논리를 예술에서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음도 조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정된 질서와 이러한 질서에 대한 친숙함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아도르노에 의하면 비동일성 철학의 논리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질서에 대한 친숙함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친숙함으로부터 벗어나 비동일성 사고에 의해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19 기억과 망각에 대한 인식

지문 분석 본문 68~71쪽

주제 기억과 망각에 대한 철학자들의 인식

해제 이 글은 서양 철학에서 논의해 온, 기억과 망각에 대한 철학자들의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플라톤, 하이데거 등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는 기억을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을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그러한 철학적 사유 속에서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한 피히테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니체는 기억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으로, 망각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인식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 망각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니체의 사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그의 사유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한 줄 요약

1.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 (**기억**)과 망각에 대한 인식
2. 기억과 망각에 대한 (**피히테**)의 인식
3. 기억과 망각에 대한 (**니체**)의 인식
4. 니체가 말하는 (**망각**)의 능력
5. 기억과 망각에 관한 니체의 (**사유**)의 의의

13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철저한 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5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플라톤은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 기억을 설명하였다.

1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플라톤은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그것에 대한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둘 사이에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하였다.

②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로 인식하였다.

1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③ 니체는 망각을 긍정적인 능력이라고 판단하며 서양 철학의 전통적 사유를 비판하였다.

3문단에 따르면, 니체는 기존의 서양 철학에서의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기억 능력에 대해 비판하였다고 했다. 즉 그는 기억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이라면, 망각은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인식하였다.

④ 니체는 음식물이 위에 가득 남아 있는 상황과 정신이 기억으로 가득 찬 상태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3문단에서, 니체는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하며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듯이 과거의 기억들이 정신에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음식물이 위에 가득 남아 있는 상황과 정신이 기억으로 가득 찬 상태를 유사하게 본 것이다.

134 답 (1) 망각 (2) 기억 (3) 기억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하이데거에게 진리란 (기억, 망각)이 없는 상태이다.

1문단에서 하이데거는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했다.

(2) 교체 플라톤은 이데아가 (기억, 망각)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1문단에서 플라톤은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 원형인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했다.

(3) 교체 니체는 기억에 대한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기억, 망각) 능력에 대해 비판하였다.

3문단에서, 니체는 기억을 중시하는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기억 능력에 대해 비판하였다고 하였다.

13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범위 오류 이데아를 바라보는 플라톤과 ~~하이데거~~의 관점

1문단에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원형인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한 플라톤의 관점은 드러나 있으나, 이데아를 바라보는 하이데거의 관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망각에 대한 니체의 사유가 지닌 의의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망각에 대한 니체의 사유는 기억이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 철학에서 망각의 능력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② 니체가 주장하는 망각 역량 복원의 방법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니체는 건강한 망각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피히테가 주장하는 자기의식과 기억의 관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히테가 주장한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기억과 망각에 대한 기존 철학자들과 니체의 인식 차이

1,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서양 철학에서 기억은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은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되어 온 반면, 니체는 기억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으로, 망각을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으로 인식하였다.

13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이 가능해야만 ㉢도 가능하다.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가능해야 ㉢도 가능하다는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이 없어도 ㉡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다.

'A는 A이다'라는 명제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이 있어야 한다. 즉 ㉠이 있어야 ㉡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다.

③ 교체 ㉡이 성립해야만 ㉠이 성립한다.

'A는 A이다'라는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A를 기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이 성립해야 ㉡이 성립한다.

④ 교체 ㉢은 ㉠을 위해 존재한다.

기억을 통해 자기의식이 가능한 것이므로, ㉠은 ㉢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교체 ㉢은 ~~㉡~~ ㉠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의식은 기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은 ㉠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137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피히테는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하였다.

2문단에서 피히테는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였다.

오·오·이

ㄱ. 교체 ~~피히테~~ 니체에 따르면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다.

3문단에 따르면, 망각을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으로 본 것은 피히테가 아닌 니체의 견해이다.

ㄷ. 교체 피히테가 주장하는 '자기의식'은 ~~망각~~ 기억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2문단에 따르면, 피히테가 주장하는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13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보적**: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또는 그런 것.
-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정·정·이

③ 피히테는 ㉮를 통해 자기의식을 갖게 되며, ㉯로 인해 세계를 잃게 된다고 생각했다.

2문단에서 피히테가 주장한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히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식을 망각(㉯)한다면, 즉 기억이 없다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① 짜깁기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는 ㉮와 ㉯를 ~~상보적 관계~~로 인식했다.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는 기억(㉮)을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을 부정적인 능력으로 보았다. 이 둘을 상보적 관계로 보았다는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② 교체 니체는 창조적 능력으로서 ㉮를 강조했고, 수동적 능력으로서 ㉯를 인식했다.

3문단에 따르면 니체는 기억(㉮)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으로, 망각(㉯)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인식하였다.

④ 짜깁기 하이데거는 ㉮가 지배하는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하여 ㉯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이데거는 진리가 망각이 없

는 상태,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망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짜깁기 니체는 기존의 철학적 입장과 달리 ㉯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는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했다.~~

3~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니체는 기억을 중시한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기억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이라면, 망각(㉯)은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인식하였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니체가 기억(㉮)을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짜깁기 피히테는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피히테에 따르면, 기억을 전제로 'A는 A이다'라는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 이에 따르면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는 '과거의 시험이 현재의 시험이다'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 그런데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가 주장으로 현실화된 '과거의 시험이 현재의 시험이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피히테는 을이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기억의 능력을 통해 의식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피히테는 자기의식이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피히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을이 지갑에 대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통해 과거에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니체는 을이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니체는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니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을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 주신 거'라는 기억으로 인해 지갑을 새로 사기 싫다고 하는 것은, 기억에 집착하여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니체는 을이 국어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니체는 망각을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니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을이 지난 시험을 잊고 이번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기억을 뛰어넘고 망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니체는 을이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것은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아이는 모래성이 부서지더라도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에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니체는 을이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에 지난 시험 결과에 좌절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14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니체는 ~~망각~~ 기억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으로 보았다. (○, ⊗)

3문단에서 니체는 기억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이라면 망각은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였다.

(2) 니체는 현재를 향유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

5문단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니체는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니체의 관점에서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 ×)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14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짜깁기 (가)에서 자기 이름의 소멸이 두려워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피히테가 생각하는 ~~'자기의식'이 부족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가)에서 자기 이름의 소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망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므로 기억을 긍정적으로, 망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히테가 주장한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의식을 망각한다면, 즉 기억이 없다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에서 자기 이름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자를 자기의식이 부족한 인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② (가)에서 초상화를 폐기하거나 동상을 허무는 행동은 망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서양 철학의 사유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군.

(가)에서 초상화를 폐기하거나 동상을 허무는 것은 그 인물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게 만드는 형벌이다. 이는 기억을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을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관점과 일치한다.

③ 니체에 따르면 (나)와 같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적 현상을 보이겠군.

니체는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기억에 얽매인 인물은 현재의 삶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적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④ (나)에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로버트 그레이브스의 사례는 망각의 역량 복원에 관한 니체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군.

니체는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며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나)에서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는 로버트 그레이브스의 사례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중요시한 니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⑤ 피히테에 따르면 (나)에서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사건을 되뇌는 것은 기억 능력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동일한 자아임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피히테의 관점에 따르면 (나)에서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되뇌는 것은 기억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 철학

지문 분석

본문 72~75쪽

주제 레비나스가 주장한 주체성의 의미와 타자 중심의 철학

해제 이 글은 주체 중심의 철학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계기로 하여 나타난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기존의 철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주체와 타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이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타자**) 중심의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❷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주체와 타자의 개념
❸ 레비나스가 제시한 주체성의 의미 ① – (**향유**)의 주체성
❹ 레비나스가 제시한 주체성의 의미 ② – (**환대**)의 주체성
❺ 환대의 주체성에서 타자의 (**출현**)의 의미와 타자의 역할
❻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

14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가꾸어 확생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2문단에서 타자성은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①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2문단에 따르면 레비나스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로 취급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②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을 가리킨다.

4문단에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한다고 하였다.

③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3문단에서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라고 하였다.

⑤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한다.

3문단에서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14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환대~~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속성을 지닌다.

3문단에서 향유의 주체성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3문단에서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며,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라고 하였다.

③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3문단에 따르면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으로 제시하면서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14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순기능**: 본래 목적한 대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기능.

정·정·이

③ 부재 주체 중심 철학이 지닌 ~~자화적 순기능~~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주체 중심의 철학이 주체와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은 지적하고 있으나, 순기능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주체 중심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1문단을 통해 주체 중심의 철학은 '생각하는 나'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임을 알 수 있다.

② 레비나스의 철학이 지닌 가치와 의의는 무엇인가?

6문단에서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였다.

④ 타자 중심 철학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1문단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이 타자 중심 철학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⑤ 레비나스는 타자와 주체를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가?

4문단에서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와 타자가 비상호적 관계,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14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합일**: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됨. 또는 그렇게 만듦.

정·정·이

④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도록 한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때 초월이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므로, 레비나스에게 타자는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도록 하는 존재이다.

오·오·이

① 짜깁기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가 되도록 이끈다.

레비나스가 언급한 타자의 출현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이 없으며, 3문단에서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② 짜깁기 주체의 일부분으로 ~~환원~~되어 주체와의 ~~합일~~을 이룬다.

2문단에 따르면 타자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보았다.

③ 짜깁기 ~~주체의 분열~~을 유도하여 ~~자기성이 소멸~~되도록 만든다.

5문단에서 타자의 출현으로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⑤ 교체 주체를 열린 세계에서 갇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5문단에 따르면 타자를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146 답 (1) 타자 (2) 타자 (3) 비상호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레비나스는 (주체,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레비나스는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2) 교체 레비나스는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

해서는 (주체, 타자)의 출현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3) 교체 레비나스에 따르면 주체가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대칭적, 비상호적) 관계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가 된다.

14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를 상실함으로써 Ⓐ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가능해진다.

5문단을 통해 레비나스가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고 했다.

오·오·이

① Ⓐ는 주체의 틀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질이다.

레비나스는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성질을 타자성(Ⓐ)이라고 하였다.

② Ⓑ는 향유의 주체성의 바탕을 이룬다.

향유의 주체성이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라고 하였다.

③ Ⓒ는 Ⓑ보다 Ⓐ를 중시하는 계기가 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게 된다고 보았다.

⑤ Ⓒ는 Ⓑ에 갇혀 있던 주체를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는데,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자기성(Ⓑ)에 갇힌 주체가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14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와 다르군.

〈보기〉는 타자를 나와 투쟁의 관계에 있으며,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는 타자를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오·오·이

① 상반 ㉮는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기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는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고, 〈보기〉에서도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였다.

② 교체 ㉮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가 아니라, 〈보기〉가 인간은 타자로 인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범위 오류 ㉮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 유사하군.

〈보기〉는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상반 ㉮와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유사하군.

㉮는 타자를 환대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이기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기〉 또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14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주체 중심의 철학에서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 , ×)

1문단에서 주체 중심의 철학에서는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2문단에서 주체 중심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2) 레비나스는 전쟁의 참상을 겪은 것을 계기로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 ×)

1문단에서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3) 상반 레비나스는 기존의 관점과 달리 주체와 타자를 동일한 위치로 올려놓았다. (○, ×)

6문단에 따르면,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주체와 타자를 동일한 위치로 올려놓은 것은 아니다.

15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새로 산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의 '놓이다'는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의 '놓이다'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문맥적 의미가 ⓐ와 유사하다.

오·오·이

② 교체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인 날이 없었다.

'마음이 놓인'의 '놓이다'는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가 사라지거나 풀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교체 들판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가 놓여 있었다.

④ 교체 하루빨리 다리가 놓여야 학교에 갈 수 있다.

'새 도로가 놓여'와 '다리가 놓여야'의 '놓이다'는 '일정한 곳에 기계나 장치, 구조물 따위가 설치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③, ④).

⑤ 교체 꽃무늬가 놓인 장롱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난다.

'꽃무늬가 놓인'의 '놓이다'는 '무늬나 수가 새겨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5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

ⓐ의 '놓이다'의 사전적 의미는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이다.

오·오·이

② 교체 접히거나 개킨 것이 널찍하게 펴지다.

'펼쳐지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③ 교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할 수 있게 되다.

'풀리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15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수용하고

ⓑ의 '받아들이다'는 '어떤 사실 따위를 인정하고 용납하거나 이해하고 수용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수용하다'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이다.

오·오·이

① 교체 설득하고

'설득하다'는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설득하고'는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교체 초월하고

'초월하다'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다.'라는 의미이므로, '초월하고'는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교체 포함하고

'포함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하거나 함께 넣다.'라는 의미이므로, '포함하고'는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교체 향유하고

'향유하다'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의미이므로, '향유하고'는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21 '변화'에 대한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

지문 분석 본문 76~79쪽

주제 '변화'에 대한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

해제 이 글은 '변화'라는 현상에 의문을 가지고 탐구했던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를 밝히면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변화의 실재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졌던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두 철학자의 견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체'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글은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 및 그의 연구의 특성과 의의를 밝히고 있다.

한 줄 요약

1. '(**변화**)'라는 현상에 대해 탐구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2. 변화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상반된 견해
3. 변화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4. '(**기체**)'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변화를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
5.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
6. 변화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의 특징과 의의

15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파르메니데스는 세계를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2문단에 따르면 파르메니데스는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고 빈 공간이 없다고 보았다.

오·오·이

①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을 통해 경험한 변화를 착각으로 간주했다.

2문단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을 통해 흔히 경험하는, 변화라고 믿는 현상이 사실은 착각 또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고 하였다.

②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의 실재를 자연 현상을 통해 설명하였다.

2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헤라클레이토스는 '강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 변화의 실재를 설명하였다.

③ 플라톤은 변화에 대한 견해를 적용하여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3문단에서 플라톤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하여 이원론적 세계관을 확립했다고 하였다.

④ 변화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이룬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자연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6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저술 속에서 변화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근대 자연 과학의 발전에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였다.

15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파르메니데스~~는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헤라클레이토스

(○, (×))

2문단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믿은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이며,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하였다.

(2) 교체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라고 믿는 현상이 착각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파르메니데스

(○, (×))

2문단에 따르면 변화라고 믿는 현상이 사실은 착각 또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파르메니데스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를 실체적 변화와 비실체적 변화로 구분하였다.

((○), ×)

5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변화를 실체적 변화와 비실체적 변화로 구분하였다.

15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적 변화를 규정하는 데에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모두 적용하였다.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체적 변화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변화라고 하였다. 이렇게 실체가 변화한다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변화에서 기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무에서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플라톤은 이상 세계를 설정하는 데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적용하였다.
파르메니데스

② 범위 오류 플라톤은 현실 세계를 설정하는 데에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모두~~ 적용하였다.

3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고(②),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하여(①) 이원론적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③ 교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체'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에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적용하였다.

④ 교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데에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적용하였다.

4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체'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변화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기체'란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변화의 토대를 의미하며, '형상'이란 그런 토대 위에 구현되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체'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에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적용하고(③), '형상'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에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적용한 것이다(④).

15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쳤다.

㉠의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에 쓰인 '펼치다'는 문맥상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생각을) 펼쳤다'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다.

오·오·이

① 교체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펼쳤다.

'접히거나 개킨 것 따위를 널찍하게 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② 교체 그 아이는 동화책을 펼쳤다.

'펴서 드러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교체 무용단은 환상적인 무대를 펼쳤다.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 만한 상태로 나타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교체 그는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펼쳤다.

'꿈, 계획 따위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15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

㉠의 '펼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이다.

오·오·이

① 교체 ~~자기 것으로 하다.~~

'자기 것으로 하다.'는 '가지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③ 교체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는 '만들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15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 ~~바로잡았다~~

ⓒ의 '확립하다'는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를 굳게 서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바로잡다'는 '그릇된 일을 바르게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내어놓았고

ⓐ의 '제기하다'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내어놓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 여겼다

ⓑ의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여기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 뜻한다

ⓓ의 '의미하다'는 '말이나 글이 무엇을 뜻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뜻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 일컫는다

ⓔ의 '가리키다'는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가리켜 말하다.'라는 의미의 '일컫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5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탈레스는 모두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군.

5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변화에서 기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무에서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탈레스는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만물의 근원인 '아르케'를 주장하며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헤라클레이토스와 ~~탈레스는 모두~~ '불'을 통해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였군.

헤라클레이토스는 '강물'과 '불'을 통해, 탈레스는 '물'을 통해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범위 오류 탈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하였군.

4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체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였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탈레스는 물이 그 본성상 여러 가지로 변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구성하므로,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③ 범위 오류 파르메니데스는 탈레스와 ~~달리~~ 만물의 근원적 요소 그 자체는 변할 수 없다고 여겼군.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하였으며, 탈레스 또한 근원적인 요소인 물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범위 오류 ~~파르메니데스~~와 탈레스는 ~~모두~~ '물'이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구성한다고 인식하였군.

탈레스는 물이 그 본성상 여러 가지로 변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하였다.

160 답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ㄷ.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는 변화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두 철학자는 변화라는 현상의 실재성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ㄱ. 상반 플라톤은 변화에 대한 기존 철학자들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플라톤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하여 이원론적 세계관을 확립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기존 철학자들의 견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ㄴ. 교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했다.

16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ㄴ은 변화 전에 없던 다리가 생겨나고 있던 꼬리가 없어지는 등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기체가 변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ㄴ은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한 경우이다. 이는 올챙이 자체가 소멸하고 개구리가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될 만큼 실체의 변화 정도가 크다.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에 따르면, ㄴ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변화인 실체적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변화에서 기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무에서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ㄴ을 기체가 변화한 사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ㄱ은 개구리의 크기나 모양은 변하지 않은 채 색깔만 변화하였으므로 비실체적 변화 중 질적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실체적 변화 중 질적 변화란 얼굴이 빨개지는 것과 같이 크기나 모양은 변하지 않고 색깔과 같은 질적 요소가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개구리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지 않은 채 색깔만 변화한 ㄱ이 질적 변화에 해당한다.

② ㄱ은 개구리의 색깔이 변화한다고 해도 변화 전 개구리의 형상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실체적 변화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실체적 변화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변화를 가리킨다. ㄱ에서 개구리의 변화는

변화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기체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비실체적 변화에 해당한다.

④ ㄷ은 개구리의 색깔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몸집이 커졌으므로 실체가 양적으로 증가한 비실체적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작은 풍선이 커지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등의 변화는 비실체적 변화 중 양적 변화에 해당한다. ㄷ에서는 개구리의 몸이 양적으로 커졌으므로 비실체적 변화 중 양적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ㄱ, ㄴ, ㄷ에서 각각의 변화 전 존재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무에서 유가 생성된 것이 아닌 장소의 변화나 새로운 관찰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에서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ㄱ, ㄴ, ㄷ에서 변화 전 존재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무로부터의 생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개구리나 올챙이가 장소를 이동한 경우이거나(장소 변화),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관찰되지 않았다가 새롭게 관찰된 경우로 볼 수 있다.

IV 철학 융합

22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지문 분석 본문 82~85쪽

주제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식

해제 이 글은 인간에게 있는 실존적 불안의 원인을 제시하고, 이 실존적 불안에 인간이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쟁론을 중시하는 방식과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한 후 두 방식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시적인 방식으로서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 방식을 제시하고, 앞의 두 방식과 비교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인간이 처한 (**실존적 불안**)의 원인으로서 수평적 모순과 수직적 모순
❷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① – (**쟁론**)을 중시하는 방식
❸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② –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
❹ 쟁론을 중시하는 방식과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의 공통점과 각 방식의 (**한계**)
❺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③ –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 원시적인 방식
❻ 원시적인 방식의 (**특징**)과 의의

16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쟁점**: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

정·정·이

①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두 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한 후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1문단에서 '이 실존적 불안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2~4문단을 통해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두 방식(쟁론을 중시하는 방식,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5~6문단에서 이들과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인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실존적 불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여 사회 변화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실존적 불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사회 변화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실존적 불안의 ~~장만된 양상을 사례로 들어 여러 학설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실존적 불안의 상반되는 양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여러 학설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실존적 불안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차를 나열한 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실존적 불안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63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1문단에서 '이 실존적 불안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화제를 제시하고, 이어지는 문단들에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인간이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ㄷ. 둘 이상의 요소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4문단에서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인 쟁론을 중시하는 방식과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는 이 두 방식과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인 원시적인 방식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ㄴ. 부재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통념을 반박하고 있지도 않다.

16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두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두 방식의 한계와 특징을 밝히고 있다.

[A]에서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인 쟁론을 중시하는 방식과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이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후자는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개체 간의 모순 해결에만 집중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교체 2~3문단에서는 두 방식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각 방식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 두 방식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두 방식의 핵심 개념인 '쟁론'과 '상보'는 각각 2문단과 3문단에 그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③ 부재 역사적 순서에 따라 각 방식이 발전해 온 과정을 살피며 각 방식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순서에 따른 각 방식의 발전 과정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④ 부재 두 방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보다 발전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두 방식이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발전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한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더 합리적인 방식임을 증명하고 새로운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어느 한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6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폴리스 형성 이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2문단에서,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의 고대 그리스에서 절대적 존재는 각 개체에게 미지의 대상이었으나, 폴리스가 형성된 후 서양 철학에서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규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폴리스 형성 이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춘추 시대 이후 중국의 장고 시대에는 수직적 모순에 대한 해결보다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다.

3문단에 따르면, 중국의 춘추 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이 수평적 개체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였다.

③ 짜깁기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방식이다.

5문단에서 '가장 원시적인 이 방식은 개체에게 다가오는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며,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쟁론을 중시하는 방식의 한계에 해당한다.

④ 상반 폴리스 형성 이후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와 개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순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2문단에서 폴리스가 형성된 후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의 힘을 통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했다.

⑤ 상반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개체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3문단에 따르면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 또는 예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적 가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집단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각 개체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수평적 모순이란 개체들 간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의미한다. (○, ×)

1문단에서 수평적 모순은 개체들 간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뜻한다고 하였다.

(2) 교체 춘추 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이성의 힘을 통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밝혀내고자 했다. (○, ×)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성의 힘을 통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밝혀내고자 한 것은 폴리스가 형성된 이후의 서양 철학이다. 3문단에 따르면 춘추 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3) 교체 폴리스 형성 이후 서양 철학에서는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 ×)

1문단에서 절대적 존재는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5문단에서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식에서는 개체에게 다가오는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고 하였다.

16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각 개체의 정체성은 카리스마를 지닌 존재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

㉮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식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5문단에서 원시적 방식에서 볼 때 '개체들은 자신이 발 딛고 살아가는 환경에 ~ 흩어지기를 반복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는 개체의 정체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개체는 정체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이다.

㉮는 개체의 정체성이 임시적이고 가변적이라고 보는 것이지 정체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② 범위 오류 개체의 특성과 장관없이 누구나 카리스마를 획득할 수 있다.

5문단에 따르면 카리스마는 절대적 존재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으로,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이 지니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카리스마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짜깁기 개체 간 정체성이 충돌할 때 다른 개체의 정체성을 우선하여 따른다.

㉮는 개체가 다른 개체의 정체성을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정체성은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⑤ 교체 각 개체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집단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존재이다.

3문단을 통해 개체보다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그 집단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삼가는 방식은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6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쟁론은 상보와 달리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밝히면 이를 통해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동일성을 찾아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다투는 방식이 쟁론이다. 반면, 상보는 도덕적 가치를 마련하여 개체 간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오·오·이

① 짜깁기 쟁론은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상보는 ~~절대적 존재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

쟁론은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다투는 방식이므로,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 춘추 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상보가 절대적 존재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짜깁기 쟁론이 ~~개체 간 다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상보~~(쟁론)는 개체 간 다름을 아우르는 동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쟁론은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다투는 방식이므로 쟁론을 개체 간 다툼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동일성을 찾는 것은 쟁론과 관련된 설명이지 상보와 관련된 설명이 아니다.

④ 범위 오류 상보는 쟁론과 ~~달리~~ 성곽 안의 공간에서 개체가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4문단에서 상보와 쟁론 모두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며 성곽 안의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에 고안된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라고 하였다.

⑤ 교체 ~~쟁론과 상보는 모두~~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을 알 수 없음(원시적인 방식)의 상태 그대로 둔다.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 즉,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은 쟁론, 상보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식인 원시적인 방식과 관련이 있다.

169 답 (1) 모순 (2) 상보 (3) 쟁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쟁론과 상보는 인간이 (모순 운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4문단에서 쟁론과 상보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의 과정이 모두 다르지만, 인간이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하였다.

(2) 교체 (상보 쟁론)은/는 개체와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하므로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4문단에 따르면, 상보는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3) 교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다투는 것은 (상보, 쟁론)이다.

2문단을 통해, 서양 철학에서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다투는 방식이 쟁론임을 알 수 있다.

17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인간 중심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쟁론과 상보는 모두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며 성곽 안의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에 고안된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다.

ㄷ.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쟁론과 상보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의 과정이 모두 다르지만 인간이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ㄹ. 인간이 지닌 모순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쟁론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상보는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오·오·이

ㄴ. 범위 오류 인간과 절대적 존재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인간과 절대적 존재(쟁론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쟁론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17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 바로잡기

㉣의 '해소하다'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릇된 일을 바르게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라는 의미의 '바로잡다'와는 의미상 차이가 있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사라져

㉠의 '소멸되다'는 '사라져 없어지게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사라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 이어받은

㉡의 '계승하다'는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가다.', '선임자의 뒤를 이어받다.'라는 의미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일의 결과나, 해 오던 일 또는 그 정신 따위를 전하여 받다.'라는 의미의 '이어받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 옮겨

㉢의 '이동하다'는 '움직여 옮기다.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꾸다.'라는 의미이므로, '옮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 뛰어난

㉤의 '월등하다'는 '다른 것과 견주어서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다.'라는 의미이므로 '뛰어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7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월등하다: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하게 여기다.~~

'월등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과 견주어서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다.'이다.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하게 여기다.'는 '중시하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오·오·이

① 소멸되다: 사라져 없어지게 되다.

'소멸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사라져 없어지게 되다.'이다.

② 해소하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

'해소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 '어떤 관계를 풀어서 없애 버리다.', '어떤 단체나 조직 따위를 없애 버리다.' 등이 있다.

17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나는 그의 행동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고 본다.

문맥상 ⓐ의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나는 그의 행동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고 본다.'에서 사용된 '보다' 역시 '대상을 평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오·이

① 교체 그는 걸핏하면 다른 사람의 흉을 보았다.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교체 그는 심각한 얼굴로 신문을 펼쳐서 보았다.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교체 그녀는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초조하게 시계를 본다.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교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은 그냥 먹고 본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먼저 하고서 그 뒷일은 나중에 생각함을 나타내는 말'로, 보조 동사에 해당한다.

23 가 변증법과 헤겔의 미학 나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지문 분석

본문 86~89쪽

가 변증법과 헤겔의 미학

주제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서의 절대정신

해제 이 글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한 후,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헤겔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미학을 다룬 헤겔의 관점과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와 (**헤겔**)의 변증법

❷ (**변증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

❸ 헤겔이 제시한 (**예술**), (**종교**), (**철학**)의 단계적 등급

나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주제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대한 비판

해제 이 글은 변증법에서 종합의 의미와 종합의 범주가 성립되는 요건을 설명하고,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헤겔의 미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변증법에서 (**종합**)의 의미

❷ (**헤겔**)의 미학에 적용된 변증법적 논리에 대한 비판

❸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대한 비판

17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파생**: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

정·정·이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종교, 철학에 비해 예술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낮게 두고 있는 헤겔의 미학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변증법에 기반한 헤겔의 미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예술이 철학보다 높은 상대적 위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이라는 철학적 방법을 토대로 헤겔의 미학 이론을 설명하거나 비판하고 있을 뿐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가)와 (나)가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나)는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에 충실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변증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변증법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부재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나)는 변증법에 입각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변증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이나 철학사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175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와 (나)는 절대정신의 세 형태의 위상을 다르게 보고 있다.

(○ , ×)

(가)는 절대정신의 세 형태로 예술, 종교,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술은 초보, 종교는 성장, 철학은 완숙 단계라고 하며, 예술을 종교나 철학보다 낮은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보고 있다. (나)는 변증법의 체계에 충실하고자 할 때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짜깁기 (가)와 (나)는 변증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 ×)

(가)와 (나)는 변증법을 토대로 헤겔의 미학 이론을 설명하거나 비판하고 있을 뿐, 변증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17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정 철학자의 견해에 대해 (나)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가)에서는 변증법을 바탕으로 하는 헤겔의 미학을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헤겔의 미학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며 헤겔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에서 설명한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활용된 구체적 사례를 (나)에서 소개하고~~ 있다.

(나)에서는 (가)에서 설명한 변증법에 기반한 헤겔의 미학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 (가)에서 설명한 변증법이 활용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나)에서는 헤겔의 미학에 적용된 변증법적 논리를 비판하고 있을 뿐, 변증법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탐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는 변증법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변증법이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철학자들의 주장을 비교하거나 대조~~하고 있다.

(가)는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변증법을 바탕으로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변증법에 대한 철학자들의 주장을 비교·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17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이성: 서로 다른 성질.

정·정·이

③ 교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절대적 진리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가)의 2문단에서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으로, 직관·표상·사유라는 인식의 형식에 따라 예술·종교·철학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절대정신의 세 형태인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직관·표상·사유로써 그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인 직관·표상·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은 절대적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가)의 2문단을 통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인 예술·종교·철학의 인식 내용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으로 동일하고, 인식 형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가)의 1문단에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가)의 1문단에서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가)의 3문단에서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정·오 지름길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③은 직관·표상·사유와 예술·종교·철학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관·표상·사유와 예술·종교·철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와 같이 다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지요. 이처럼 선지에서는 지문에 언급된 대상을 다른 표현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당황하지 말고 제시된 표현에 해당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지문으로 돌아가 확인하면 선지의 적절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178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가)의 2문단에서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고 하였다.

ㄴ. 직관·표상·사유는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형식이다.

(가)의 2문단에서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했는데, 이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 직관·표상·사유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직관·표상·사유는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ㄷ. 상반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정신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가)의 2문단에서 예술·종교·철학은 모두 절대정신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그러나 3문단에서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술·종교·철학이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7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에서는 ~~대등한 위상을 지닌 범주들이 병렬적으로 위치~~한다.

㉠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로, (가)의 1문단에서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에서 '정립'과 '반정립'은 서로 대립한다.

③ ㉠에서는 '종합'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가)의 1문단에서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 (나)의 1문단에서 변증법에서 종합은 대립적 두 범주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정립과 반정립은 서로 대립하며(①), 종합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짐(②)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가)의 2문단에서 헤겔에 따르면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고 하였다.

⑤ ㉡에서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의 3문단에서 예술, 종교, 철학은 인식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여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였다.

18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감수성**: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정·정·이

④ 짜깁기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예술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모두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감수성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공동체적 삶만을 강조하면 개인의 존재를 망각하기 쉽다. 그런데 개인의 삶만을 강조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삶과 개인의 삶의 조화가 중요하다.

(가)의 1문단에서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공동체적 삶만을 강조'하는 것이 정립이라면 이에 대립하는 것은 '개인의 삶만을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적 삶과 개인의 삶의 조화'는 앞에 제시된 두 대립적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오·이

① 교체 내일은 틀림없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은 눈이 올 것이다.

'내일은 틀림없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와 '내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는 정립과 반정립의 대립적 범주가 아니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교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죽는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동물은 생물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 동물은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죽는다.'와 '여기 있는 이 동물은 생물의 일종이다.'는 삼단 논법의 대전제와 소전제로, 정립과 반정립의 대립적인 범주가 아니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교체 참외는 맛이 매우 달다. 수박도 맛이 매우 달다. 포도도 맛이 매우 달다. 그러므로 모든 과일은 맛이 매우 달다고 할 수 있다.

'참외는 맛이 매우 달다.', '수박도 맛이 매우 달다.', '포도도 맛이 매우 달다.'는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범주들의 병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교체 지훈과 혜진이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났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 보니 둘 다 불고기를 먹었다. 따라서 배탈의 원인은 불고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훈과 혜진이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났다.'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 보니 둘 다 불고기를 먹었다.'는 정립과 반정립의 대립적인 범주가 아니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18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미학을 비판하며,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완성되고,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강화·완성되므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종합의 단계에 해당하는 철학에서 직관의 외면성과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인 감각적 지각성이 완전히 소거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기도 한다면서 헤겔의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헤겔은 자신이 주장한 미학에서 직관을 인식 형식으로 한다고 본 예술이 철학과 같은 최고의 지성적 통찰, 즉 사유에 의한 결과물을 구현해 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는 이에 대하여 헤겔의 이론에서는 직관의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짜깁기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종합의 범주가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헤겔의 미학을 비판하며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에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나)의 글쓴이가 종합의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에 들어가기 적절하지 않다.

③ 상반 이론에서는 ~~반정립~~ 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에서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는 정립–반정립–종합이고, 이 체계 안에서 절대정신은 예술–종교–철학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론에서 예술은 반정립이 아닌 정립 단계에 해당한다.

④ 짜깁기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보기〉에서 헤겔은 괴테나 실러의 완숙기 문학 작품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하며, 그 유력한 후보가 예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보기〉에 언급된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한 작품은 재객관화 단계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짜깁기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가)에 따르면 헤겔은 예술을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인 절대정신 중 하나로 보았고, 〈보기〉에서 헤겔은 괴테와 실러의 완숙기 문학 작품을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킨 것으로 여기고 있다. 즉 〈보기〉에서 헤겔은 예술을 최고의 지성적 통찰인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으로 보고 있으므로, (나)의 글쓴이가 〈보기〉에 제시된 헤겔의 견해를 예술이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3 답 (1) 예술, 직관 (2) 철학, 사유 (3) 표상, 철학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예술)의 인식 형식인 (직관)은/는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다.

(가)의 2문단에서 예술의 인식 형식인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라고 하였다.

(2) 교체 (철학)의 인식 형식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인 (사유)이다.

(가)의 2문단에서 철학의 인식 형식인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고 하였다.

(3) 교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가)의 2문단을 통해 헤겔이 절대정신의 세 형태를 예술·종교·철학으로, 이에 각각 대응하는 인식 형식을 직관·표상·사유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됨을 알 수 있다.

24 가 과정 이론 나 재이론

지문 분석 본문 90~93쪽

가 과정 이론

주제 새먼의 과정 이론의 개념 및 한계

해제 이 글은 새먼의 과정 이론이 등장한 배경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과정 이론의 개념인 인과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과정 이론의 한계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먼의 (**과정 이론**)

❷ 과정 이론에서 과정과 (**인과적 과정**)의 개념

❸ (**인과적 과정**)의 예와, (**인과적 과정**)이 아닌 예

❹ (**과정 이론**)의 한계

나 재이론

주제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의 개념과 변천 양상

해제 이 글은 재이론의 배경 사상을 제시하며 재이론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재이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예언화 경향으로 변질된 재이론의 한계를 언급한 뒤, 후대에 주희의 관점으로 새롭게 제시된 재이론인 전반적 대응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동중서의 (**재이론**)

❷ 동중서 이후 재이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진 재이론의 한계

❸ 후대에 (**주희**)가 새롭게 제시한 재이론인 전반적 대응설

18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상반 한대의 재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나)의 1문단에서 한대의 동중서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대의 재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가)의 1문단에서 새먼의 과정 이론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한 내용과 4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표지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으로, 이것이 도입된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그런데 4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인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의 인과 관계는 해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인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③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가)의 1문단의 근대 이후 서양에서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철학자들 사이에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나)의 3문단의 송대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했으며,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8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송대에는 천문학의 발달로 자연 현상의 예측이 가능해짐으로써 ~~재이론이 힘을 잃고 군주에게 직언할 수 있는 신하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나)의 3문단에서 송대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주희는 재이론을 고수하며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 신하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과정 이론에 따르면 땅에 멈추어져 있는 사물도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기에 그 상태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가)의 2문단에서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으므로,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이라고 하였다.

② 과정 이론에 따르면 두 과정의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된 이후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가)의 2문단에서 두 과정이 교차할 때,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인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라고 하였다.

③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할 때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관찰했다고 해서 인과 관계 그 자체를 직접 관찰했다고 말할 수 없다.

(가)의 1문단에서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고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④ 재이론은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군주의 실정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면적 성격을 띤다.

(나)의 1문단에서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라고 하였고, 2문단에서 이것이 재이론의 양면적 성격이라고 하였다.

18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과정 2는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으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인 과정 1과 교차하면서 바나나 모양의 변화라는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된다. 이 교차 이후에 과정 3의 그림자 모양 역시 변한다. 따라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 변화는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하면서 과정 1에 표지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이지, 바나나 그림자의 이동 과정인 과정 3과 과정 2가 교차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오·오·이

①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가)의 2문단에서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하였고, [A]에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 바나나의 그림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하였으므로,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고 볼 수 있다.

②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A]에 따르면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바나나)가 b까지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에는 온전했던 바나나가 과정 2와 교차한 후

에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바나나가 되므로, 교차 전후에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③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A]에 따르면 과정 1은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표지)을 b까지 전달할 수 있는 인과적 과정이다. 하지만 과정 3은 바나나의 그림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으로, 과정 4(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와 교차하면서 도입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를 교차 이후 b′까지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⑤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A]에서 과정 3과 과정 4가 교차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되지만, 그 지점(울퉁불퉁한 스티로폼 부착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라고 하였다. 즉,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그림자의 일그러짐이라는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18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범위 오류 인과 과정의 경우 교차 과정에서 도입된 표지는 교차 이전과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된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인과적 과정의 경우 교차 과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교차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되지만, 교차 이전의 지점에는 전달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한 대상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가)의 3문단에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로,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으로 구분한 것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한 대상은 서로 다른 과정, 즉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인해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는 과정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가)의 2문단에서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1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징조: 어떤 일이 생길 기미.
- 시사: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줌.

정·정·이

② ㉠은 재이가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데 활용되는 등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재이의 인과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나)의 2문단에서 동중서의 재이론에서는 인간사를 원인으로, 재이를 결과로 보아 이들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진 이후에는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가 생겨났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은 재이와 인간사의 인과 관계를 역전시켜 재이를 원인으로 인간사를 결과로 보고,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짜깁기 ㉠은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며 신하가 군주의 명령에 응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다.

(나)의 1문단에서 동중서의 재이론에 따르면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동중서 이후에 나타난 예언화 경향(㉠)이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신하가 군주의 명령에 응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시사한다는 내용은 (나)에서 찾을 수 없다.

③ 짜깁기 ㉡은 개별적인 재이 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재이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나)의 3문단을 통해 주희가 제시한 전반적 대응설(㉡)에서는 재이 현상을 물리적 작용이 아니라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재이 현상을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짜깁기 ㉡은 누적된 실정과 일월식 등의 특정한 재이 현상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주희가 제시한 전반적 대응설(㉡)에서는 재이를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일어나는 변칙적인 자연 현상으로 보았으므로, ㉡은 군주의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재이 현상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군주의 권력을 강화는 것이 아니라 신하의 입장에서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이므로 ㉡이 군주의 권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없다.

⑤ 교체 ㉡은 재이에 대한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폐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나)의 3문단에서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지 않도록 주희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여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고 했다.

18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치세: ① 잘 다스려져 화평한 세상. ② 세상을 잘 다스림.

정·정·이

② 상반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국한하는 ㉯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재이론이 보여 준 입장과 부합하겠군.
㉯는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중서의 재이론은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고 본다. 이때 음양의 기는 물리적 성질로 볼 수 없으므로 재이론에서의 인과 관계는 대상, 즉 하늘과 인간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는 동중서의 재이론의 입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흄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 낼 수 있겠군.
(가)에서 인과 관계 그 자체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흄의 문제 제기로 인해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고, 이러한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먼의 과정 이론이라고 하였다. 또 ㉮는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라고 언급했다. 과정 이론은 두 과정이 교차할 때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인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인과적 과정이라고 본다. 표지는 관찰 가능한 현상이므로 흄의 문제 제기와 ㉮를 통해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에 대해 동중서와 주희는 모두 재이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하겠군.
(나)에서 동중서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하늘이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고 하였고, 주희 역시 재이론을 고수하며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였다고 했다. ㉰는 치세에는 재이가 없었으나 난세에는 재이가 출현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동중서와 주희 모두 재이론에 입각하여 ㉰를 수용 가능한 견해라고 볼 것이다.

④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는 새먼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기 어렵겠군.
새먼의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여기는 ㉰는 새먼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기 어렵다.

⑤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새먼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에 동의하겠군.
새먼의 과정 이론은 두 과정의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를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인과적 과정이라고 본다. ㉱는 홍수와 지방관의 실정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새먼의 입장에서 이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므로 새먼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에 동의할 것이다.

190 답 (1) 인과 (2) 원인, 결과 (3) 예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새먼의 과정 이론은 (인과)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가)의 1문단에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먼의 과정 이론이라고 하였다.

(2) 교체 동중서의 재이론에서 군주의 실정은 재이의 (원인)이고 재이는 실정의 (결과)이다.
(나)의 1문단에서 동중서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에 감응한 하늘이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군주의 실정이 재이의 원인이고, 재이는 실정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 교체 주희가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의 (예측)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나)의 3문단에서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했다고 하였다.

19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이색은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킨 견해를 수용하여 ~~정치와 교육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군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군.~~

〈보기〉에서 이색은 윤리 도덕이 바로 서고 정치와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 현상에 좋은 조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괴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킨 견해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와 교육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군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은 〈보기〉나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오·이

① 이색은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려는 재이론과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군.

〈보기〉에서 이색은 윤리 도덕이 바로 서고 정치와 교육이 잘 이뤄지는지 여부가 자연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재이론과 유사한 관점이다.

② 재이를 통해 군주를 경계한 동중서나 주희의 입장처럼 이색도 자연 현상을 보고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동중서의 재이론에서 재이는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라고 하였고, 주희는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통해 군주를 경계했다고 하였다. 이색도 정치가 엉망이 되면 변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연 현상을 보고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수 있다.

③ 이색이 말한 변괴는 주희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군.

주희는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윤리 도덕, 정치와 교육이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자연 현상이 달라진다는 이색의 견해는 개별적 대응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윤리 도덕, 정치, 교육과 같은 인간사에 따라 재이가 나타난다는 이색의 견해는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25 가 상도와 권도 나 척화론과 주화론

지문 분석 본문 94~97쪽

가 상도와 권도

주제 맹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상도와 권도

해제 이 글은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인 상도와,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인 권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도와 권도의 개념과 필요성, 권도와 상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권도의 활용 방안 등을 맹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보편성, (**특수성**)과 관련된 상도와 권도
2. 도덕규범으로서 (**상도**)와 권도의 필요성
3.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권도
4. 방법은 달라도 모두 (**도**)인 상도와 권도
5. 상도와 (**권도**)를 모두 중시하며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한 맹자

나 척화론과 주화론

주제 청의 강화 조건에 대한 척화론과 주화론의 입장 차이

해제 이 글은 병자호란 당시 청의 강화 조건에 대한 척화론자들과 주화론자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척화론자들이 대명 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을 근거로 청과의 화친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반면, 최명길을 비롯한 주화론자들은 대명 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근거를 들어 청과의 화친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 줄 요약

1. 청의 강화 조건에 대한 (**척화론자**)들의 입장
2. 청의 강화 조건에 대한 (**주화론자**)인 최명길의 입장

19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 대한 사상가의 견해를,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에 대한 정치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가)는 상도와 권도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나)는 청과의 화친 정책을 두고 대립했던 척화론자와 최명길 등 주화론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이 ~~실현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상도, 권도가 형성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나)도 청과의 화친 정책이 실현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의 ~~역사적 한계~~를,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의 ~~이론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가)는 상도, 권도의 역사적 한계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고, (나)도 청과의 화친 정책의 이론상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는 상도, 권도를 반박하는 주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나)에는 청과의 화친 정책을 두고 서로 반박하는 척화론자들과 주화론자들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⑤ 부재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사례를,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이 학문적 논의의 주제가 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상도, 권도가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나)에서도 청과의 화친 정책이 학문적 논의의 주제가 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193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가)는 대비되는 두 견해를 종합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

(가)에서는 권도가 상도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은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방법의 차이일 뿐 모두 도라고 한 맹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비되는 두 견해를 종합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나)는 유사한 상황을 인용하여 특정 관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

(나)에서 주화론자인 최명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후진의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호안국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19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에서는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진 상황을 예로 들어 권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② 교체 (나)는 설명 대상과 관련된 철학적 개념을 정의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에서는 상도, 권도, 도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설명 대상과 관련된 철학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가)에서 상도, 권도와 같은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시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나)에서 청과의 화친을 맺는 문제에 대한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서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지닌 문제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19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상반 맹자는 도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도를 굽히는 것이 권도라고 보았다.

(가)의 4문단에서 맹자는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라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② 유학에서는 도를 형이상학적 원리와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으로 보았다.

(가)의 2문단에서 도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③ 유학에서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인, 의, 예와 같은 것이 있다고 보았다.

(가)의 2문단의 '상도는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 의, 예와 같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맹자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가)의 5문단을 통해 맹자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상도를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진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맹자는 상도와 권도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속성이 있다고 보았다.

(가)의 4문단에서 맹자는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모두 도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196 답 (1) 상도 (2) 권도 (3) 권도, 상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은 (상도 권도)이다.

(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은 상도이다.

(2) 교체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은 (상도, 권도)이다.

(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은 권도이다.

(3) 교체 맹자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해법으로 (상도, 권도)를 제시하면서 (상도 권도)의 토대 위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가)의 3문단에서 맹자는 권도를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해법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5문단에서 맹자는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19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적대**: 적으로 대함. 또는 적과 같이 대함.
- **자처**: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 그렇게 처신함.

정·정·이

⑤ 이민족의 나라라고 해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적대함으로써

(나)의 2문단에서 후진은 이민족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힘을 빌리며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다가, 경연광이 요의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두자고 한 것으로 인해 요가 침입하여 멸망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안국은 정치적 대처 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속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력 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요나라가 이민족의 나라라고 해서 적대하여 결과적으로 후진을 망하게 한 경연광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오·오·이

① 짜깁기 이민족이 세운 ~~나라의 힘을 빌림~~으로써

호안국은 후진이 이민족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멸망한 것을 비판한 것이지 고조가 제위에 오를 때 요의 힘을 빌린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② 짜깁기 이민족에게 굽혀 ~~천하 인심을 잃게 됨~~으로써

이민족에게 굽힌 것에 대해 천하 인심이 불평한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호안국은 이를 설욕하고자 무리하게 대항한 것을 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으로 보았다.

③ 짜깁기 이민족의 나라에 ~~자존심 없이 신하를 자처함~~으로써

후진이 요나라의 신하로 자처한 것은 자존심을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안국이 비판한 내용은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두자고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다.

④ 부재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후진이 설욕을 위해 무리하게 대항한 것이 멸망의 이유이지,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 멸망의 이유라고 볼 근거는 없다. 호안국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19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칸트는 맹자와 달리,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맹자는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칸트는 맹자와 달리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오·오·이

① 상반 맹자는 칸트와 달리, 도덕규범을 통해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맹자는 권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맹자는 도덕규범을 통해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② 교체 칸트는 맹자와 달리, 상황에 따라 어떤 도덕규범을 지켜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의 3문단의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상황에 따라 어떤 도덕규범을 지켜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본 것은 맹자임을 알 수 있다.

④ 짜깁기 맹자와 칸트는 모두, 보편적인 도덕규범보다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강조하면서도 보편적인 도덕규범인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며 매우

중시하였다. 이에 비해 칸트는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다고 보는 등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보다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⑤ 범위 오류 맹자와 ~~칸트는 모두~~, 생활 속에서 도덕규범을 어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될 때도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상도에 맞지 않는 행위더라도 상황에 따라 도를 구현한 올바른 결정이 될 때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실천 기준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칸트는 생활 속에서 도덕규범을 어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될 때도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정·오 지름길

(가)의 맹자와 〈보기〉의 칸트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맹자와 〈보기〉의 칸트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두 철학자의 주장에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기〉의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제시하면서,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다고 했어요. (가)에서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보기〉의 칸트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두 철학자의 이러한 관점만 분명히 파악했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19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맹자는 권도를 상도의 기반으로 보며 매우 중시하였다. (○, ×)

(가)의 5문단에서 맹자는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며 매우 중시했다고 하였다.

(2) 교체 칸트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도덕규범을 인정했다. (○, ×)
맹자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 규범인 권도를 제시한 것은 칸트가 아니라 맹자이다.

(3) 맹자와 칸트는 인간이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 있다고 생각했다. (○, ×)

맹자는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상도를 제시하였고,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제시하였다.

20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불의**: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정·정·이

③ 상반 ㉡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하며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를 논한 것은 실행 동기를 ~~따지지 않고~~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논의로 볼 수 있어.

최명길(㉡)은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청과의 화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춘추』의 내용을 인용하며 조선의 신하는 명나라를 위해 조선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은 보편적인 규범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인 권도를 따른 것이며, 그에 대한 합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에서 권도는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합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실행의 동기를 따지고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논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것은 도덕규범에 있어 상황론보다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은 대명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청과의 화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때의 대명 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가)의 관점에서 이는 원칙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 대명 의리는 당대인들에게 일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어.

(나)의 1문단에서 '대명 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은 대명 의리를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여기고 청과의 화친이 불가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대명 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과 화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은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명 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가)에서 언급한 상도에 해당한다. ㉡은 대명 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하고 강조하면서도 청과의 화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알맞은 대응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이 나라의 보전을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권도를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은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해 온 대명 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하고 계속 강조해 왔음에도 여러 논거를 통해 청과의 화친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 주장은 그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권도를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자와 주화론자 모두 대명 의리를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었군.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자는 대명 의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 즉 상도로 여겼다. 주화론자도 청과의 화친을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대명 의리가 정론, 즉 상도임은 인정했다.

오·오·이

② 짜깁기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자는 ~~도덕적 신념을 버리고~~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였군.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자가 화친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현실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그들도 대명 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하였다. 즉, 그들은 상도를 근거로 상황에 대응하려는 권도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신념을 버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교체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자는 청과의 전쟁을 막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규범이라 생각하였겠군.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자가 현실 상황에 따라 청과의 전쟁을 막으려고 한 것은 맞으나, 이들도 대명 의리가 정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④ 교체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자~~ 주화론자는 청과 화친하자는 주장을 상황 판단에 따라 권도를 따르는 것으로 인식하였군.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자는 청과 화친하자는 주장이 결국 도덕 윤리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청과의 화친을 권도로 인식한 것은 주화론자라고 할 수 있다.

⑤ 짜깁기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자도 청과의 전쟁을 피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군.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자는 불의로 보존된 나라는 없느니만 못하다고까지 하면서, 나라의 존속보다 대명 의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시하였다. 전쟁을 피한다는 것은 청과 화친을 맺는다는 것이므로, 척화론자가 청과의 전쟁을 피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6 가 플라톤의 예술관 / 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지문 분석 본문 98~101쪽

가 플라톤의 예술관

주제 플라톤의 철학적 관점과 예술관

해제 이 글은 초월 세계인 이데아계와 감각 세계인 현상계를 구분하는 플라톤의 관점과 예술관을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음유 시인의 연기는 쉽게 모방이 가능한 인간의 저급한 면모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 줄 요약

❶ 플라톤이 주장한 (**이데아계**)와 현상계

❷ 플라톤의 관점에서의 (**예술**)

❸ 플라톤의 관점에서 (**음유 시인**)이 창작하는 시와 연기의 특성

❹ (**플라톤**)의 관점에서 예술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

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주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관점과 예술관

해제 이 글은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고 형상이 질료에 내재한다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예술관을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목적을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형상을 표현해 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관객은 예술을 통해 앎의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 줄 요약

❶ (**이데아계**)와 현상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❷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형상과 질료, (**가능태**)와 현실태

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예술**)의 목적과 위상

❹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예술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

20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가 예술을 평가하는 데 바탕이 된 철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 따르면 플라톤은 초월 세계인 이데아계와 감각 세계인 현상계를 구분하고,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예술이란 이데아계의 형상을 모방한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일 뿐이며, 예술은 이데아계의 형상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나)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형상이 질료에 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한 형상을 표현해 내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건의 기록을 다루는 역사

보다 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오·이

① 부재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예술을 바라보는 특정 사상가의 관점이 변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교체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사상가가 생각하는 예술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플라톤은 예술은 현상을 모방한 허구의 허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였다.

④ 부재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에 내재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플라톤의 예술관에 내재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이 보이는 한계를, (나)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이 주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플라톤의 예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203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가)에서는 침대 그림을 예로 들어 플라톤이 본 예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나)에서도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을 예로 제시하여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ㄴ. 핵심적인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가)에서는 이데아계와 현상계, (나)에서는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의 의미를 알기 쉽게 정의하고 있다.

오·오·이

ㄷ. 부재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개념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0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설명 대상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며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는 이데아계, 현상계 등에 대한 개념을, (나)에서는 가능태, 현실태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는 플라톤의 주장을, (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철학자의 관점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관점이 변화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달리 (나)는 설명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 도토리와 떡갈나무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가)에서도 침대 그림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부재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철학자의 주장이 대두된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플라톤의 주장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20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자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다.
감각 가능한 현상

(가)의 2문단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예술의 표현 대상은 형상이 아니라 감각 가능한 현상이다.

오·오·이

① 예술은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

(가)의 2문단의 '침대 그림은 보편자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며,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의 허구에 불과하다.'에서 침대 그림은 예술에 해당하므로, 예술은 허구의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가)의 1문단에서 형상이 존재하는 이데아계는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라고 하였다.

③ 현상계의 사물을 모방한 예술은 형상보다 열등한 것이다.

(가)의 2문단에서 예술은 형상(보편자)을 모방하여 생겨난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라고 하였고, 침대 그림 즉 예술은 보편자(형상)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형상을 모방한 현상을 다시 모방한 예술은 형상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가)의 1문단에서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20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플라톤은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 (×))
아리스토텔레스

(나)의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2)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다. ((○),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다.

(3) 플라톤은 음유 시인의 연기가 관객들을 타락시킨다고 보았다. ((○), ×)

(가)의 4문단을 보면, 플라톤은 음유 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이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20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가능태와 현실태는 형상과 질료의 ~~상호 작용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자 질료이고, 현실태란 가능태에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를 말한다.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가므로, 가능태와 현실태는 상호 작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아니다.

오·오·이

① 형상은 질료에 내재되어 분리될 수 없다.

(나)의 2문단에서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에 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질료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다.

(나)의 2문단에서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자 질료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③ 완전 현실태로 이행하는 과정의 원인은 질료 자체에 내재한다.

(가)의 2문단의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이행 과정이 운동이다. 즉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를 통해 완전 현실태로 이행하는 과정(운동)의 원인은 질료(가능태) 자체에 내재함을 알 수 있다.

④ 질료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목적으로 움직인다.

(나)의 2문단에서 가능태란 질료이며,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였다.

20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짜깁기 플라톤: 음유 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관객은 이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

(가)의 4문단에서 플라톤은,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에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유 시인은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보기〉의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갖춘 주인공이라고 하였으므로, 플라톤의 관점에서 볼 때 음유 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오·이

① 플라톤: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갖춘 현상 속 인물을 본떠 만든 허구의 허구이며, 그에 대한 음유 시인의 연기는 이를 다시 본뜬 허구이다.

(가)의 3문단에서 플라톤은 음유 시인이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고, 이를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보기〉의 오이디푸스는 비극시에 등장하는 인물로 플라톤에 관점에 따르면 허구의 허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음유 시인의 연기는 이를 다시 본떠 만들어 낸 허구이다.

③ 플라톤: 음유 시인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

는 내적 특성이 표현된 것이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음유 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 음유 시인이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들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이를 다시 오이디푸스라는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것이다.

(나)의 4문단에서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⑤ 아리스토텔레스: 오이디푸스가 숙명에 의해 파멸당하는 것을 본 관객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

(나)의 4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관객은 음유 시인의 연기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앎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정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서 얻게 되는 쾌감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9 답 (1) 형상 (2) 현상계 (3) 이데아계 (4) 질료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플라톤이 설명하는 이데아계는 (형상)이/가 존재하는 곳으로, 관념의 세계이다.

(가)의 1문단에서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라고 하였다.

(2) 교체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

(가)의 1문단에서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고 하였다.

(3) 교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이데아계)이/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나)의 1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4) 교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나)의 2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에 내재한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21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플라톤은 음유 시인이 사람들을 비이성적인 것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가)에 따르면 플라톤은, 음유 시인은 감각 가능한 현상들을 모방함으로써 저급한 인간의 면모는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덕성을 갖춘 인물에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유 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은 감정이나 욕구 같은 비이성적인 것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인과 오류 플라톤이 시인을 직분이 없는 존재로 인식한 것은 그들의 예술 행위는 ~~형상과 무관한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군.~~

(가)에 따르면 플라톤은 이데아계의 형상을 모방한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 예술이고, 음유 시인은 이를 다시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허구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음유 시인의 연기가 형상과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상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짜깁기 플라톤은 ~~보편자를 모방하는 회화와는 달리~~ 시는 현상만을 모방하기 때문에 이성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인식한 것이군.

(가)에 따르면 플라톤은 회화 역시 보편자(형상)를 모방한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회화가 보편자를 모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교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이 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질료~~를 표현하는 힘을 가졌다고 보아 플라톤과 달리 시인을 옹호했겠군. 형상

(나)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개별적인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형상은 질료에 내재한 것이므로, 시인이 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질료를 표현하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짜깁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역사적 사건을 모방~~하여 관객에게 쾌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았으므로,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겠군.

(나)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건들의 기록일 뿐인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객은 음유 시인의 연기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앎의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가 역사적 사건을 모방했다고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7 가 아퀴나스의 '사랑' 나 칸트의 '사랑'

지문 분석 본문 102~105쪽

가 아퀴나스의 '사랑'

주제 욕구와의 관계로 파악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랑'에 대한 관점

해제 이 글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서 파악하였는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두 가지 욕구인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이 있으며, 인간의 사랑은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본다.

한 줄 요약

❶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사랑**)이라고 본 아퀴나스

❷ 인간의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❸ 인간의 사랑은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는 아퀴나스의 관점

나 칸트의 '사랑'

주제 칸트의 관점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사랑'

해제 이 글은 칸트의 관점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누고,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고 본다.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실천적 차원의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다.

한 줄 요약

❶ (**사랑**)을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구분한 칸트

❷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의 도덕적 가치

❸ (**실천적**) 차원의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 칸트의 관점

21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와 (나)는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1문단의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에서 사랑과 선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2문단의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 조건 없이 선한 것이다.'에서 선의지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와 (나)는 모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아퀴나스의 관점을, (나)는 사랑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각각 두 가지 이론이나 그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아퀴나스의 관점을, (나)는 사랑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견해가 지닌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아퀴나스의 견해를, (나)는 사랑에 대한 칸트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을 뿐, 그들의 견해가 지닌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21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나)~~(가)는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자문자답의 방식은 (가)의 3문단의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에서 활용하고 있다.

오·오·이

① (가)와 (나) 모두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는 인간의 욕구를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나)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가)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가)는 인간의 욕구를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하고, 이 둘이 지닌 두 가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21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덕관념**: 도덕(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에 관한 관념.

정·정·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사랑에 대한 특정 사상가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는 선을 향한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

이 사랑이라는 아퀴나스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칸트가 주장한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가 제시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아퀴나스와 칸트의 견해를 일부 엿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사상가의 이론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사랑에 대한 아퀴나스와 칸트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사상가가 생각하는 도덕관념에 관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칸트의 선의지 등의 도덕관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나)와 달리 (가)는 선과 욕구에 대한 사상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가)에서는 선과 욕구에 대한 아퀴나스의 견해만 제시하고 있을 뿐, 사상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21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사랑(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보았다.

(가)의 1문단에서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으며,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퀴나스는 인간이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2문단에서 칸트는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였으므로, 칸트가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인간에게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인간의 욕구 중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하며,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은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

② (가)의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고 보았다.

(가)의 3문단에서 아퀴나스는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④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 설명하였고, (나)의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가)의 1문단에서 아퀴나스는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을 사랑이라고 하였으며, 3문단에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퀴나스가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 사랑을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1문단에서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하면서, 사랑을 이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보았다.

(가)의 3문단의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2문단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며'를 통해 알 수 있다.

21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아퀴나스는 인간의 욕구는 모두 선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 ×)

(가)의 2문단에서 아퀴나스는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였다.

(2) 교체 아퀴나스는 욕구를 일으키는 근본적 힘은 선(사랑)이라고 보았다. (○, ×)

(가)의 1문단에서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였다. 즉 아퀴나스는 욕구를 일으키는 근본적 힘을 선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범위 오류 칸트는 사랑을 두 차원으로 나누고, ~~이 두~~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모두~~ 인간에게 의무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 ⊗)

(나)에서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누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지만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21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은 ~~감각적 인식 능력~~과 지성에 의해 작용한다.

(가)의 2문단에서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은 여러 대상에 대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가)의 3문단에서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고 하였다.

② ㉠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지칭한다.

(가)의 3문단에서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한다고 하였다.

④ ㉠과 ㉡을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은 사랑이다.

(가)의 1문단에서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문단에서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된다고 하였으므로, ㉠과 ㉡을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은 사랑이라 할 수 있다.

⑤ ㉠과 ㉡은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였다.

21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다가간 것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겠군.~~

(나)의 1문단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처럼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며,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라고 하였다. 또 2문단에서 칸트에게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 갑은 이성인 을에게 첫눈에 반해 다가갔으므로, 이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행동이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다. 따라서 갑의 행동을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이겠군.

(가)의 2문단에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갑은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져 식탁으로 갔다고 했으므로, 이는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되어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은 것은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가)의 2문단에서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는 반면,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하며,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져 식탁으로 간 것은 감각적 욕구가 카레를 먹는 것을 선으로 추구했기 때문이지만, 봉사 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은 것은 지성에 의해 카레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③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겠군.

(가)의 3문단에서 아퀴나스는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이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것이겠군.

(나)의 1문단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처럼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이므로 자연적 경향성에 이

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18 답 (1) 없다 (2) 이성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아퀴나스에 따르면,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없다).

(가)의 2문단에서 아퀴나스는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교체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성 감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나)의 2문단에서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1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 그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 우리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의 '따르다'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따르다'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②의 ⓐ, ⓑ에서 쓰인 '따르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오·오·이

① 교체 ⓐ: 경찰이 범인의 뒤를 따랐다.
ⓑ: 춤으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

①에서 ⓐ의 '따르다'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의 의미로, ⓑ의 '따르다'는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교체 ⓐ: 개발에 따른 공해 문제가 심각하다.
ⓑ: 우리 집 개는 아버지를 유난히 따른다.

③에서 ⓐ의 '따르다'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의 의미로, ⓑ의 '따르다'는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범위 오류 ⓐ: 아무도 그의 솜씨를 따를 수 없었다.
ⓑ: 그는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었다.

④에서 ⓐ의 '따르다'는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의 의미로, ⓑ의 '따르다'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범위 오류 ⓐ: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했다.
ⓑ: 나는 강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⑤에서 ⓐ의 '따르다'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로, ⓑ의 '따르다'는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2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

ⓐ의 '따르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오·오·이

① 교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법식 따위를 갖추다.~~

'차리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③ 교체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서다.~~

'능가하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22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좇으려는

ⓑ의 '따르다'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규칙이나 관습 따위를 지켜서 그대로 하다.'라는 의미의 '좇다'와 바꿔 쓸 수 있다.

오·오·이

② 교체 ~~맞추려는~~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쓸 수 없다.

③ 교체 ~~보존하려는~~

'보존하다'는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쓸 수 없다.

④ 교체 ~~능가하려는~~

'능가하다'는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서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쓸 수 없다.

⑤ 교체 ~~앞지르려는~~

'앞지르다'는 '발전, 능력 따위가 남보다 높은 수준에 있거나 남을 능가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쓸 수 없다.

28 가 소쉬르의 언어관
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

지문 분석 본문 106~109쪽

가 소쉬르의 언어관

주제 언어 체계에 맞추어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는 소쉬르의 언어관

해제 이 글은 소쉬르의 언어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표와 기의, 랑그와 파롤 등의 개념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언어가 기호 체계로 자의적인 성격을 지니며,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는 소쉬르의 언어관을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는 (**소쉬르**)의 언어학

❷ 기호 체계로서 언어가 지닌 (**자의적**)인 성격

❸ (**랑그**)와 (**파롤**)의 개념 및 그에 따른 현실 세계 인식 방식

❹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소쉬르의 언어학

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

주제 언어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

해제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의미 사용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으며,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의미 사용 이론**)의 개념 및 예

❷ 언어를 (**게임**)에 비유하여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함.

❸ 언어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언어의 (**모호성(불명확성)**)

❹ 언어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

22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관련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소쉬르의 언어 이론, (나)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을 관련된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언어에 대한 ~~장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에서는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소쉬르의 견해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두 견해의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을 다루고 있을 뿐, 그의 이론과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언어에 대한 관점들이 ~~통합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가), (나)는 각각 언어에 대한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을 뿐, 관점들이 통합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부재 언어에 대한 이론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있다.

(가), (나) 모두 언어에 대한 이론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이론 간 공통적 특성을 도출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며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는 언어에 대한 소쉬르의 이론을, (나)에서는 언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을 뿐,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각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223 답 ㄱ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는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소쉬르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가)의 1문단의 '소쉬르 이전의 사람들은 ~ 인식한다고 주장한다.'에서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소쉬르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오·오·이

ㄴ. 부재 (나)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을 소개하고 있을 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ㄷ. 부재 (나)는 (가)와 ~~장반된 이론을 제시하며 (가)의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가)와 (나)는 언어에 대한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와 (나) 모두 언어가 현실 세계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나)가 (가)와 상반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에서 (가)의 이론을 반박하고 있지도 않다.

22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용성**: 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

정·정·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언어가 현실을 재현한다는 전통적 언어관과 다른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가)의 1문단을 통해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이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임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소쉬르의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전통적인 언어관과 다른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가)와 (나)는 모두 ~~기존의 언어관을 종합한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가)와 (나)는 각각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기존의 언어관을 종합한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③ 부재 (가)는 (나)와 달리 ~~특정 학자의 이론의 유용성~~을 일상적 사례의 제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일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쉬르나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유용성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④ 부재 (가)는 (나)와 달리 특정 학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며 그 이론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는 각각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견해나 이론적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부재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언어관이 ~~변화한 계기와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소쉬르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2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가)의 3문단에서 파롤은 랑그에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라고 하였으며, 소쉬르는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짜깁기 랑그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이다.

(가)의 4문단에서 소쉬르의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랑그를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② 교체 ~~파롤~~(랑그)은 언어의 추상적 체계를 지칭한다.

③ 교체 ~~랑그~~(파롤)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이다.

(가)의 3문단에서 랑그는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이고, 파롤은 랑그에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라고 하였다(②, ③).

⑤ 짜깁기 랑그는 ~~파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주체임을 드러낸다.

(가)의 4문단에서 소쉬르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닌 랑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226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랑그는 언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따라 다르다). (○, ⊗)

(가)의 3문단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면서 소쉬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강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랑그는 언어의 종류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2) 랑그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 ×)

(가)의 3문단에서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3)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 ×)

(가)의 2문단에서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라고 하였다.

(4) 교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는 사람들의 사용 맥락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모습~~(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

(나)의 1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22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모호성 때문에 내용 전달의 명확성이 약화되므로 ~~모호한 표현은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나)의 3문단에서 모호한 표현이 꼭 필요한 경우,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불명확성(모호성)이 장점이 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소쉬르는 사람들이 언어 체계를 통해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가)의 1문단에서 소쉬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② 같은 대상을 언어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 언어의 자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산'을 예로 들어 언어에 따라 외적 형식인 기표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고, 이를 통해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소통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나)의 3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 설명한다고 하였다. 또 4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소쉬르는 언어에 따라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표현 방식이 랑그에 의해 지배되거나 제약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가)의 3문단에서 소쉬르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22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	㉯	㉰
③	비슷하게	구성한다는	삶의 양식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소쉬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하며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여겼으므로, 그의 입장에서는 게시판의 영어권 외국인들은 그들의 언어에 맞게 현실 세계를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비슷하게', ㉯에는 '구성한다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어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도 다양하다고 보므로, 그는 영어에 주꾸미와 낙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것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삶의 양식에 맞게 언어가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에는 '삶의 양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오·이

	㉮	㉯	㉰
① 교체	~~다르게~~	구성한다는	삶의 양식
② 교체	~~다르게~~	~~묘사한다는~~	~~높은 수준의 명확성~~
④ 교체	비슷하게	구성한다는	~~높은 수준의 명확성~~
⑤ 교체	비슷하게	~~묘사한다는~~	삶의 양식

소쉬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고 했으므로, ㉮에 '다르게', ㉯에 '묘사한다는'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에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9 답 (1) 자의적 (2) 불명확성 (3) 재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소쉬르는 언어가 (자의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가)의 2문단에서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 체계로,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라고 하였다.

(2) 교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불명확성)이/가 융통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다.

(나)의 3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으며,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3) 교체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은 모두 언어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가)의 4문단에서 소쉬르의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했으며, (나)의 4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23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 아이가 '자동차'라는 단어를 배울 때는 ~~절대 불변의 법칙~~ 속에서 '자동차'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나)의 2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한 것을 소개하며, 땅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르면 절대 불변의 법칙 속에서 단어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 아이에게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라고 가르치지만, 실제 대상과 '사과'라는 말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소쉬르는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 기호 체계이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과'라는 기표에 '사과나무의 열매'라는 기의가 대응할 때, 둘의 관계는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② ㉠: 부모에게 '책'이란 단어를 배운 아이가 친구에게 '책'이란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린 대상의 의미는 기의라 할 수 있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써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이며, 기의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른다. 따라서 '책'이라는 말은 기표,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의미는 기의라 할 수 있다.

③ ㉠: 아이가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한국어로 '사랑', 중국어로 '爱[ài]', 영어로 'love[lʌv]'라고 배운 것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가)의 2문단에서 소쉬르에 따르면,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한국어에서 '산[san]', 중국어에서 '山[shān]', 영어에서 'mountain[máuntən]' 등의 다른 기표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언어는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⑤ ㉡: 아이가 '배려'라는 말을 배우는 것은 사전에 실려 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 활동의 맥락 속에서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의 1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29 가 서구 철학의 인식론 / 나 동양 철학의 인식론

지문 분석

본문 110~113쪽

가 서구 철학의 인식론

주제 서구 철학의 전통적 인식론과 게티어 및 그 이후의 인식론

해제 이 글은 서구 철학의 전통적 인식론과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게티어의 인식론, 그리고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파악한 서구의 전통적 인식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게티어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며,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이 정당화의 기준을 만들고자 한 점을 제시하면서, 이를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서구의 전통적 인식론에서 본 (**지식**)의 세 가지 요소
❷ 전통적 인식론에 대한 (**게티어**)의 반론
❸ 게티어 이후 (**정당화**) 기준에 관한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입장

나 동양 철학의 인식론

주제 동양(유가) 철학의 전통적 인식론과 퇴계의 인식론

해제 이 글은 동양(유가) 철학의 전통적 인식론인 주자의 격물론과, 이를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발전시킨 퇴계의 인식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격물을 통해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자의 격물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가 당초 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를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지만 만년에는 물격을 '물이 격한' 것이라고 수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이 탐구한 것에 따라 이른다는 것인데, 이처럼 리의 작용에 대해 밝힌 퇴계의 인식론은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동양(유가) 철학의 전통적 인식론인 (**격물론**)
❷ 주자의 입장을 계승했던 (**퇴계**)의 인식론의 변화
❸ 리의 (**작용**)에 대해 밝힌 퇴계의 인식론의 의의

23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짜깁기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보는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 경우라도 지식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정당성, 참, 믿음이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지,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은 아니다.

오·오·이

②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가)의 2문단에 제시된 축구 시합 상황의 예는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게티어는 이를 통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으므로,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③ 내재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의 정당화에는 그 믿음을 정당화해 주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

④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이 있었다.

(가)의 2문단에서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한 게티어의 반론, 즉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고 하였다.

⑤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의 1문단의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앎, 즉 지식을 ~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232 답 (1) 내재주의 (2) 외재주의 (3) 게티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내재주의, 외재주의)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한다고 본다.

(가)의 3문단에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2) 교체 (내재주의, 외재주의)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근거가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가)의 3문단에서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3) 교체 (전통적 인식론자,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요소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가)의 2문단에서 서구의 전통적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정당성, 참, 믿음)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이 게티어라고 하였다.

23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퇴계는 만년에 주자의 격물론에 ~~반론을 제기하며~~ 인식 과정에서 리의 작용을 강조한 리자도를 주장하였다.

(나)의 2문단에서 퇴계는 기본적으로 주자의 격물론을 계승했다고 하였다. 다만 만년에 관점이 바뀌어 리자도를 주장하였으며, 이는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퇴계가 주자의 격물론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물격에 대한 퇴계의 해석은 '물에 격한' 것에서 '물이 격한' 것으로 바뀌었다.

(나)의 2문단에서 당초 퇴계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지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② 주자는 격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나)의 1문단에서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앎이 있지 않음이 없어서 격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③ 퇴계는 만년에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고 보았다.

(나)의 2문단에서 퇴계는 만년에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④ 퇴계는 만년에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서로를 향해 작용한다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나)의 3문단에서 퇴계는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즉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에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한 것이다.

23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은 지식이 아니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은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이다. 그런데 2문단에 따르면 ㉠은 상황을 토대로 한 추론을 통해 갖게 된 믿음으로,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근거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 입장에서 ㉠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다.

오·오·이

① 인과 오류 ㉠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은 지식이 아니다.

㉡은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객관적 증거로부터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짜깁기 ㉠에서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의 입장에서 믿음의 정당화는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내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이다. 하지만 ㉠에서 '내 믿음'은 내가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 카페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추론하여 얻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교체 ㉠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참인 믿음이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⑤ 교체 ㉠에서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 한국이 골을 넣었으므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의 믿음이 실제로 참인 사실이며, 오해가 있긴 하지만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고, ㉠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통적 인식론의 입장이다. 따라서 게티어가 제기한, 전통적 인식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④, ⑤).

23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짜깁기 정당성, 참, 믿음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명제의 지식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전통적 인식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지식의 세 가지 요소인 정당성, 참, 믿음이 결합되는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에 따라 명제의 지식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말한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완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은 전통적 인식론에 대해 게티어가 제시한 반론에 의거하여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 중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내재주의자들은 명제가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 주체의 믿음들이 관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가)의 3문단에서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외재주의자들은 명제가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가)의 3문단에서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어떤 외재주의자는 명제가 참임을 나타내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그것과 인식 주체의 믿음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면 그 명제는 지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의 3문단에서 외재주의자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과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고 하며,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도 한다고 하였다.

23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퇴계는 만년에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군.

(나)의 2문단에서는 퇴계가 만년에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는 곧 리에도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기〉에서 퇴계는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것을 들어 리가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나)의 2문단에서 언급한 물격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된다.

오·오·이

① 짜깁기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앎이 갖추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년에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군.~~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퇴계는 만년에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고 보았다.

③ 짜깁기 주자는 리에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되었겠군.

(나)와 〈보기〉를 통해 주자가 리에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기〉에서 퇴계는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퇴계는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짜깁기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겠군.~~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은 퇴계의 초기 관점으로, 그는 이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만년에 퇴계는 생각을 바꾸어 물격을 '물이 격한' 것,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퇴계의 만년의 생각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짜깁기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의 능동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군.

(나)의 2문단에 제시된 '만약 리가 리의 자발성만으로 ~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를 통해 퇴계가 만년에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3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퇴계는 만년에 리의 능동성을 한정적으로 인정하였다. (○, ×)

(나)의 2~3문단에서 퇴계는 만년에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하였고,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 퇴계는 만년에 리가 사람의 마음과 상호 작용한다고 보았다. (○,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퇴계는 만년에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퇴계는 리가 사람의 마음과 상호 작용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상반 퇴계는 초기에는 물격과 관련하여 주자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았다. (○, ×)

(나)의 2문단에서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는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고 하였고, 물격에 대한 당초의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퇴계가 초기에는 물격과 관련하여 주자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3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궁구: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함.
- 신묘: 신통하고 묘함.

정·정·이

① 상반 퇴계는 물리의 지극한 곳을 궁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주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지만, 격물을 추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자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퇴계는 궁구하여 물리의 지극한 곳에 이른다는 격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자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인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만년에는 물격을 '물이 격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킨 것일 뿐, 주자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② 퇴계의 입장에서 '리'의 신묘한 용이 드러나게 행해지는 것은 '물이 격

한' 것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리'의 신묘한 용이 드러난다는 것은 '리'의 작용,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사람의 마음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퇴계는 '리'의 본연의 체가 발현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 작용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퇴계는 '리'의 본연의 체가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리'의 신묘한 용이라고 하였다. 즉 '리'의 작용을 통해 '리'의 본체가 드러나는 것인데, '리'의 작용은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④ 퇴계가 '리'를 사물로 인식하듯이 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다고 보았음을 의미한다.

'리'를 사물로 인식하듯이 했다는 것은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던 퇴계의 초기 관점으로,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다고 보았음을 의미한다.

⑤ 전통적인 격물론에 따르면 궁구하여 물리의 지극한 곳에 이르는 것은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어 치지에 이르는 과정이다.

유가 철학의 전통적 격물론에 따르면 궁구하여 물리의 지극한 곳에 이르는 것은 격물을 말하는 것이다. 격물은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의 이치인 리를 탐구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어 치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V 심리, 윤리

30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

지문 분석 본문 114~115쪽

주제 라캉이 주장한 거울 단계 이론의 특성

해제 이 글은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거울 단계는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외적 세계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라캉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단지 신체가 가시적 공간에 반영된 것으로, 나의 내면을 보여 주지 못하는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거울 단계가 허구적 구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자기 소외적이라고 하였다. 즉 라캉은 거울 단계 이론을 통해 통해 선험적이고 절대적인 자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한 줄 요약

❶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이어받아 새롭게 재창조한 라캉

❷ (거울 단계)의 개념과 거울 단계의 시작

❸ 거울 단계에서 (타자)나 외부 세계를 통해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

❹ (자아)가 타자라는 말의 의미

23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욕망은 자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4문단에서 욕망은 타자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소외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하였을 뿐, 이 글에서 욕망을 자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오·오·이

① 거울 이미지는 심리 발달의 원형이 된다.

2문단에서 거울 이미지는 이후 모든 심리 발달 단계에서 원형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② 자신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과 결부돼 있다.

4문단에서 욕망은 타자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에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상화되기 쉽다.

3문단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주체에 대해 언제나 타자로만 머물며 이상화되기 쉽다고 하였다.

⑤ 거울 단계에서 자아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구축된다.

거울 단계란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외적 세계를 구성하는 단계

라는 2문단의 내용과, 자아는 어느 순간 나의 이미지를 다른 대상 이미지로부터 분리하고 그것에 고착됨으로써 형성된다는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40 답 (1) 자아 (2) 타자 (3) 소외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라캉은 '거울 단계 이론'을 통해 (자아)의 자율성이 가진 허구성을 밝히고자 했다.

2문단에서 라캉은 '거울 단계 이론'을 통해 자아의 자율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밝히고자 했다고 하였다.

(2) 교체 인간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4문단의 '인간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교체 인간의 욕망은 구조적으로 타자의 욕망과 그 대상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소외)의 표현이기도 하다.

4문단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과 그것이 겨냥하는 대상을 향하게 되고,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소외의 표현이라고 했다.

24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어린아이의 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 형성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2문단에 따르면 거울 단계란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외적 세계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거울 단계 이론은 이러한 거울 단계를 통해 자아의 자율성의 허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오·오·이

① 부재 자아의 자율성이 지닌 허구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담은 이론이다.

2문단에 따르면 거울 단계 이론은 자아의 자율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밝히려는 이론이다. 허구성에 대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짜깁기 ~~인식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3문단에서 거울 단계의 경험이 보여 주는 것은 인식의 기준이 되는 자명한 자의식이나 선험적이고 절대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짜깁기 어린아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외부 대상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2문단에서 생후 6~18개월 정도의 아이는 처음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외부 대상과 구별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보게 된다고 하였다.

⑤ 짜깁기 정신 분석학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자아를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해 철학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이론이다.

1문단에서 라캉은 인간 존재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성찰을 정신 분석학에 가미하여 기존의 정신 분석학을 새롭게 재창조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거울 단계는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는 단계라고 했으므로,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이 주체적인 자아를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4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과대평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평가.

정·정·이

④ 자아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자아가 타자를 매개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3문단에서 거울 단계의 경험은 인식의 기준이 되는 자명한 자의식이나 선험적이고 절대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며, 거울 단계는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는 단계라고 하였다. 즉 라캉은 자아는 타자를 매개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기〉와 같이 자아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견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오·오·이

① 상반 자아가 외부 대상과 상관없다는 것은 자아의 선험성을 ~~부정~~(인정)하는 것이다.

3문단에서 거울 단계의 경험은 인식의 기준이 되는 자명한 자의식이나 선험적이고 절대적인 자아가 없음을 보여 준다고 하면서, 거울 단계는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는 단계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라캉은 자아가 타자, 즉 외부 대상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자아의 선험성을 부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가 외부 대상과 상관없이 형성된

다고 보는 〈보기〉의 견해는 자아의 선험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짜깁기 자아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집착이 강화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2문단에서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에 매료되어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떠날 줄을 모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거울 단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이미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시화된 신체를 보여 주면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 이미지에 대한 어린아이의 집착은 자기 신체 이미지의 발견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러나 라캉이 자아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자율적인 것으로 보는 〈보기〉의 견해를 어린아이의 집착이 강화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짜깁기 자아가 자율적이라는 것은 자아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자아는 자생적인 것이어서 외부 대상과 상관없이 형성된다고 하면서 자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라캉은 이와 달리 자아는 타자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라캉이 자아가 자율적인 것이라는 〈보기〉의 견해에 대해 자아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짜깁기 자아가 스스로 지각한다는 것은 ~~대상 이미지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분리하는 과정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3문단에서 라캉에 따르면 자아는 어느 순간 나의 이미지를 다른 대상 이미지로부터 분리하고 그것에 고착됨으로써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대상 이미지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분리하는 과정'은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보기〉에 언급된, 자아는 스스로 지각하고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는 자율적인 것이라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43 답 (1) × (2) ○ (3) × (4) ○ (5)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인식의 기준이 되는 선명한 자의식이나 선험적이고 절대적인 자아가 ~~있다~~. (○, ⊗)

3문단에서 거울 단계의 경험이 보여 주는 것은 인식의 기준이 되는 자명한 자의식이나 선험적이고 절대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대상 이미지로부터 분리하고 그것에 고착됨으로써 자아가 형성된다. (⊙, ×)

3문단에서 라캉에 따르면, 자아는 어느 순간 나의 이미지를 다른 대상 이미지로부터 분리하고 그것에 고착됨으로써 형성된다고 하였다.

(3) 교체 거울 단계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는 ~~주체의 내면~~(신체)이 가시적 공간에 반영된 것이다. (○, ⊗)

3문단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단지 신체가 가시적 공간에 반영된 것으로, 나의 내면을 보여 주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4) 거울 단계는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소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3문단에서 거울 단계는 허구적 구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소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교체 인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비롯한 ~~자아~~(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 ⊗)

4문단에 따르면 라캉은 인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비롯한 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31 편의법

지문 분석 본문 116~117쪽

주제 편의법의 종류와 장단점 및 유의점

해제 이 글은 우리가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 정보의 불확실성과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 편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편의법 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성 편의법과 가용성 편의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편의법의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편의법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편의법**)의 필요성과 개념
❷ (**대표성 편의법**)의 개념과 문제점
❸ (**가용성 편의법**)의 개념과 문제점
❹ 편의법의 (**장점**)과 단점 및 유의점

24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편리성 때문에 사용된다.
5문단에서 편의법은 판단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해답에 빨리 도달하게 하고 그 나름대로 편리한 기준을 제공하지만,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편의법은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편리성 때문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상반 확실하고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만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2문단에서 편의법은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나름대로 편리한 기준에 따라 그중 일부만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편의법을 활용하면 완전한 정보가 없이도 의사 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③ 상반 판단이나 의사 결정 시 해답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짧다.
2문단에서 편의법은 정보의 제한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한 해답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에서 편의법은 판단과 의사 결정에 있어 해답에 빨리 도달하게 한다고 하였다.

④ 교체 ~~가용성~~ 대표성 편의법의 경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3문단에서 대표성 편의법을 사용하면 대표성만을 따지고 다른 정보를 고려하지 않게 되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였다.

⑤ 짜깁기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가용성 편의법이 ~~더 정확하다~~.
3문단에서 대표성 편의법은 주로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나, 이 방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4문단에 제시된 교통사고의 예를 통해 가용성 편의법을 사용하면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용성 편의법이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24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편의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일부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 ×)
2문단에서 편의법은 판단이나 의사 결정 시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2) 교체 ~~대표성~~ 가용성 편의법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기억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 ×)
4문단에 따르면 기억에 의존하는 방법은 가용성 편의법이다.

(3) 가용성 편의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들 수 있다. (○, ×)
4문단에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은 가용성 중심 처리의 문제라고 하였다.

24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인과 오류 ㉡은 기억에 의존하여 대상을 판단하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답을 이끌어 낸다~~.
4문단에 따르면 가용성 편의법(㉡)은 기억에 의존하여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정 관념이나 편견 등과 같이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해답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오·오·이

① ㉠은 대표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특정한 대상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3문단에 대표성 편의법(㉠)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판단할 때 한두 가지 대표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② ㉠을 사용하면 대상의 특정한 정보만을 따지게 되어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3문단에 대표성 편의법(㉠)은 대표성만을 따지고 다른 정보를 고려하지 않게 되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③ ㉡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4문단에 가용성 편의법(㉡)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⑤ ㉡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보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2문단을 통해 편의법은 정보의 제한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해답을 내리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24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A와 B는 모두 가설이 마음에 떠오르는 용이성의 정도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가설이 마음에 떠오르는 용이성의 정도'는 4문단에 언급된 가용성을 의미하고, 가용성 편의법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보기〉에서 A와 B는 자신의 사투리 사용 여부에 따라 자신의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A와 B는 가용성 편의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오·이

② 교체 A와 B는 모두 ~~전형적인 경우와 유사한 정도~~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

3문단에 따르면 전형적인 경우와 유사한 정도에 의해 판단하는 방법은 대표성 편의법이다. A, B는 모두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교체 A와 B는 모두 ~~주어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

A와 B는 모두 통계 자료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④ 짜깁기 A와 ~~달리~~ B는 ~~한 가지 대표되는 특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A와 B는 사건 또는 대상의 한 가지 대표되는 특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을 판단할 때 한두 가지 대표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은 대표성 편의법이다.

⑤ 범위 오류 B와 ~~달리~~ A는 기억에서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A와 B 모두 사투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에서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다.

24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짜깁기 편의법과 확증 편향은 모두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제한된 정보를 선별한 뒤~~ 결정을 내리는 인지적 작용이다.

편의법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편리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확증 편향은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기존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나 근거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제한된 정보를 선별한 뒤 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② 편의법과 확증 편향은 모두 잘못된 정보 선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문단에서 편의법은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지만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증 편향은 객관성이 결여된 의사 결정으로 귀결되어 여러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③ 대표성 편의법과 확증 편향은 모두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선택한다.

대표성 편의법은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대표적인 특성을 선택하여 기준으로 삼고, 확증 편향 또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신념에 맞는 정보들을 선택하여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④ 가용성 편의법과 확증 편향은 모두 의사 결정을 위해 가장 편리한 방향의 정보 선택을 하게 된다.

가용성 편의법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용이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정보를 선택하게 되고,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하므로, 둘 다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편리한 방향의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용성 편의법과 확증 편향은 모두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다.

가용성 편의법은 자신의 기억 및 경험에 의존하여 선택을 하는 방법이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신념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되므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험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32 정약용의 윤리학

지문 분석 본문 118~119쪽

주제 주체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한 정약용의 실천적 책임 윤리학

해제 이 글은 주체의 자유의지를 도입한 정약용의 윤리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약용은 선천적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주희의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이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고 본 주희와 달리, 도덕 감정이 실천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약용의 사상은 유학을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으로 바꾸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 줄 요약

❶ 주체의 (**자유의지**)를 도입한 정약용의 유학 사상
❷ 정약용과 (**주희**)의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❸ 정약용이 주장하는 마음의 세 가지 차원인 (**본성**), (**권형**), (**행사**)
❹ 정약용이 강조한 주체가 따라야 할 마음인 (**도심**)
❺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24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나): 정약용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

(나)에서는 도덕 감정에 대한 정약용과 주희의 견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나)에 정약용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 내용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은 '주체의 자유 의지'라고 하였다.

③ (다): 정약용이 주장하는 마음의 세 가지 차원

정약용이 제시한 마음의 세 가지 차원인 본성, 권형,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라): 주체가 따라야 할 마음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도심과 인심 중에서 주체는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심이 아니라,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도심을 따라야 한다는 정약용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정약용이 주희가 강조한 내면적 수양을 넘어선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으로의 변화를 도모했다고 평가함으로써,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25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정약용은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부정하였다~~. (○, ⊗)

(가)에서 정약용이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도덕 감정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 ×)

(다)에 따르면 정약용은 인간은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며 욕망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본성이 아무리 선을 좋아하더라도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하였다.

(3) 교체 정약용은 측은지심을 인간 ~~본성의 원인이자 결과~~ 윤리적 행위의 처음 원인라고 생각하였다. (○, ⊗)

(나)에 따르면 정약용은 측은지심을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처음 원인으로 생각한다.

25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정약용: ㉠은 선과 악 사이에서 ~~항상 선을 택하게 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였다. 즉 ㉠이 있어도 육체적 제약이나 욕망으로 인해 악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항상 선을 택하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주희: ㉠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나)의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정약용은 주희의 논의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에서, 주희가 도덕 감정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주희: ㉠은 인간의 본성이 실현된 결과이다.

(나)에서 주희가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을 인간 본성이 실현된 결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정약용: ㉠은 윤리적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나)에서 정약용이 도덕 감정을 윤리적 행위의 처음 원인으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정약용: ㉠은 주체의 자율적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가)에서 정약용이 주체의 자율적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만 도덕 감정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대피**: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피함.

정·정·이

① 짜깁기 '갑'과 '을'이 대피하던 중에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 것은 ~~도덕 감정에 따른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행사'는 주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갑'과 '을'은 대피하던 중 우연히 부상당한 '병'을 발견했으므로, 이를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② '갑'과 '을'이 부상당한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본성적으로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갑'과 '을'이 부상당한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측은지심이 발생한 것인데, (가)에 따르면 정약용은 측은지심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도덕 감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만이 가진 도덕 감정인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윤리적 경향인 본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사이렌을 듣고 난 후, 갈등 속에서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권형'의 차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 '권형'은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갈등 상태에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갑'과 '을'이 사이렌을 듣고 갈등 속에서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권형' 차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을'이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게 되는 육체의 제약을 극복하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은 것은 '도심'에 따른 선한 행위이다.

⑤ '갑'이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피한 것은 '인심'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라)에서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마음을 '도심',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마음을 '인심'이라고 하였다. '을'은 도덕 감정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도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고(④), '갑'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행동하고 있으므로 '인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⑤).

25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갑'과 '을'의 행동의 차이는 '도덕 감정의 실천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약용은 선천적인 도덕 감정이 실천에까지 이어져야 함을, 즉 주체의 실천과 관련된 자유의지를 강조하였다. 이로 볼 때 〈보기〉에서 '갑'과 '을'은 모두 '병'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도덕 감정을 가졌지만, '을'만이 '병'을 구하기 위해 이를 직접 실천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도덕 감정의 실천 여부'가 다르고 이에 따라 행동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인과 오류 '갑'과 '을'의 행동의 차이는 ~~'측은지심의 유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기〉에서 '갑'과 '을' 모두 '병'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으므로, 둘 다 측은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측은지심의 유무'가 다르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두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인과 오류 '갑'과 '을'의 행동의 차이는 ~~'갈등의 발생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기〉에서 건물 붕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갑'과 '을' 모두 갈등에 빠진다. '갈등의 발생 여부'가 다르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두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인과 오류 '갑'과 '을'의 행동의 차이는 ~~'내면의 수양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면의 수양 여부'를 강조한 것은 정약용이 아니라, 주희이다. 따라서 '내면의 수양 여부'로 두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인과 오류 '갑'과 '을'의 행동의 차이는 ~~'육체적 제약의 유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갑'과 '을' 모두 생명이 위급한 상황으로, '육체적 제약'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육체적 제약의 유무'가 다르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두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33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지문 분석 본문 120~121쪽

주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원인 및 문제점

해제 이 글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개념과 그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이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은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판단 및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수 있어 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개념
❷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
❸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지적**) 설명
❹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문제점과 (**연구**) 과제

25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정의와 구분의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개념을 정의한 후, 2~4문단에서 그 현상의 발생 원인을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유추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대상에 기초하여 다른 대상을 미루어 추측하는 유추의 방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과 관련된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③ 부재 특정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해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두 관점이 상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두 관점을 절충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과 관련된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5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윗글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
1문단의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란 ~ 현상을 의미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윗글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
2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을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눈 다음 동기적 설명을 제시하고, 3~4문단에서 인지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3) 부재 윗글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
5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판단 및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소시킬 방법은 연구 중이라고 했을 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5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특정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고 현상이 유발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2~4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을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5문단에서 이 현상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특정 현상과 관련된 통념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5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통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의 ~~타당성을 비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을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의 타당성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특정 현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상반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특정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역사적 배경~~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역사적 배경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5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글에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외의 다른 편향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사후 과잉 확신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는가?

1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③ 잠입적 결정론에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3문단에서 '잠입적 결정론', 즉 인지적 설명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하여 선행 사건과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인과 관계 모형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에서 언급되는 '통제감'이란 무엇인가?

2문단에서 '통제감'은 '자신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지지를 받아 왔는가?

3문단에서 동기적 설명에 비해 인지적 설명이 더 강한 지지를 받아 왔다고 하였다.

258 답 (1) 동기적 (2) 인지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동기적, 인지적) 설명에서는 통제감을 확인하려는 동기 때문에 편향이 발생한다고 본다.

2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은 통제감에 대한 추구와 관련되는데, 통제감을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교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동기적, 인지적) 설명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하여, 주어진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는 강화시키고 일어나지 않은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는 약화시킨다고 본다.

3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지적 설명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하여 선행 사건과 결과들에 대한 인과 관계를 변형시킨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주어진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는 강화시키지만, 일어나지 않은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는 약화시킴으로써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25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동기적~~ 인지적 설명에 의하면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본다.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기적 설명이 아닌 인지적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오·오·이

① 사후 설명이 용이할수록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4문단을 통해 어떤 일의 결과가 알려지면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러한 설명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을수록 사후 과잉 확신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② 사후 과잉 확신 확신 편향은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5문단을 통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판단 및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③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일어나지 않은 결과와 선행 사건과의 인과 관계를 약화시킨다.

3문단을 통해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면 주어진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를 강화시키지만, 일어나지 않은 결과와 선행 사건과의 인과 관계는 약화시킴을 알 수 있다.

⑤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후 과잉 확신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2문단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인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후 과잉 확신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4 문항 반응 이론

지문 분석 본문 122~125쪽

주제 문항 반응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을 결정하는 방법과 사례

해제 이 글은 측정의 두 가지 방법인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고전 검사 이론에서는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피험자의 능력을 결정한다. 이와 달리 문항 반응 이론은 피험자의 능력이 고유하며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문항 특성 곡선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할 수 있다.

한 줄 요약

❶ 잠재적 속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검사의 질을 결정하는 (**문항**)의 특성
❷ (**고전 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❸ (**문항 반응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❹ (**문항 특성 곡선**)을 구하는 방법과 (**문항 특성 곡선**)에 나타나는 지표의 특징
❺ 문항 특성 곡선을 통해 피험자의 능력인 (θ)를 추정하는 방법

26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교체 고전 검사 이론의 경우 문항의 변별도는 ~~피험자의 수~~ 해당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와 피험자의 총점의 관계를 나타낸다.

2문단에 따르면 고전 검사 이론에서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변별도는 정답 여부와 총점의 관계이지, 피험자의 수와 피험자의 총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② 고전 검사 이론의 경우 동일한 피험자라도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피험자의 능력이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2문단에서 고전 검사 이론을 활용하면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단에 따라 달라지거나 피험자의 능력이 검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③ 문항 반응 이론의 경우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문항의 특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3문단에서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피험자의 능력은 고유하며,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고 하였다.

④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모두 피험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문항의 특성을 분석한다.

2문단에서 고전 검사 이론에서 문항의 난이도는 응답자 중 그 문항의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가 많을수록 낮다고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문항의 특성을 피험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문항 반응 이론은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의 응답에 기반하여 확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항 반응 이론 역시 피험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문항의 특성을 분석함을 알 수 있다.

⑤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모두 피험자의 잠재적 속성을 측정하는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1문단에서 검사는 잠재적 속성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하였으며, 2~3문단에서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검사 이론으로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261 답 (1) 잠재적 (2) 높다 (3) 변하지 않는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검사는 사물의 (가시적, 잠재적) 속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1문단에서 가시적 속성은 직접 측정이 가능하지만, 인지적 영역과 같은 잠재적 속성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간접 측정을 한다고 하였다.

(2) 상반 고전 검사 이론에서 특정 문항에 대해 총점이 높은 피험자는 정답을, 총점이 낮은 피험자는 오답을 제시했다면 이 문항은 변별도가 (높다, 낮다)고 분석한다.

2문단의 '만약 특정 문항에 대해 ~ 높은 문항이라 분석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상반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피험자의 능력,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3문단에서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피험자의 능력은 고유하며,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고 하였다.

26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피험자의 능력이 고유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피험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3문단에 따르면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문항 특성 곡선이 활용되는데, 이는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어떤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따라서 문항 반응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에 따라 검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1문단에 따르면 검사의 질은 각 문항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문항의 특성은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인지적 영역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1문단에서 사물의 가시적 속성은 직접 측정이 가능하지만, 인지적 영역과 같은 잠재적 속성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간접 측정을 한다고 하였다.

③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은 모두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나타낼 수 있다.

고전 검사 이론은 피험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문항 특성 곡선을 활용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나타낼 수 있다.

④ 고전 검사 이론의 활용 시 피험자 집단에 따라 문항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문단에서 고전 검사 이론을 활용하면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26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상반 i 문항에 대해 피험자의 능력이 −1인 집단의 응답 경향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에서 γ_i보다 위에 있는 면적은 0.2보다 ~~작겠군~~ 크겠군.

〈그림 1〉과 같이 θ, 즉 피험자의 능력이 −1.3, 0, 1.5일 때 각각의 정규 분포가 그려진다면 γ_i보다 위에 있는 면적이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된다고 하였다. i 문항에서 피험자의 능력이 −1.3일 때 γ_i보다 위에 있는 면적(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0.2이다. 그런데 피험자의 능력이 −1로 −1.3보다 높아지는 경우 답을 맞힐 확률이 커지게 되어 γ_i보다 위에 있는 면적은 0.2보다 커진다.

오·오·이

①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피험자의 능력이 -1.3인 집단과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모두 높아지겠군.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는 것은 i 문항보다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 출제된다는 말이다. 이를 〈그림 1〉과 관련지어 보면 난이도를 나타내는 선인 γ_i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므로, 피험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γ_i보다 위에 있는 면적(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피험자의 능력이 −1.3인 집단과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모두 높아지게 된다.

③ i 문항에 대해 피험자의 능력이 1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보다 높겠군.

〈그림 1〉에서 γ_i보다 위에 있는 면적(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은 피험자의 능력인 θ가 클수록 넓다. 따라서 i 문항에 대해 피험자의 능력이 1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보다 높다.

④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피험자의 능력이 1.5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0.92보다 높겠군.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는 것은 i 문항보다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 출제된다는 말이다. 이를 〈그림 1〉과 관련지어 보면 난이도를 나타내는 선인 γ_i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므로 γ_i 위의 면적(답을 맞힐 확률)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피험자의 능력이 1.5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현재의 0.92보다 높아질 것이다.

⑤ i 문항보다 어려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0.5보다 낮겠군.

i 문항보다 어려운 문항이 제시된다는 것은 i 문항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된다는 말이다. 이를 〈그림 1〉과 관련지어 보면 난이도를 나타내는 선인 γ_i가 위로 올라가게 되므로 γ_i 위의 면적(답을 맞힐 확률)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현재의 0.5보다 낮아질 것이다.

정·오 지름길

①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피험자의 능력이 −1.3인 집단과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모두 높아지겠군.

이런 문제는 각각의 기호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메모해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오답 선지들은 모두 상식 수준에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즉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집단에게서나 답을 맞힐 확률은 낮아지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①은 쉽게 걸러 낼 수 있어요.

264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문항 특성 곡선은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낸다. (○, ×)

문항 특성 곡선은 피험자의 능력(θ)에 따라 어떤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인 $P(\theta)$를 구하고 이를 연결한 곡선이다. 따라서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낸다.

(2) 교체 문항의 변별도를 나타내는 척도 모수는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파를수록 높다고 추정된다. (○, ×)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항의 변별도는 척도 모수로 나타내

는데, 척도 모수는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높다고 추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척도 모수는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26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문항 특성 곡선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고유한 능력을 확률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피험자의 실제 응답은 문항의 정답을 맞추거나 틀리는 결과 중 하나로 나타난다. 하지만 6문단에 따르면 문항 특성 곡선은 피험자의 능력(θ)을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피험자의 실제 응답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인과 오류 ~~피험자의 능력은 문항의 위치 모수와 척도 모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문항 반응 이론에서 위치 모수와 척도 모수는 각각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나타낼 뿐, 피험자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 또 이것이 ㉠의 이유는 아니다.

② 인과 오류 ~~문항에 응답하는 경향은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정규 분포로 그려지기 때문에~~

문항에 응답하는 경향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정규 분포로 그려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의 이유는 아니다.

③ 인과 오류 ~~피험자가 답을 맞힌 결과에 따라 피험자의 고유한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험자가 답을 맞힌 결과에 따라 피험자의 고유한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고전 검사 이론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인과 오류 ~~문항의 변별도에 따라서 피험자가 해당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2문단에 따르면 문항의 변별도는 어떤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낼 뿐, 피험자가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결정짓지 않는다. 또 이것이 ㉠의 이유는 아니다.

26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	㉡
①	총점이 동일하기	난이도가 낮다고

2문단에 따르면 고전 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피험자 B와 피험자 D는 총점이 3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능력이 같다고 평가될 것이다. 또한 난이도는 문항의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문항의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가 많을수록 낮다고 나타낸다. 1번 문항은 3명이 맞히고 3번 문항은 2명이 맞혔으므로, 1번 문항이 3번 문항보다 난이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	㉡
② 상반	총점이 동일하기	난이도가 높다고

266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은 '난이도가 낮다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③ 교체	응답한 문항 수가 동일하기	변별도가 낮다고
④ 교체	응답한 문항 수가 동일하기	변별도가 높다고
⑤ 교체	응답한 문항 수가 동일하기	난이도가 낮다고

고전 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하므로, 응답한 문항 수가 동일한 것은 피험자의 능력의 척도가 될 수 없다(③, ④, ⑤). 또한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특정 문항에 대해 총점이 높은 피험자는 답을 맞히고, 총점이 낮은 피험자는 답을 틀렸다면 변별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보기 1〉에서 1번 문항은 비교적 총점이 높은 A, B, D가 맞히고 총점이 낮은 C가 틀렸으므로 변별도가 높다. 그러나 3번 문항은 비교적 총점이 높은 B가 틀렸으며 총점이 낮은 C도 틀렸다. 따라서 3번 문항의 변별도는 1번 문항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267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고전 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총점과 관련된다.

2문단에서 고전 검사 이론은 피험자의 능력을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점과 피험자의 능력은 서로 관련된다.

ㄴ. 고전 검사 이론에서 문항의 변별도는 총점과 관련된다.

2문단에서 고전 검사 이론은 변별도를 해당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변별도는 총점과 관련된다.

오·오·이

ㄷ. 상반 고전 검사 이론에서 문항의 난이도는 총점과 ~~관련된다~~ 관련 없다.

2문단에 따르면 고전 검사 이론에서 난이도는 응답자 중 그 문항의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가 많을수록 낮다고 나타낸다. 따라서 난이도는 총점과 관계 없이 파악할 수 있다.

26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상반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난이도는 동일하군. →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5문단에서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항의 난이도는 위치 모수로 나타나는데, 위치 모수가 오른쪽에 있을수록 어려운 문항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P(\theta)$가 0.5일 때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θ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난이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적절한 분석이다.

오·오·이

② 능력이 0보다 높은 피험자들을 변별하는 데는 2번 문항보다 3번 문항이 적합하겠군. → 적절함.

문항의 변별도는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높다고 추정된다. θ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 3번 문항의 기울기가 2번 문항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3번 문항의 변별도가 더 높다는 것은 적절한 분석이다.

③ 능력이 1인 피험자가 2번 문항을 맞힐 확률은 3번 문항을 맞힐 확률보다 낮겠군. → 적절하지 않음.

θ값이 1일 때 2번 문항의 $P(\theta)$값이 3번 문항의 $P(\theta)$값보다 더 높다. 따라서 능력이 1인 피험자가 2번 문항을 맞힐 확률이 3번 문항을 맞힐 확률보다 낮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다.

④ 1번 문항은 피험자의 능력이 0보다 커지면 변별도가 급격히 낮아지는군. → 적절함.

1번 문항의 경우 θ값이 0보다 커질 때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완만해진다. 문항 반응 이론에서 문항의 변별도는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높아지므로 문항의 변별도가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은 적절한 분석이다.

⑤ $-2<\theta<0$ 구간에서 3번 문항은 2번 문항에 비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가 크겠군. → 적절하지 않음.

$-2<\theta<0$ 구간에서는 2번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3번 문항보다 가파르므로, 2번 문항의 변별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번 문항이 2번 문항에 비해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다.

35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지문 분석

본문 126~129쪽

주제 '동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해제 이 글은 '동감'에 관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통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설명하고 있다. 동감은 관찰자가 상상에 의한 역지사지를 통해 행위자와 감정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행위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관찰자의 동감을 받으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자혜라고 하고,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는데, 사회 존립을 위해 정의에 대한 침범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 줄 요약

1. 도덕 감정의 핵심이 (**동감 능력**)이라고 본 아담 스미스
2. (**동감**)의 의미와 원리
3. 한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동감**)의 원리
4. 행위를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게 하는 동감의 특징
5. (**자혜**)와 정의의 개념과, 이를 행하지 않을 때의 결과
6. 사회 존속을 위해 자혜보다 (**정의**)를 더 중요하게 여긴 아담 스미스

26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특정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동감'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제기된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대한 반론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상충하는 두 이론을 제시한 후 그 장단점을 대비~~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소개하고 있을 뿐, 이와 상충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가설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례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지도 않다.

27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윗글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이해관계'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
동감

이 글은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의 핵심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감 능력이라고 보았다고 하면서, '동감'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도덕 감정론을 설명하고 있다.

(2) 윗글은 비교를 통해 특정 개념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

5~6문단에서 '자혜'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자혜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윗글은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

2문단에서 '동감', 5문단에서 '자혜', '정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27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통시적인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동감'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을 뿐, 통시적인 관점에서 동감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특정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6문단에서 "자혜는 정의보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 덜 중요하다."라는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1문단에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③ 대비되는 견해 중 하나의 견해에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에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에 내재하는 숨은 성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두 흐름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이성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는 견해와 개인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도덕 감정에 주목하는 견해 중 후자의 견해에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특정 개념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4문단에서 동감과 관련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전혀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위한 이타적 행위에 몰두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7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개인은 왜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가?~~

이 글은 개인이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이기적인 행위는 어떻게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가?

4문단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공평한 관찰자가 자신도 행위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었을 때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 동감한다면, 행위자의 이기적인 행위도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①과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

③ 인간에 내재하는 어떠한 성질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1문단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에 내재하는 숨은 성질로 개인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도덕 감정에 주목하며, 이 도덕 감정의 핵심을 동감 능력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②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

④ 관찰자는 타인의 행위와 동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상상하는가?

2문단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공평한 관찰자는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

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3문단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한 개인이 감정과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추상적 존재를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혹은 '마음속의 이상적 인간'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⑤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

27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개인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 사용된다.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동감의 원리는 타인의 감정과 행

위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오·오·이

① 관찰자가 행위자와 감정 일치를 이루는 상태이다.

2문단에서 동감은 관찰자가 상상에 의한 역지사지를 통해 행위자와 감정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② 이기적 행위를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게 한다.

4문단에서 행위자의 행위는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27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침범**: 남의 영토나 권리, 재산, 신분 따위를 침노하여 범하거나 해를 끼침.

정·정·이

⑤ 교체 자혜가 지켜지지 않으면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혜에 대한 침범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정의 정의

5문단을 통해 자혜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시혜이므로, 사람들이 이를 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보복 감정을 일으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의 설명은 정의에 관한 것이다.

오·오·이

① 동감의 원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3문단을 통해 동감의 원리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관찰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동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정성의 유무를 파악한다.

2문단을 통해 관찰자는 자신의 상상을 행위자의 감정 및 행위와 비교하여 양자가 일치할 경우에 동감하게 되고, 이를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함을 알 수 있다.

③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동감 능력을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도덕 감정으로 보았다.

1문단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에 내재하는 숨은 성질로 도덕 감정에 주목하였으며 그 핵심을 동감 능력이라고 보았다.

④ 행위자의 이기적인 행위도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면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문단을 통해 행위자의 행위가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7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한다.

[A]는

〈보기〉에서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되는데, 유용한 행위는 쾌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기〉의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A]'은 유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은 행위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감정을 촉발하므로, 유용성은 ㉠과 [A]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보기〉에서 [A]는 타고난 것이라고 하였고, 1문단에서 ㉠은 개인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도덕 감정이라고 하였으므로 ㉠과 [A]는 모두 선천적인 것이다.

② 타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2문단에서 동감은 관찰자가 상상에 의한 역지사지를 통해 행위자와 감정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에서 [A]는 우리가 타인의 행과 불행을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과 [A]는 모두 타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④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해 기능한다.

1문단에서 사회에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에 내재하는 숨은 성질을 아담 스미스는 동감 능력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보기〉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내어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과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으므로, ㉠과 [A]는 공통적으로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해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타적 행위는 물론 이기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도 작용한다.

4문단에서 행위자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 즉 이기적 행위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행위, 즉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도 쾌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 [A]는 모두 이타적 행위는 물론 이기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76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이기적 행위를 억제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다.

5문단에서 아담 스미스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하기 쉬우므로, 결국 보복 감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이기적 행위를 억제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다.

ㄷ. 누군가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동감 능력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의 핵심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감 능력이라고 보았는데, 행위자의 행위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누군가의 선한 행위를 보고 이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관찰자에 의해 그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승인받았음을 의미하므로, 동감 능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ㄱ. 상반 사회 구성원 간의 애정이 없다면 보복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

5문단을 통해 보복 감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6문단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사회는 구성원 간에 상호 애정이 없어도 존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간의 애정이 없다면 보복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견해로 볼 수 없다.

27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자혜는 사람들이 이를 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하기 쉬우므로 결국 보복 감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행위는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사회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혜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정의와 달리 자혜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정의나 자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존재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자혜를 행하지 않아도 타인의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낮은 것이다.

② 짜깁기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은 자혜이다. 그런데 ㉡에서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정의가 자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②는 ㉡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

④ 부재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자혜도 지켜진다~~.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면 결과적으로 자혜도 지켜진다고 볼 근거는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자혜가 지켜지지 않더라도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보다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정의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것이다.

⑤ 부재 인간은 자혜보다 정의와 관련된 행위를 ~~더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인간이 자혜보다 정의와 관련된 행위를 더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자혜의 부재보다 정의의 부재 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이 ㉡과 같은 평가의 핵심적인 이유이다.

278 답 (1) 자혜 (2) 정의 (3) 있으나, 없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자혜, 정의)는 이타적 행위의 확대와 관련된다.

5문단에서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자혜라 하였다.

(2) 교체 (자혜,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면 타인의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5문단에 따르면 정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침해하기 쉬워져 보복 감정을 초래하게 된다.

(3) 상반 자혜에는 수익자는 (있으나, 없으나) 피해자는 (있다, 없다).

5문단에서 타인에 대한 적극적 시혜인 자혜에는 수익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고 하였다.

27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이타적인 행위를 했지만 관찰자의 동감을 얻지 못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지 못하겠군.

4문단에서 이타적인 행위라도 그것이 적정성을 지니지 못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지 못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위를 했더라도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짜깁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은 ~~이기적인~~ 행위이므로 적정성을 지니지 못하겠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을 이기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② 짜깁기 이타적인 행위에 몰두하는 것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받을 수 없겠군.~~

이타적인 행위에 몰두하는 것 자체는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나, ㉮는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정성을 지니지 못할 수 있다.

③ 인과 오류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행위를 했으므로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없겠군.~~

㉮는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행위를 했지만 관찰자의 동감을 얻기 어려운 사례이므로,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④ 짜깁기 ~~이기적인~~ 행위를 했지만 관찰자의 ~~동감을 얻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없겠군.~~

279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36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지문 분석 본문 130~133쪽

주제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입장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제 이 글은 도덕적 운과 그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철학자들의 인식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부 철학자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운의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한 뒤,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운을 부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철학자들의 인식

❷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과, 도덕적 운의 종류 ① – (**태생적**) 운

❸ 도덕적 운의 종류 ② – (**상황적**) 운

❹ 도덕적 운의 종류 ③ – (**결과적**) 운

❺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때의 문제점

❻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법

28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들로,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도덕적 운을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으로 나눈 다음, 이러한 운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또한 5문단에서 이 글의 글쓴이는 ㉠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 글쓴이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문단에서 ㉠은 결과적 운의 사례로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난 어떤 화가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불공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6문단에서 글쓴이는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그의 무책임한 행위가 덜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가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

과 글쓴이는 모두 '상식'을 불공평한 것으로 여기므로 '상식'을 존중하는 입장과 거리가 멀다.

② 범위 오류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4문단에 따르면 ㉠은 운과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고 본다. 또한 이 글의 글쓴이 역시 1문단에서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 글쓴이 모두 운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상반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3문단에서 ㉠은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글의 글쓴이는 6문단에서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2문단에서 ㉠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글의 글쓴이는 6문단에서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81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1문단에서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였다.

ㄴ.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성품이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해진다.

5문단에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ㄷ. 상반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면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해진다.
가능해진다

5문단에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하였고, 6문단에서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면 도덕적 평가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28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도 행위의 결과가 주는 영향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가능하다.

5문단을 통해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는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개인이 가진 운에 따라 도덕적인 평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 개인이 가진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②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일도 일어난다.

2문단에서 ㉠은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③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4문단에 제시된 화가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⑤ 특정한 성품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공평하지 않다.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품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공평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28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

ⓓ의 '국한'은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은 '적용'의 의미이다.

오·오·이

①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기반'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②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거론'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③ ⓒ: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

'개입'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⑤ ⓔ: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

'폄하'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28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난점'의 사전적 의미는 '곤란한 점'이다. (○, ×)

'난점'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2) '직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이다. (○, ×)

'직면'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3) 교체 '통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이다. (○, ×)

'통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두루 씀.', 또는 '서로 넘나들어 두루 씀.'이다.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은 '사용'의 사전적 의미이다.

28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불운**: 운수가 좋지 않음. 또는 그런 운수.
- **쾌재**: 일 따위가 마음먹은 대로 잘되어 만족스럽게 여김. 또는 그럴 때 나는 소리.

정·정·이

⑤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부른다.

㉡의 '부르다'는 문맥상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⑤이다.

오·오·이

① 교체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부르다'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교체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부르다'가 '구호나 만세 따위를 소리 내어 외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교체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부르다'가 '남이 자신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게 또박또박 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교체 생일에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부르다'가 '청하여 오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8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도덕적 운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이 글의 글쓴이와 같은 입장이다. 글쓴이는 6문단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을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이유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보기〉의 A와 B는 모두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므로 동일하게 비난받아야 하지만, 골을 넣지 못한 B에 비해 골을 넣은 A는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성품이 덜 부각되어 사람들이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고 볼 것이다.

오·오·이

② 짜깁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6문단에서는 글쓴이는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측과 관련해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의 입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은 상황적 운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기〉는 결과적 운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짜깁기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곧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들이다. 이들은 성품이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므로, 성품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보기〉에서 A, B의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은 같다고 하였으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보다 좋지 못한 성품을 더 가지고 있다거나,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④ 짜깁기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보기〉에서 A, B는 모두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갖고 있고, 모두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므로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상황에 따라 똑같은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은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의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짜깁기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4문단에 따르면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본다. 그런데 〈보기〉에서 A와 B는 똑같이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골을 넣었는지 여부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이러한 평가를 불공평하다고 볼 것이다.

287 답 (1) 태생적 (2) 결과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타고난 성격은 (태생적) 운에 해당한다.

2문단에서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는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태생적 운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타고난 성격은 태생적 운에 해당한다.

(2) 교체 (결과적) 운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4문단에서 결과적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8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는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글쓴이는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에서 은행원이 위협을 받아 은행의 돈을 강도에게 넘긴 행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쓴이는 이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오·오·이

① ㉮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는 도덕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으로 판단할 것이다.

㉮에서 처음 여행 온 국가의 교통 신호를 착각한 행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무지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는 이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② ㉯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 후자가 더 비난을 받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③ ㉰는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통제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1문단에 따르면 ㉠의 입장에서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평소에 화를 쉽게 내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른 것은 스스로 통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에 해당한다.

④ ㉱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은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는 강제에 의해 일어난 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VI 역사

37 토인비의 역사 연구

지문 분석 본문 134~135쪽

주제 토인비의 문명 중심의 역사 연구

해제 이 글은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한 토인비의 문명 중심의 역사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라는 개념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토인비가 설정한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인 (**문명**)

❷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 –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

❸ 성공적인 (**응전**)의 조건

❹ 문명 (**성장**)의 조건

❺ (**모방**)의 작용 방향의 중요성

28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성세대**: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

정·정·이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2문단에 따르면 토인비는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고 하였으며, 3문단에서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교체 모방의 ~~존재 여부~~(작용 방향)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5문단에 따르면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토인비는 이에 대해 모방의 유무가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모방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작용 방향이 문명 발생과 성장의 기준임을 알 수 있다.

③ 교체 역사는 ~~국가~~(문명)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1문단에서 토인비는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고 하였다.

④ 교체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다타난다~~(성공적일 수 없다).

3문단에서 환경의 도전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⑤ 상반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겪지 못한다).

5문단에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하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고 하였다. 그 결과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인 변화를 겪지 못하게 될 것이다.

29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 ×)

5문단에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였다.

(2) 인과 오류 토인비는 성공적인 응전의 완성은 소수의 창조적 인물들의 역량 발휘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 ×)

4문단에 따르면 토인비는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하며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3)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하면서 연장자의 권위를 강화해 준다. (○, ×)

5문단에 따르면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하며,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고 하였다.

29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대중은 힘을 결집하여 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며, ~~전조들의 삶의 방식~~(창조적 소수)을 모방함으로써 문명을 성장시킨다.

4문단에서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5문단에서 모방의 작용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하는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였다. 즉 토인비는 다수의 대중이 힘을 결집하여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모방을 통해 소수의 창조적 인물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명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본다.

오·오·이

① 역사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문명의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1문단에서 토인비는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고 하였다.

② 역경을 이겨 내려는 분투의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적 행동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문명이 발생한다.

2문단에서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키며,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③ 환경의 도전이란 역경을 의미하며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최적일 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

2문단에 따르면, 토인비는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라고 하였다. 또 3문단에서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④ 문명의 발생 이후 창조적 소수가 역량을 발휘하여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할 때 문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4문단에서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다.

29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당면**: 바로 눈앞에 당함.

정·정·이

③ 상반 둘째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아야겠군.

해결하지 못했다고

4문단에서는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 둘째 집단은 생활 양식의 변경을 통해 유목 생활을 함으로써 문명 단계에는 들어갔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둘째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문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사막화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 사람들이 당면했던 역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겠군.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당면했던 급속한 사막화는 기존의 생활 양식이나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환경의 도전, 역경이라 할 수 있다.

② 첫째 집단에서는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보기〉에서 첫째 집단은 그대로 머물러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였다. 즉 이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선조들과 구세대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가다 발전적 변화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고, 대중의 모방이 그들을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보기〉의 셋째 집단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새로운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문제들도 해결했다고 하였다. 이 글의 4문단에 따르면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인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5문단에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의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나 역량을 발휘하고, 대중이 힘을 결집하여 이들을 모방함으로써 문명을 성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과 생활 양식을 모두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보아야겠군.

〈보기〉의 셋째 집단은 사막화라는 환경의 도전이 나타나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하여 생활 터전

을 바꾸고, 기존의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생활 양식을 바꾸었다. 따라서 환경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결함으로써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293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유목 생활은 〈보기〉의 둘째 집단이 선택한 응전 방식이라 할 수 있군.

둘째 집단은 사막화가 진행되자 수렵 생활에서 유목 생활로 생활 양식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생활 양식의 변경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응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ㄷ. 〈보기〉의 셋째 집단에게 있어 이 지역에 나타난 사막화는 자극의 강도가 최적인 도전이라 보아야겠군.

셋째 집단은 사막화가 진행되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새로운 고대 문명을 이루고 이어지는 문제들로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고 하였다. 이 글의 3문단에서는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셋째 집단이 성공적인 문명 발생과 성장을 이룬 것을 보아 셋째 집단에게 있어 이 지역에 나타난 사막화는 최적의 도전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ㄱ. 짜깁기 〈보기〉의 첫째 집단은 대중이 ~~창조적 소수를 모방함으로써 도전을 해결~~하고 있군.

첫째 집단은 사막화라는 환경의 도전에 대해 그대로 머물러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이들은 환경의 변화라는 역경을 당하고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선조들과 구세대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도전을 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8 역사 연구 태도

지문 분석 본문 136~137쪽

주제 역사적 사실의 정의에 따른 역사가의 역사 연구 태도 차이

해제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의 정의에 따른 역사가의 연구 태도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 일어난 개체적 사건 그 자체'로 보는 관점에서 랑케가 주장한 역사가의 역할(연구 태도)을 설명하고, 역사적 사실을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학문적으로 구성된 사실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드로이젠이 주장한 역사가의 역할(연구 태도)을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역사적 사실**)'의 개념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가의 역사 연구 태도

❷ (**랑케**)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역할(연구 태도)

❸ (**드로이젠**)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역할(연구 태도)

❹ (**드로이젠**)의 관점에서의 역사 연구 태도

❺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은 드로이젠의 (**주관주의적**) 역사 인식론

29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동일한~~ 다른 개념으로 보았다.

4문단에 따르면 드로이젠은 인간은 태초부터 주어진 자연의 세계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인륜적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보았다. 즉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자연 세계와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오·오·이

① 랑케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파악을 강조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랑케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며, 역사가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랑케는 과거 사건들의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문단에서 랑케는 각 시대나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하였다.

④ 드로이젠은 사료 고증만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3문단에서 드로이젠이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 고증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라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드로이젠은 범주로서의 역사가 역사가의 역사 인식을 선험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4문단에서 드로이젠은 범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사 인식을 선험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295 답 (1) 드로이젠 (2) 랑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랑케, 드로이젠)은/는 역사가는 과거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의 지식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3문단에서 드로이젠은 역사적 사실이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학문적으로 구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의 지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했다.

(2) 교체 (랑케, 드로이젠)은/는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니며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2문단에서 랑케는 각 시대나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했다.

29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드로이젠은 역사적 사건이 인륜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므로 그 세계와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4문단에서 드로이젠은 역사는 인륜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며 또한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짜깁기 랑케는 철저한 고증과 역사가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였다.

2문단에서 랑케는 역사가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를 인식해야 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따라서 랑케가 연구 목적에 따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중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상반 랑케는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된 과거의 사실이 역사 연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있는 그대로의

2문단에서 랑케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랑케가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된 과거의 사실을 역사 연구의 대상이라고 여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짜깁기 드로이젠은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을 강조하면서 역사에 대한 ~~엄의적~~ 해석을 주장하였다.

4문단에서 드로이젠이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역사가가 임의로 과거의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본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⑤ 짜깁기 드로이젠은 범주로서의 역사가 역사가의 역사 인식을 선험적으로 규정한다고 보고 ~~상대주의적~~ 역사 인식을 강조하였다.

4~5문단에서 드로이젠은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하기 이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범주로서의 역사가 있어 이것이 역사가의 역사 인식을 선험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으며, 그의 역사 인식론은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29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신사학파'는 '드로이젠'과 달리 역사가의 역사 인식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군.

〈보기〉의 신사학파는 모든 역사가는 자신의 관심과 자기 시대의 관점에 따라 과거 사실을 해명한다고 본다. 이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역사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5문단에서 드로이젠은 역사 인식의 주관성을 주장하면서도, 선험적으로 주어진 인륜적 세계가 역사가의 역사 인식과 해석을 결정한다고 보아 그의 역사 인식은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드로이젠'은 '신사학파'와 달리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 인식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군.

3문단에서 드로이젠은 역사적 사실이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학문적으로 구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의 신사학파는 모든 역사가는 자신의 관심과 자기 시대의 관점에 따라 과거 사실들을 해명한다고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신사학파 또한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 인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③ 짜깁기 '신사학파'는 '드로이젠'과 달리 ~~불변하는 현실이 역사 인식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군.

신사학파는 역사적 사실의 존재 방식은 영원한 실재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라고 보았으며, 역사 인식의 범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④ 범위 오류 '드로이젠'과 ~~'신사학파'~~는 모두 인륜적 세계를 상정하여 역사가의 역사 인식을 설명하고 있군.

4문단에서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를 상정하여 역사가의 바람직한 역사 인식에 대해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보기〉의 신사학파는 인륜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⑤ 부재 '드로이젠'과 '신사학파'는 모두 역사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역사적 사실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군.

드로이젠과 신사학파가 역사적 사실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29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역사가의 역사 인식은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드로이젠은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신사학파는 역사가는 자신의 관심과 자기 시대의 관점에 따라 과거 사실들을 해명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드로이젠과 신사학파 모두 역사가의 역사 인식은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영원한~~ 실재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신사학파는 역사적 사실의 존재 방식은 영원한 실재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라고 하였다. 또한 드로이젠은 역사는 인륜적 세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③ 상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중시한 학자는 랑케이다. 드로이젠은 랑케와 달리 역사를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으며,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의 지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신사학파는 역사 서술의 출발점을 역사가의 현재 인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④ 짜깁기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만으로도 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드로이젠은 사료 고증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 사료에 대한 고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짜깁기 과거에 일어난 ~~개체적 사건 그 자체만~~이 역사적 사실로서 가치를 갖는다.

드로이젠과 신사학파 모두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과거의 사건 그 자체만이 역사적 사실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드로이젠과 신사학파의 견해와는 거리가 멀다.

39 신채호의 '아' 개념

지문 분석 본문 138~141쪽

주제 '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신채호의 역사관 이해

해제 이 글은 '아' 개념을 바탕으로 신채호의 역사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의 개념과 특성을 제시한 후, 상속성과 보편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아'를 소아와 대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의 개념을 통해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신채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인 '(아)'

❷ (신채호)의 사상에서의 '아'의 개념과 특징

❸ (소아)와 (대아)의 구별

❹ '(아)'를 통한 신채호 사상의 이해

❺ '아' 개념의 명료화와 (민중 연대) 지향

29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이 글에서는 신채호의 사상에서 대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1문단에서 신채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2문단에서 아의 자성은 곧 '나의 나됨'이라고 하였다.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3문단에서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로서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로서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5문단에서 신채호는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고 하면서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300 답 (1) ○ (2) × (3) × (4) × (5)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나의 나 됨'을 자성이라고 한다. (○, ×)

2문단에서 자성은 '나의 나됨'이라고 하였다.

(2) 상반 신채호는 투쟁과 연대가 ~~모순된다고~~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1문단에서 신채호는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고 하며,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라고 하였다.

(3) 범위 오류 소아와 대아는 모두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 (○, ×)

3문단에서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4) 교체 신채호는 상속성과 보편성이 ~~배타적인~~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

3문단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5) 신채호는 민중의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추구했다. (○, ×)

5문단에서 신채호는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고 하였다.

30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자질**: ①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 ②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정·정·이

③ 부재 신채호는 ~~제국 침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가?

이 글에는 신채호가 생각하는 제국주의 침략의 원인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신채호는 역사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1문단에서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고 하였다.

② 신채호가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한 기준은 무엇인가?

3문단에서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했는데,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로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고,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로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④ 신채호가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1문단에서 신채호는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한 그의 생각이 신채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고 했다.

⑤ 신채호는 신국민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가?

4문단에서 신채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를 신채호가 생각한 신국민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로 볼 수 있다.

30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계승**: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감.

정·정·이

③ 교체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 비아 속의 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4문단에서 신채호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직면하여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으로,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로 보아 신채호가 조선 민족과 연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것은 '비아'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이다.

오·오·이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2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 민족으로서의 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인 대아라 할 수 있으므로, 『조선 상고사』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아로서의 조선 민족의 자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

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4문단에서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반대한 이유가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채호는 동양주의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아의 항성을 약화시켜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4문단에서 신채호는 동양주의가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신채호는 일본 제국주의가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인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한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고 하였다.

303 답 ㄱ,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1문단에서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고 하였다.

ㄴ. 역사서를 서술하여 조선 민족의 발전을 모색했다.

2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고 했다.

ㄷ.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위해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4문단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오·오·이

ㄹ. 짜깁기 일본과 연대하여 서구 열강에 맞서는 동양주의를 ~~추구~~ 반대했다.
을 중심으로

4문단에 따르면 동양주의란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것인데, 신채호는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아 동양주의에 반대했다고 하였다.

30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짜깁기 ~~일본에 동화된 이들 중에도 비아와 연대할 수 있는~~ 민중이 있다.

5문단에 따르면 신채호는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으며,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이라는 비아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는 민중에 속하지 않으며, 신채호가 조선 민중과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대상은 비아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이다.

오·오·이

① 조선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민중으로 볼 수는 없다.

5문단에서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조선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민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의 중심이 민중이다.

2문단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라고 하였는데,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의 중심이 민중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민중은 내부의 부정적 요소를 없앰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하는 주체이다.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고 하였다.

⑤ 민중은 반제국주의자들과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으며, 이러한 민족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고 하였다.

30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

현되지 않는다.

3문단에 따르면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하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 이로 보아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자성을 갖춘 모든 아~~(대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3문단에서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자성을 갖춘 모든 아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상반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⑤ 인과 오류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장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2~3문단에서 자성은 항성과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거나(②),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은 것(⑤)과는 관계없이 소아에서는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지 않는다(②, ⑤).

③ 상반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실현되지 않고)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3문단에서 대아는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성은 실현되지만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306 답 (1) 소 (2) 대 (3) 소 (4) 대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개별화된 개인적 아 (소)

3문단에서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라고 하였다.

(2) 교체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 (대)

3문단에서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라고 하였다.

(3) 교체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아 (소)

3문단에서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4) 교체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아 (대)

3문단에서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30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영속적**: 영원히 계속되는 것.

정·정·이

② 소아와 대아는 모두 자성을 갖고 있다.

3문단에서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소아와 대아 모두 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자성은 ~~변치 않으며 영속적이다~~(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2문단에서 자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으므로, 변치 않으며 영원히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교체 상속성의 ~~확보~~(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3문단에서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④ 인과 오류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자성을 자각~~할 수 있다.

3문단에서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자성을 자각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짜깁기 변성이 클 때~~보다~~ 항성이 클 때 주체의 ~~생존이 유리하다~~.

3문단에서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항성과 변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므로 변성이 클 때보다 항성이 클 때 주체의 생존이 유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0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의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이다.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선정'이다.

오·오·이

①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본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②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자각'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④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파급'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⑤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직면'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309 답 (1) 자각 (2) 직면 (3) 설정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과오**: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 **자금**: ①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쓰는 돈. ② 특정한 목적에 쓰는 돈.
- **미지근하자**: 행동이나 태도가 분명하거나 철저하지 못하자.

정·정·이

(1) 교체 그는 자신의 과오를 (입각, 자각)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가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깨달았다는 의미이므로,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자각'이 적절하다. '입각'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교체 기업가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면, 직면)하였다.

기업가가 어려운 상황을 직접 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직면'이 적절하다. '대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교체 관객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작가는 사건의 전개를 새롭게 (설치, 설정)하였다.

사건의 전개를 새롭게 만들어 정했다는 의미이므로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이라는 의미를 지닌 '설정'이 적절하다. '설치'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따위를 베풀어 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1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요령**: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

정·정·이

①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우산을 놓고 나왔다.

㉮의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의 '보다' 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오·오·이

② 교체 큰 야단을 맞을까 보아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

'큰 야단을 맞을까 보아'의 '보다'는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걱정하거나 두려워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교체 나는 그 책에서 난생처음 보는 말을 발견했다.

'난생처음 보는 말'의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교체 일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

'일을 하다 보면'의 '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⑤ 교체 그 친구와는 졸업 후에 처음으로 서로 보게 되었다.

'서로 보게 되었다.'의 '보다'는 '사람을 만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오 지름길

①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우산을 놓고 나왔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용언을 찾는 문제에서 의미만으로 구별하기에는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그 용언이 어떠한 품사에 이어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 문제의 경우 '보다'가 '-으로, -고' 등의 부사어에 이어서 쓰이고 있음을 파악하면 적절한 선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40 유물 자료 연구

지문 분석 본문 142~145쪽

주제 유물 자료를 해석하는 고고학의 연구 방법 및 특징

해제 이 글은 토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사례로 들어, 고고학에서 발굴된 유물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고고학의 목적을 제시한 후, 토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 사례를 토대로 고고학에서 유물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진화 고고학적 해석, 생태학적 해석, 사회 문화적 해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고고학의 (**유물 자료**) 연구 방법
❷ 토기의 변화에 대한 (**진화 고고학**)적 해석
❸ 토기의 변화에 대한 (**진화 고고학**)적 해석의 한계
❹ 토기의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해석
❺ 토기의 변화에 대한 (**사회 문화**)적 해석
❻ 고고학적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이용하는 (**열린 자세**)의 필요성

31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인과 오류 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

3문단에서 세밀한 연대 측정을 통해 토기 두께의 변화를 세밀하게 비교해 본 결과, 토기의 두께가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4세기경 급작스럽게 변화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이는 연대 측정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고고학은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축적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

6문단에서 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 유물 자료가 빠르게 축적되고, 주변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측정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다고 하였다.

② 발굴로 얻어지는 유물은 과거 인간의 삶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1문단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④ 개선된 측정 방법으로 유물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3~5문단을 통해 연대 측정 방법이 더욱 세밀하게 개선됨으로써 토기의 두께 변화에 대한 자연 선택적 설명, 즉 진화 고고학의 해석은 그 설득력이 약화되고 생태학적 이론이나 사회 문화적 요인에 입각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⑤ 고고학은 부분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유물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

1문단에서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 있으며, 고고학은 이 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31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고고학은 유물 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한다. (○ ×)

1문단에서 고고학은 발굴로 얻은 유물 자료에 남아 있는 정보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2) 새로운 측정 방법의 개발은 고고학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 ×)

6문단에 따르면 고고학에서는 주변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측정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다고 하였다.

(3) 부재 유물의 의미를 인간의 능동적 선택에서 찾는 생태학적 이론이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 방법이다. (○, ×)

이 글에는 유물 해석에 활용되는 진화 고고학적 해석, 생태학적 해석, 사회 문화적 해석 등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이론이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1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총체적**: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거나 묶은 것.

정·정·이

⑤ 진화 고고학은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유물의 의미를 해석한다.

2문단에서 진화 고고학에서는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에 더

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를 설명한다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과학의 발달은 고고학의 해석 가능 범위를 ~~제한한다~~ 넓혀 준다.

312번-(2)의 해설을 참고할 때, 과학의 발달은 고고학의 해석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② 상반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대한 정보가 ~~총체적~~ 단편적으로 담겨 있다.

1문단에서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③ 교체 ~~고고학~~ 진화 고고학은 사용 맥락보다는 기능적 요인을 중심으로 유물 자료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5문단의 '진화 고고학과는 달리 유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능적 요인보다는 ~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도 있다.'를 통해 진화 고고학은 사용 맥락보다는 기능적 요인을 중심으로 유물 자료를 해석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진화 고고학은 고고학 이론 중 하나일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상반 유물 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할 때에는 ~~하나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

6문단에서 특정한 이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1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열전도율**: 물체 속을 열이 전도하는 정도를 나타낸 수치.

정·정·이

④ 짜깁기 ~~토기로 조리한 음식의 종류는 당시의 자연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냈다.

2문단에서 조리용 토기들의 두께와, 토기에 탄화된 채로 남아 있던 식재료에 사용된 곡물의 전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후대로 갈수록 토기 두께가 상당히 얇아지고 곡물의 전분 함량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즉 토기에 탄화된 채로 남아 있던 식재료를 통해 곡물의 전분 함량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지, 당시의 자연환경을 추측하여 토기로 조리한 음식의 종류를 알아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열전도율은 더 높아진다.

2문단에서 두께가 얇은 토기는 상대적으로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수하다고 하였다.

② 곡물의 전분 함량 변화는 토기의 두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③ 토기 두께의 변화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2문단에서 진화 고고학은 토기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전분이 좀 더 많은 씨앗의 출현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했다. 곡물의 전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을 더 잘 전달하도록 토기 두께가 얇아졌고(②), 이러한 토기 두께의 변화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③)라고 본 것이다.

⑤ 전분이 많은 씨앗을 조리하는 데에는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유리하다.

2문단에서 두께가 얇은 토기는 상대적으로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전분이 많은 씨앗들은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끓일 때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껍질이 두껍고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은 그 특성상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전분이 많은 씨앗을 조리하는 데에는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유리함을 알 수 있다.

3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진화 고고학적 관점

2문단에서 진화 고고학에서는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화 고고학은 유물을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결과로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생태학적 관점~~

4문단을 통해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유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진화론적 관점에 근거하지만 인간의 능동적 선택, 즉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좀 더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교체 ~~사회 문화적 관점~~

5문단에서 사회 문화적 관점은 유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능적 요인보다는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등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이라고 하였다.

31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씨앗의 전분 함량이 토기의 두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2문단에 따르면 자연 선택적 설명(㉮)에서는 전분이 좀 더 많은 씨앗의 출현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토기의 두께가 얇아졌다고 보았다.

오·오·이

① 교체 토기의 두께 변화는 ~~5~~4세기에 급작스럽게 일어났다.

3문단에서 토기의 두께는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4세기경 급작스럽게 변화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된 것은 5세기 이후부터였다는 사실로 인해 토기의 두께 변화에 대한 자연 선택적 설명(㉮)은 그 설득력이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③ 짜깁기 토기의 두께가 변화한 것은 ~~씨앗의 채집량에 영향을 주었다.~~

2문단에서 자연 선택적 설명(㉮)에서는 자연환경이 변화하여 껍질이 두껍고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짐으로써 씨앗의 채집량이 늘어날 수 있었고, 이 씨앗은 그 특성상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즉 토기의 두께가 변화한 것이 씨앗의 채집량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며, 씨앗의 전분 함량이 높아진 것이 토기의 두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짜깁기 ~~열전도가 빠른 토기로 음식을 만들 때에는 오래 가열해야~~ 한다.

자연 선택적 설명(㉮)에서는 자연환경이 변화하여 껍질이 두껍고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졌는데, 이런 씨앗은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⑤ 짜깁기 ~~음식의 전분 함량 변화와 토기 두께의 급격한 변화 사이에는 시간 차가 있다.~~

음식의 전분 함량 변화는 5세기 이후부터이고, 토기의 두께 변화가 4세기로 둘 사이에 시간 차가 있다는 것은 자연 선택적 설명(㉮)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정·오 지름길

윗글의 ㉮의 관점과 일치하는 내용은?

문제에서 묻는 것은 토기의 두께 변화에 대한 '자연 선택적 설명'이에요. 따라서 토기의 두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2문단에서 '토기의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전분이 좀 더 많은 씨앗의 출현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전분이 많은 씨앗의 출현이 이유(원인)에 해당하고, 토기의 두께가 얇아진 것이 결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31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여건**: 주어진 조건.

정·정·이

⑤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로 새로운 토기가 유입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토기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그 유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기호 변화에 주목한 것이므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주목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인과 오류 자연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두께가 얇은 토기가 생존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토기의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결과로 보는 것은 2문단에 언급된 진화 고고학의 관점에 따른 해석에 해당한다.

② 인과 오류 ~~거주 지역을 옮기면서 주위 환경이 바뀌어 토기를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거주 지역을 옮기면서 주위 환경이 바뀌어 그에 따라 토기를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2문단에 언급된 진화 고고학의 관점에 따른 해석에 해당한다.

③ 인과 오류 ~~식량을 채취하는 여건이 악화되면서 토기 제작에 쏟을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식량을 채취하는 여건이 악화되면서 토기 제작에 쏟을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토기의 두께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주목한 것이므로, 4문단에 언급된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에 해당한다.

④ 인과 오류 ~~기후의 변화로 주요 식재료가 바뀌면서 음식을 조리하기에 편리한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후의 변화로 주요 식재료가 바뀌면서 음식을 조리하기에 편리한 토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주목한 것이므로, 4문단에 언급된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에 해당한다.

318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아 해석한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에서는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ㄷ.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등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한다.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등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ㄱ. 교체 유물이 ~~지닌 기능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사용된 맥락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은 유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능적 요인보다는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ㄹ. 교체 ~~토기의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으로 해석한다~~.

토기의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생태학적 관점이다.

31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전분 함량이 높은 곡물이 많아진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토기 두께가 변화했다고 설명한다.

토기 두께의 변화를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은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를 설명하는 진화 고고학적 입장이다. 생태학적 설명은 인간의 능동적 선택, 즉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좀 더 주목한 것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① 진화론적 관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생태학적 설명은 진화론적 관점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② 인간의 능동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두께가 얇은 토기가 오랫동안 사용된 원인을 인간의 능동적 선택에서 찾는 것이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생태학적 설명은 진화론적 관점에 근거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더 주목한 것이라고 하였다.

④ 두께가 얇은 토기가 오랫동안 사용된 원인을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선택에서 찾기도 한다.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해서는 두께가 얇은 토기가 오랫동안 사용된 원인을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능동적 선택에서 찾는 설명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32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 ~~나타나고~~

'축적되고'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가 모여서 쌓이고'라는 의미이므로,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고'라는 뜻의 '나타나고'가 아니라 '쌓이고'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오·이

① ⓐ: 늘어난다는

'증가한다는'은 '양이나 수치가 늘어난다는'의 의미이므로 '늘어난다는'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 일으킨

'초래한'은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한'이라는 의미이므로 '일으킨'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 짧아짐에

'단축됨에'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짧게 줄어듦에'의 의미이므로 '짧아짐에'로 바꿔 쓸 수 있다.

⑤ ⓔ: 얽매이는

'집착하는'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이라는 뜻이므로 '얽매이는'으로 바꿔 쓸 수 있다.

321 답 (1) 단축되다 (2) 축적되다 (3) 초래하다 (4) 집착하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짧게 줄어들다. (단축되다)

'단축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짧게 줄어들다.'라는 의미이다.

(2) 교체 지식, 경험, 자금 따위가 모여서 쌓이다. (축적되다)

'축적되다'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가 모여서 쌓이다.'라는 의미이다.

(3) 교체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 (초래하다)

'초래하다'는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4) 교체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 (집착하다)

'집착하다'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라는 의미이다.

32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완치율**: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비율.
- **불황**: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난다.

정·정·이

② 그 병은 완치율이 높다.

Ⓐ의 '높다'는 '값이나 비율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완치율이 높다.'에서 '높다'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오·이

① 교체 교실의 천장이 높다.

'천장이 높다.'의 '높다'는 '아래에서 위까지 벌어진 사이가 크다.'라는 의미이다.

③ 교체 우리들은 소리 높여 외쳤다.

'소리 높여 외쳤다.'의 '높다'는 '소리의 강도가 세다.'라는 의미이다.

④ 교체 내년에는 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의 '높다'는 '일어날 확률이 다른 것보다 크다.'라는 의미이다.

⑤ 교체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더니, 발이 아프다.

'굽이 높은 구두'의 '높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이다.

41 가 18세기 북학론 / 나 18세기 후반 청의 현실

지문 분석 본문 146~149쪽

가 18세기 북학론

주제 박제가와 이덕무가 내세운 북학론의 형성 배경과 견해 차이

해제 이 글은 18세기 북학파들이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점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북학론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언급하고, 중국(청)에 대한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북학파들의 (**북학론**)에 나타난 견해 차이
❷ (**박제가**)의 북학론
❸ (**이덕무**)의 북학론

나 18세기 후반 청의 현실

주제 18세기 후반 정점에 달한 청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불안 요인

해제 이 글은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중국의 번영과 위기를 대비하여 제시하며, 중국의 경제적 번영과 위기를 가져온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18세기**) 후반 청의 (**경제**)적 번영
❷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
❸ 통치자들의 불안으로 인한 서양과의 교역 (**축소**)

32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가)의 1문단에서는 18세기 북학파들의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점에 따라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반영되었음을 밝히고, 2문단에서 박제가의 견해를, 3문단에서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가)는 18세기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 중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제가와 이덕무의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나)는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던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나)에서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사상적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18세기 중국의 현실이 당시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324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가)는 북학론과 ~~친명파~~의 형성 배경을, (나)는 청의 시장의 ~~발전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 ⊗)

(가)에서 북학파인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의 형성 배경을 알 수 있으나, 친명파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18세기 후반 중국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시장의 발전 양상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2) 범위 오류 (가)는 18세기 북학론자들의 견해 차이를, (나)는 18세기 후반 ~~중국과 서양의 사회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

(가)에는 북학론자인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18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 번영 및 사회상에 대해 언급할 뿐 서양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3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박제가는 객관적 태도로 청에 대해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이덕무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청에 대해 기록하였다.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의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3문단에서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고 했다.

오·오·이

① 이덕무는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를 인정하였다고 했다.

② 박제가는 청의 현실을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식하였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박제가에게 청의 현실은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했다고 하였다.

③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물질적 삶에 대해 주자학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하였다.

(가)의 2문단에서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박제가는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3문단에서 이덕무도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⑤ 박제가는 조선과 명의 의리 문제는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덕무는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가)의 2문단에서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박제가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겼다고 했으며, 3문단에서 이덕무는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였다고 했다.

32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지양**: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정·정·이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이덕무는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로 볼 때 평등견은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짜깁기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이덕무는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평등견을,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짜깁기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이덕무는 평등견을 바탕으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로 볼 때 평등견을,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짜깁기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이덕무는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와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평등견은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보는 인식 태도이지, 풍토로 인한 청과 조선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짜깁기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이덕무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때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는 평등견의 시각에서 인식하는 태도를 가리키므로,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은 것은 평등견에서 벗어난 인식 태도라 할 수 있다.

327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청과 조선의 가치를 각각 인정한다.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했다.

ㄴ. 청과 조선은 구분되나 배타적이지 않다.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의 시각에서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했다.

오·오·이

ㄷ. 부재 청의 삶의 방식보다 조선의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우월성을 따지는 것은 평등견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32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군.

(나)의 2문단에 따르면 18세기 후반 청에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난 상황을 가리키는군.

인구가 증가하여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난 상황을 문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지식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가 정체되어 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② 상반 민간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었던 상황을 가리키는군.

(나)의 2문단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간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교체 위기감을 느낀 통치자들이 무역 개방을 축소한 것을 가리키는군.

(나)의 3문단에 통치자들이 경제적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즉 무역 개방 축소는 위기 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⑤ 부재 상호 부조 관계를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보다 중시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군.

(나)의 2문단에서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으며,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호 부조 관계를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보다 중시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2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간과**: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 **유통**: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
- **면모**: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또는 그 됨됨이.

정·정·이

④ 상반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나)의 1문단에서 은의 유입이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에서도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라며, 반나절이면 사라지는 약이나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지는 비단에 비해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가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보기〉에서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하고, 유생이나 재상도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서점과 시장에 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 즉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입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보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산물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국외로 산물을 팔아 은을 벌어들이는 일도 없다. 이러한 조선의 현실은 [A]에 제시된 이익을 추구하자는 실용적인 입장에서 청의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는 박제가의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보기〉에서는 중국인들이 활발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나)의 1문단에서도 당시 중국은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나)의 2문단에서는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었으며,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상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보기〉에는 당시 중국 관료 사회의 부정적 면모는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중국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30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시**: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김.

정·정·이

(1) 상반 중국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경시한다~~. (○, ⊗)

〈보기〉에서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중국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재 중국 관료들은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골동품을 이용했다~~. (○, ⊗)

〈보기〉에 중국 관료들은 부정부패 수단으로 골동품을 이용한다는 언급은 없다.

(3) 부재 우리나라에서는 은이 ~~많이 산출된다~~. (○, ⊗)

〈보기〉에서 약이나 비단과 달리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고 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은이 많이 산출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4) 상반 우리나라는 산물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

〈보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산물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나)에 제시된 통치자들의 태도를 참고할 때, 〈보기〉에 제시된 인재 등용을 이완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에 따른 것이겠군.~~

(나)에서 청의 통치자들이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통치자들이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인재 등용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보기〉에 제시된 허생이 돈을 불리는 모습은, (가)에서 이익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박제가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로 보아 허생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박제가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제시된 허생이 주장한 친명 정책에 대해, (가)의 이덕무는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겠군.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았으나 한편으로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덕무의 태도로 보아 허생이 주장한 친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가)의 평등견의 인식 태도를 참고할 때, 〈보기〉에 제시된 청과의 교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완의 모습은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 허생은 이완에게 청과의 교류를 제안했지만 이완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다. 청과 조선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는 평등견의 인식 태도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이완의 모습은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는 모습이라고 반응할 수 있다.

④ 〈보기〉에 제시된 조선 경제에 대한 허생의 인식으로 보아, 허생은 (나)에 제시된 청의 활발한 국내 교역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겠군.

허생은 물자가 한곳으로 몰리는 것을 이용해 돈을 벌고는 조선 경제의 취약점에 탄식한다. 따라서 (나)에 제시된 것처럼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청의 모습을 허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42 가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 / 나 과거제의 부작용과 개혁 방안

지문 분석

본문 150~153쪽

가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

주제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과 의의

해제 이 글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능력주의적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한 과거제의 합리성, 공정성, 연속성 등을 바탕으로, 과거제의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의 과거제에 대한 관심과 그 결과를 덧붙이고 있다.

한 줄 요약

1. 과거제의 (**합리성**)과 영향
2. 과거제의 (**공정성**)에 따른 효과
3.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
4. 과거제의 (**연속성**)에 따른 효과
5. (**과거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그 영향

나 과거제의 부작용과 개혁 방안

주제 과거제를 보완하려는 개혁론의 등장 배경과 의의

해제 이 글은 관료 선발 제도의 개혁론을 주장한 다양한 사상가들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과거제의 한계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이러한 개혁론이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합리적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보완하려는 시도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 줄 요약

1.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론**)
2. 과거제의 (**시험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
3.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
4.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지닌 의의

33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공시적**: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것.

정·정·이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가)의 3~4문단에서는 과거제가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기여하고,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내는 등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의 2~3문단에서는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이 등장한 이유로 과거제의 부작용을 들고 있다. 형식적 학습, 인재들의 재능 낭비 현상,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와 같은 과거제의 부작용을 제시한 뒤, 과거제로 임명된 관리들의 능력주의적 태도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가)와 (나)에는 과거제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교체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과거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가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나)에서 유형원, 고염무, 황종희 등 구체적인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과거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부재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과거제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을 뿐, 과거제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지 않다. (가) 또한 과거제가 미친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을 뿐, 과거제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가)는 과거제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을 뿐, 과거제의 발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나)는 과거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를 개혁하고자 했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을 뿐, 과거제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333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

(가)는 과거제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과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과거제 개혁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과거제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2) (가)는 특정 제도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효과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특정 견해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

(가)는 과거제의 합리성, 공정성, 연속성 등의 특징에서 비롯한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과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과거제 개혁론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33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나)는 (가)와 달리 과거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사상가들이 제안한 개혁론과 그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1문단에서는 과거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유형원, 고염무, 황종희가 제시한 방안을 소개하고, 2~3문단을 통해 과거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개혁론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나)와 달리 과거제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면서, 서구 각국이 과거제를 받아들인 다양한 양상을 언급하고 있다.

(가)의 2~4문단에서는 과거제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는 한편, 5문단에서 과거제에 대한 정보가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구 각국이 과거제를 받아들인 다양한 양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와 (나)는 모두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는 과거제가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과거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과거제의 부작용을 들어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한 개혁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가)와 (나)는 모두 과거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과거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상충되는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가)에서는 과거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과거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과거제를 보완하려는 개혁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 (나)에서 과거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과거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상충되는 견해를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과거제가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원인과 과거제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과거제의 장점을 바탕으로 과거제가 오랫동안 동아시아 사회에서 지속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나, 과거제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과거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과거제가 오랫동안 동아시아 사회에서 지속된 원인이나 과거제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3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된 기회를 주었다.

1~2문단을 통해 과거제는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과거제의 도입으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였다. 지방의 관료가 관리를 초빙하여 추천하는 제도는 과거제가 아니라, (나)의 1문단에서 황종희가 과거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벽소'에 해당한다.

오·오·이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1문단에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또한 5문단에서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고 하였다.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3문단에서 과거제는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4문단에서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고 하였다.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3문단에서 과거제는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 사상가들이 있었다.

5문단에서 일군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336 답 공정성, 유동성, 인성, 단기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교체 과거제는 (공정성, 세습성)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고정성,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학습 능력 이외의 (지성,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었고, 과거제로 임용된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가시적이고 (단기적, 장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가)의 2문단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2문단에서 과거제는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33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근간: ①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정·정·이

⑤ 상반 과거제는 응시 자격에 ~~전혀 제한이 없는~~ 일부 제한이 있었던 공개 시험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문단에서 과거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과거제는 합리성을 갖춘 능력주의적 관료 선발 제도였다.

1문단에서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였다.

② 과거제는 왕조가 교체되더라도 통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4문단에서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와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 기여했다고 하였다.

③ 과거제는 지위 획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2문단에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켰다고 하였다.

④ 과거제의 근간이 되는 학습 내용이 널리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영향을 주었다.

3문단에서 시험에서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고 했으므로,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3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보기〉의 '병'은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가)의 3문단에서 과거제가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과거제의 주된 학습 내용은 고전과 유교 경전이었으며, (나)의 2문단에서 과거제는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보기〉의 '갑'은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들도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이는 (가)의 2문단에서 과거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는 내용과 연관된다. 이로 볼 때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과거제가 지닌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성격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보기〉의 '을'은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는 (나)의 2문단에서 언급한 치열한 경쟁으로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보기〉의 '을'은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고 하였다. 이는 (가)의 3문단에서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이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는 내용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보기〉의 '병'은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라고 하였는데, 이는 (나)의 2문단에서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 즉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든다는 내용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3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을 –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이 약화됨~~.

(나)의 3문단에서 과거제 출신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을'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이 아닌,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많은 선비들이 과거를 준비하느라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오·오·이

① 갑 –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

'갑'이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도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가)의 2문단에서 과거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준다고 한 것

과 연결 지을 수 있다.

③ 병 –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기여함.

'병'이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 것은, (가)의 3문단에서 과거제가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3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누락**: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폐단**: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정·정·이

③ 짜깁기 '을'이 천거제를 통한 선발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누락되었음을 언급한 것은, 과거제가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치의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겠군.

'을'은 천거제에서 정작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천거제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얻기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의 2문단에 언급된, 과거제가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가)의 3문단에서 과거제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음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통치의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하지는 않았으며, '을'의 견해와도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갑'이 과거제로는 글재주 있는 자만 선발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과거제가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겠군.

'갑'은 과거 시험으로는 글재주 있는 자만 선발되어 그 사람의 행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나)의 2문단에서 과거제가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갑'이 천거제를 시행하되 과거 시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은, 과거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는 점에 주목한 것이겠군.

'갑'은 천거제를 시행하되, 천거를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과거 시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의 2문단에서 과거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을'이 천거제의 폐단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하며 과거제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제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겠군.

'을'은 천거제의 폐단이 생기는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하며 과거제를 천거제의 폐단을 거쳐 마련된 제도라고 긍정하고 있다. 이는 천거제가 기준이나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가)의 2문단에서 과거제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천거제로 과거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군.

'갑'은 과거 시험으로 그 사람의 행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천거를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을 위해 과거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을'은 과거 제도가 마련된 것은 천거의 폐단을 거친 뒤의 일이라며 천거제는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간혹 한 번 시행할 수는 있어도 항상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과 '을'은 모두 천거제로 과거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 예술 일반

43 공공 미술

지문 분석 본문 156~157쪽

주제 공공 미술의 변화 과정과 공공 미술가가 가져야 할 태도

해제 이 글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미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 미술의 개념을 제시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과 1990년대 이후의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미술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예술의 자율이 제한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술의 자율성과 소통 가능성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공공 미술가가 가져야 하는 태도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공공 미술)의 개념

❷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의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

❸ 1990년대 이후 (참여(과정)) 중심의 공공 미술

❹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공공 미술가가 가져야 하는 태도

34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장소~~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은 작품 창작에서 대중의 참여를 중요시하였다.

2~3문단에서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은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고, 이미 완성된 작품을 어디에 놓느냐에 주목하던 결과 중심의 수동적 미술이라고 하였으므로 대중의 참여를 중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중의 참여를 중요시한 것은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이다.

오·오·이

①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은 결과 중심의 미술이다.

3문단에서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은 이미 완성된 작품을 어디에 놓느냐에 주목하던 결과 중심의 수동적 미술이라고 하였다.

② 올덴버그의 「스프링」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작품이다.

1문단에서 「스프링」을 기획한 올덴버그는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여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이끌어 내려 했다고 하였다.

③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은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2문단에서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을 설명하면서 공공건물에 설치된 작품들은 한낱 건물의 장식으로 인식되어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이 공공장소로 확장되었으나, 공공장소에 놓이게 된 작품 중에는 주변 공간과 어울리지 않거나 미술가의 미학적 입장이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였다.

⑤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행위 및 활동은 공공 미술이라 할 수 있다.

1문단에서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 또는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행위 및 활동을 공공 미술이라 한다고 했다.

34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공공 미술에서 예술의 자율성과 대중과의 소통은 ~~배타적인 관계~~이다. (○, ⊗)

4문단에서 공공 미술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소통의 가능성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서로 배척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다.

(2)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은 완성된 작품을 어디에 놓느냐에 주목하였다. (⊙, ×)

3문단에서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은 이미 완성된 작품을 어디에 놓느냐에 주목하던 결과 중심의 수동적 미술이라고 하였다.

(3) 교체 공공 미술은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에서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로 전개되어 왔다. (○, ⊗)

2문단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공공 미술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를 점차 확장하는 쪽으로 전개된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1990년대 이후의 공공 미술은 대중을 작품의 창작 과정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전개된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공 미술은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에서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34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공공 미술에서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작품이 아닌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4문단에서 공공 미술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다가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미술가는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을 무시한 편협한 시각일 뿐 추상적이고 난해한 작품이라도 소통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하였고, 공공 미술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소통의 가능성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공공 미술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대중의 예술적 감성과 기대를 분석해야 한다.

4문단에서 공공 미술가는 예술의 자율성과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의 예술적 감성이 어떠한지, 대중이 어떠한 작품을 기대하는지 면밀히 분석하며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1980년대까지의 공공 미술은 작품의 설치 장소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2문단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공공 미술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를 점차 확장하는 쪽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③ 1990년대 이후의 공공 미술은 미술가와 대중, 작품과 대중 간의 소통을 중시하였다.

3문단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의 공공 미술은 참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대중을 작품 창작 과정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전개된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공공 미술은 미술가와 대중, 작품과 대중 사이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하였다.

⑤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에서 공공건물에 설치된 예술 작품들은 소통의 한계 때문에 공원 같은 공공장소로 설치 공간이 확장되었다.

2문단에서 공공건물에 설치된 작품들은 한낱 건물의 장식으로 인식되어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이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로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34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선지 어휘깡

- **호응**: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으로, 부름이나 호소 따위에 대답하거나 응함.
- **외면**: 어떤 사상이나 이론, 현실, 사실, 진리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함.

정·정·이

④ 공공 미술에서 미술가가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보기〉에서 공공 미술가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A]는 공공 미술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소통의 가능성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보기〉의 견해에 대해 공공 미술에서 미술가는 예술의 자율성, 즉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들은 대중에 의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다.

[A]와 〈보기〉 모두 공공 미술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공 미술이 대중에 의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A]의 입장이나 〈보기〉의 견해와 관련이 없다.

② 짜깁기 공공 미술 작품이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작품이라도 대중과의 소통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A]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을 무시하는 시각이라고 하였으므로, ②는 [A]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③ 짜깁기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작품에서 작가의 미학적 입장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A]에서는 공공 미술에서 미술가가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을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A]의 입장과 대립되는 내용이다. 또한 작가가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견해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보는 [A]의 입장과는 대립된다.

⑤ 상반 미술가의 생각을 작품에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대중이 난해하게 느끼면 이 작품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A]에서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작품이라도 대중과의 소통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⑤는 [A]의 입장과 대립된다.

34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의 폐기는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의 정~~격을 보여 주는군.

3문단에서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은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여 작품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 중심의 능동적 미술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시민들이 조각품 A(㉠)의 이전을 요구한 끝에 작품이 폐기된 것은 것은,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여 작품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은 공공 미술로서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1문단에서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을 공공 미술이라 한다고 했으므로, 광장에 설치된 조각품 A(㉠)는 공공 미술 작품으로서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의 작가의 미학적 입장은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했군.

2문단에서 공공장소에 놓이게 된 작품 중에는 주변 공간과 어울리지 않거나, 미술가의 미학적 입장이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였다. 시민들이 조각품 A(㉠)가 통행에 방해가 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이전을 요구한 것은 작가의 미학적 입장이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의 작가는 대중의 예술적 감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군.

4문단에서 공공 미술가는 예술의 자율성과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의 예술적 감성이 어떠한지, 대중이 어떠한 작품을 기대하는지 면밀히 분석하며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각품 A(㉠)가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한 것은 작가가 대중의 예술적 감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작가의 기획 의도와는 달리 대중과의 소통을 이끌어 내지 못했군.

조각품 A(㉠)의 작가는 광장의 특성과 위치를 고려하여 작품을 만들었지만, 대중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대중과의 소통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4 20세기 미술의 특징

지문 분석

본문 158~159쪽

주제 이전부터 이어져 온 미술의 다원성과 20세기 미술의 질적 차별성

해제 이 글은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관점에서 20세기 미술의 특징인 '무한한 다원성'을 설명하고 있다. 단토의 '미술 종말론'을 바탕으로 20세기 미술의 무한한 다원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 다음,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20세기 미술의 양상을 소개하며 이것이 르네상스 미술,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낭만주의 미술에서 이어져 온 일관된 흐름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미술이 이전 시대의 미술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으로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20세기 미술의 무한한 다원성과 단토의 '(**미술 종말론**)'

❷ 작품의 형식이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 있던 (**르네상스**) 미술

❸ 작품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진 17~20세기 미술

❹ 단토가 주목한 20세기 미술의 (**질적 차별성**)

34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체**: 사물이 발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그침.

정·정·이

③ 인과 오류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1문단에 따르면 20세기 미술은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을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 즉 미술을 정의하는 종래의 기준이 해체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다. 20세기 미술을 설명하는 단토의 '미술 종말론'(㉠)에서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오·이

①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3문단에서 20세기 미술은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고 했으므로,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자연 그대로의 사물을 전시하는 것도 작품 창작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4문단에서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자연 그대로의 사물을 전시하는 것도 작품 창작 행위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④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본질적이다.

4문단에서 단토가 주목하는 것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미술의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단토는 20세기 미술과 과거의 미술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20세기 미술의 특징을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1문단에 따르면 20세기 미술은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하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347 답 ㄱ,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무한한 다원성을 특징으로 한다.

1문단에서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고 하였다.

ㄴ. 빈 캔버스나 자연물, 기성품도 작품이 될 수 있다.

4문단에서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ㄷ.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가 정점에 이르렀다.

3문단에서 20세기 미술은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오·이

ㄹ. 상반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구분해 주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1문단에서 20세기 미술은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34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르네상스 화가들은 형식의 자율화를 추구하였다.

2~3문단에서 르네상스 화가들은 작품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주문된 내용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고 하면서, 이를 형식의 자율화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르네상스 화가들이 형식의 자율화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짜깁기 현대 미술은 비평 없이는 ~~작품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4문단에서 현대 미술에서 비평이 중요시되는 까닭이 미술 작품에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비평 없이는 작품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이해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③ 상반 현대 미술에서는 ~~전시적~~ 비전시적 요소가 작품의 자격을 결정한다.

4문단에 따르면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한다. 이를 통해 현대 미술에서 작품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전시적 요소가 아니라 비전시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④ 교체 예술가의 자율적인 이미지 창출은 ~~19세기 낭만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르네상스 때도 이루어졌다.

2문단에서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19세기 낭만주의 이전에도 예술가들이 자율적인 이미지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부재 화가의 서명은 ~~주문에 따른 제작을 거부한 예술가들의 저항 의식의 표출~~이었다.

2문단에 따르면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이지, 주문에 따른 제작을 거부한 저항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34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고정 관념**: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 **즉흥적**: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감흥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 **창출**: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

정·정·이

① 뒤샹의 「샘」은 소변기에 서명을 하여 전시함으로써 일상품도 이론적 해석에 따라 미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뒤샹의 「샘」은 내용·형식·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론적 해석과 같은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소변기라는 일상품이 미술 작품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한 행위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짜깁기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그림에 벽지를 덧붙여 회화를 3차원화함으로써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한 작품이다.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그림에 벽지를 덧붙인 것, 즉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짜깁기 폴록의 「1950년 32번」은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려 즉흥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의 표현을 시도한 작품이다.

폴록의 「1950년 32번」은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린 것, 즉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짜깁기 칸딘스키의 「콤퍼지션 Ⅶ」은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 대신 추상적인 색·선·형태만으로 작가의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순수 이미지의 언어적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칸딘스키의 「콤퍼지션 Ⅶ」은 색·선·형태, 즉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짜깁기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수많은 네모 무늬로 수직·수평의 율동적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뉴욕의 활기찬 생활과 음악적 리듬감의 표현을 추구한 작품이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수많은 네모 무늬, 즉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②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그림에 벽지를 덧붙여 회화를 3차원화함으로써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한 작품이다.
③ 폴록의 「1950년 32번」은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려 즉흥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의 표현을 시도한 작품이다.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 사례로는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로 미술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해요. ②와 ③은 '고정 관념에서 탈피', '즉흥적 이미지를 창출'과 같은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주목해야 해요. '그림에 벽지를 덧붙여',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려'와 같이 작품을 만든 방법에만 주목하여 선지를 살펴보면 정답과 오답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35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착용: 의복, 모자, 신발, 액세서리 따위를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차거나 함.

정·정·이

① 호흐의 「금화 무게를 다는 여인」의 인물은 당대 네덜란드 여성들이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주로 착용하던 형태의 재킷을 입고 일하고 있다.

'내용의 자기 중심화(ⓐ)'는 신이나 성인을 그리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친근한 일상을 그리는 것, 내면의 무한한 표출 등을 말한다. 평범한 인물이 일상복을 입고 일하고 있는 모습은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오·이

② 짜깁기 라파엘로의 「요정 갈라테이아의 승리」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주제로 한 벽화인데, 많은 인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대칭적인 구도로 균형 있게 표현하였다.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짜깁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신화 속 바의 여신인 비너스가 지상에 상륙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비너스를 반기는 숲속 요정의 옷 등을 우아하고 장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신화 속 여신과 요정을 그린 그림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짜깁기 루벤스의 「줄리에의 승리」에서 여왕은 말을 탄 여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화려한 투구와 군대 지휘봉, 월계관을 든 승리의 여신 등을 통해 여왕의 당당함이 강조되고 있다.

여신의 모습을 등장시켜 전쟁에서 승리한 여왕의 권위와 위풍당당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짜깁기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황금 접시 봉헌」은 황제가 대주교에게 황금 접시를 봉헌하는 장면을 그린 모자이크화로, 황금빛 배경을 사용하여 황제의 절대적 권위를 표현하였다.

황제의 권위를 표현한 작품으로, 친근한 일상을 그리는 ⓐ와는 관련이 없다.

45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

지문 분석 본문 160~163쪽

주제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과 그 의의

해제 이 글은 예지계와 현상계의 관계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생각을 밝히며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피타고라스의 균제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예지계와 현상계가 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예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관점을 설명한 다음,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서양 미학의 하나의 전통이 된 (**균제 이론**)

❷ 균제 이론에 반론을 제시한 (**플로티노스**)

❸ (**유출**)과 (**테오리아**)의 개념을 통해 예지계와 현상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본 플로티노스

❹ (**예지계**)와 (**현상계**)의 연결을 바탕으로 한 플로티노스의 미에 대한 견해

❺ (**예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입장

❻ (**테오리아**)의 개념과 예술의 역할

❼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이 지니는 의의

35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플로티노스가 ~~분류한 예술의 유형~~

이 글은 플로티노스가 예술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미에 대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인식

1문단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③ 균제 이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시각

2문단에 따르면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균제를 이루지 않는 단순한 색이나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내세우며 균제 이론을 비판하였다. 또한 행동이나 법률과 같은 비물질적인 특질에 어떻게 균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반문하였다.

④ 플라톤과 플로티노스 예술관의 차이

5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였지만, 플로티노스는 아름다움이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예술을 모방의 모방이 아니라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⑤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이 지니는 의의

7문단에서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은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하게 했으며, 낭만주의와 현대 추상 회화의 근본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다.

352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플라톤~~(플로티노스)은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 ⊗)

5문단에서 플로티노스가 아름다움이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했다.

(2) 피타고라스 학파는 미는 수적 비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 ×)

1문단에서 피타고라스는 수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고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균제 이론을 내세웠다고 하였다.

(3) 상반 플로티노스는 균제 이론을 ~~계승한~~(반박하며) 새로운 미학 이론을 주장했다. (○, ⊗)

2문단에서 플로티노스는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플로티노스는 균제 이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균제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은 중세 비잔틴 예술의 탄생에 영향을 끼쳤다. (⊙, ×)

7문단에서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은 인간의 영혼과 초월적인 존재의 신성함을 표현하려 했던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하게 했다고 하였다.

35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피타고라스는 ~~비물질적인 특질에 어떻게 균제를 적용했는가?~~

피타고라스가 비물질적인 특질에 어떻게 균제를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2문단에서 플로티노스는 이와 관련하여 피타고라스의 균제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오·오·이

① 미의 본질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문단에서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② 피타고라스는 무엇을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는가?

1문단에서 피타고라스는 수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③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은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7문단에서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은 예술가의 내면, 나아가 그 원형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했다.

⑤ 플라톤은 예술이 예지계, 현상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는가?

5문단을 통해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며, 예술을 예지계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차등**: 고르거나 가지런하지 않고 차별이 있음. 또는 그렇게 대함.

정·정·이

⑤ 부재 ⓐ, ⓑ, ⓒ의 예지계와 ⓓ, ⓔ의 현상계는 ~~정신에 의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3~4문단에 따르면 일자(ⓐ), 정신(ⓑ), 영혼(ⓒ)은 비물질적인 예지계를 구성하고, 자연(ⓓ), 질료(ⓔ)는 현상계를 구성한다. 유출은 예지계에서 현상계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며 위계질서를 가진다. 또한 6문단에서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통해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예지계의 일자로 회귀하는 것을 테오리아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예지계와 현상계가 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플로티노스의 주장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 예지계와 현상계가 정신에 의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의 속성은 위계적 차등에 따라 ⓑ, ⓒ, ⓓ, ⓔ로 전해진다.

4문단에서 일자(ⓐ)에서 정신(ⓑ), 영혼(ⓒ), 자연(ⓓ), 질료(ⓔ)로의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으며 위계질서를 가진다고 하였다.

② ⓐ에 가까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미, 추를 판단할 수 있다.

4문단에서 일자(ⓐ)에서 질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미에서 추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일자(ⓐ)에 가까운 정도를 기준으로 미, 추를 판단할 수 있다.

③ ⓐ~ⓔ는 동일성을 함유하면서 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4문단에 따르면 일자(ⓐ)에서 정신(ⓑ), 영혼(ⓒ), 자연(ⓓ), 질료(ⓔ)로의 유출은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고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유출로 연결된 일자(ⓐ), 정신(ⓑ), 영혼(ⓒ), 자연(ⓓ), 질료(ⓔ)는 동일성을 함유하면서 질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유출은 ⓐ에서 ⓔ로, 테오리아는 ⓔ에서 ⓐ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3문단에 따르면 일자(ⓐ)로부터 정신(ⓑ), 영혼(ⓒ), 자연(ⓓ), 질료(ⓔ)들이 순차적으로 유출된다. 그리고 6문단에서 테오리아는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에게로 회귀하는 상승 운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출은 일자(ⓐ)에서 질료(ⓔ)로, 테오리아는 질료(ⓔ)에서 일자(ⓐ)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④ 유출은 ⓐ에서 ⓔ로, 테오리아는 ⓔ에서 ⓐ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⑤ ⓐ, ⓑ, ⓒ의 예지계와 ⓓ, ⓔ의 현상계는 **정신**에 의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지문과 선지 내용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지문에서 대상(개념, 현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 이를 중심으로 선지의 적절성을 파악해 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일자, 정신, 영혼, 자연, 질료'의 관계와 '유출', '테오리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3~4문단과 '순차적', '위계질서', '단계', '회귀하는 상승 운동' 등의 표현이 쓰인 6문단의 내용을 보면 '상호 보완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요? '상호 보완적'보다는 '방향성'이 더 관련이 있는 표현이므로 ④는 적절한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55 답 (1) 일자 (2) 예지계 (3) 테오리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일자, 질료)에 가까워질수록 미에 가까워진다.

4문단에서 미는 마치 빛이 그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약해지듯이, 일자에서 질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추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하였다.

(2) 교체 비물질적인 (예지계, 현상계)는 일자, 정신, 영혼으로 구성된다.

3문단에서 일자, 정신, 영혼 이 세 가지 존재자들이 비물질적인 예지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3) 교체 질료로부터 일자에게로 회귀하는 상승 운동을 (유출, 테오리아)(이)라고 한다.

6문단에서 일자로부터의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에게로 회귀하는 상승 운동이 '테오리아'라고 하였다.

35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예술은 ~~현상계의 감각적 경험에서 도출한 관념상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

5문단을 통해 플로티노스는 예술이란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선험적 관념상, 즉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현상계의 경험에서 도출한 관념상을 형상화하는 것은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된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이므로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예술은 예지계와 현상계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5문단에서 플로티노스에게 예술은 예지계와 현상계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예술은 선험적 관념상을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이다.

5문단에서 예술은 선험적 관념상, 즉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라고 하였다.

④ 일자에서 순차적으로 유출되는 존재들은 낮은 단계로 갈수록 미에서 추에 가까워진다.

3~4문단에 따르면 만물은 일자로부터 정신, 영혼, 자연, 질료들로 순차적으로 유출된다.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위계질서가 있으며, 질료는 가장 낮은 단계이다. 이러한 플로티노스의 주장에 의하면 미는 일자에서 질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추에 가까워지게 된다.

⑤ 예술은 인간의 영혼이 현상계를 벗어나 예지계에 있는 일자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된다.

6문단에서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디딤돌이라고 보았다고 하였다.

35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짜깁기 플라톤은 비너스 석상은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한 것으로 ~~현~~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간에게 이데아계를 지향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인정했겠군.

5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기〉의 비너스 석상에 대해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한 것이라고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플라톤은 예술을 예지계(이데아계)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시켰는데, 이는 예술 작품이 인간에게 이데아계를 지향하게 한다는 관점과 거리가 멀다. 예술을 인간의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본 플로티노스의 입장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피타고라스는 비너스 석상이 황금 비율이라는 수적 비례를 지켰기에 미의 본질을 구현했다고 평가했겠군.

1문단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보기〉의 비너스 석상에 대해 황금 비율이라는 수적 비례를 지켜 미의 본질을 구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②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데아계의 여신을 비너스 석상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았겠군.

3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플라톤은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여신과 예술 작품인 〈보기〉의 비너스 석상을 동일시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플로티노스는 비너스 석상이 감상자로 하여금 일자로 회귀하는 테오리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겠군.

6문단에 따르면 일자로부터의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에게로 회귀하는 상승 운동을 '테오리아'라고 하는데, 플로티노스는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 예술을 중시하였다. 이로 볼 때 플로티노스는 〈보기〉의 비너스 석상이 감상자에게 일자로 회귀하는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존재로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⑤ 플로티노스는 돌을 질료로 하여 예술가가 자신의 영혼에 내재된 미를 비너스 석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했겠군.

5문단을 통해 플로티노스는 미의 형상은 본래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예술가의 영혼에도 정신의 속성인 미의 형상이 내재해 있으며, 이때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질료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영혼에 내재된 미의 형상을 질료에 실현시키는 것이라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358 답 (1) 플라톤 (2) 플로티노스 (3) 피타고라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예술은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하는 것이다. (플라톤)

5문단에서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고 하였다.

(2) 교체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질료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플로티노스)

5문단을 통해 플로티노스는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질료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미는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인 법칙이다. (피타고라스)

1문단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했다.

35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예술의 본질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관념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본 점

5문단에 따르면 플로티노스는 예술이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하는 것이며, 선험적 관념상을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 칸딘스키는 예술을 통해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로티노스와 칸딘스키 모두 예술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은 관념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질료를 통해 물질화할 수 없다고 본 점

5문단에 따르면 플로티노스는 예술은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하는 것이며, 예술가의 영혼에 내재해 있는 미의 형상을 질료에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플로티노스는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질료를 통해 물질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을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하는 것으로 본 칸딘스키의 견해도 플로티노스와 유사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② 부재 예술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형이상학적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본 점

이 글을 통해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자신의 근원인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디딤돌이라고 보았음을, 〈보기〉를 통해 칸딘스키는 예술을 형이상학적 관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형이상학적 깨달음과 예술의 관련성은 이 글과 〈보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③ 교체 객관적인 법칙이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될 때 미적 가치가 피타고라스 학파 구현될 수 있다고 본 점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플로티노스나 칸딘스키의 예술관이 아니라, 1문단에서 언급된 피타고라스 학파의 견해에 해당한다.

④ 상반 초월적인 존재의 미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감각적 미를 탈피~~해야 한다고 본 점

6문단에서 플로티노스는 영혼에 정신의 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감각적인 미라고 하였고, 예술을 통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감각적 미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플로티노스의 예술관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보기〉에서 칸딘스키의 추상은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지, 감각적 미를 탈피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360 답 (1) ○ (2) × (3) × (4) ○ (5)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칸딘스키는 예술이란 형이상학적 관념을 구현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보기〉에서 칸딘스키에 있어 예술은 형이상학적 관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교체 칸딘스키는 예술이란 ~~사물을 단계적으로 단순화하여 그 본원적 모습을 밝히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 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 ×)

〈보기〉에서 칸딘스키의 추상은 사물의 단계적 단순화로 시작하여 종국에 그 본원적 모습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3) 교체 ~~플로티노스~~ 피타고라스는 예술이란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균제 이론을 내세운 것은 피타고라스이며, 플로티노스는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플로티노스는 일자에서 비롯된 미의 형상을 발견해 질료에 담는 행위를 예술이라고 보았다. (○, ×)

5문단에서 플로티노스는 예술이란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질료에 실현시키는 것이며, 선험적 관념상(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6문단을 통해 플로티노스는 영혼의 근원이 일자이며, 영혼에 정신의 미가 존재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자에서 비롯된 미의 형상을 질료에 실현시키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5) 플로티노스는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

6문단에서 플로티노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6 가 계몽주의 나 표현주의

지문 분석

본문 164~167쪽

가 계몽주의

주제 계몽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

해제 이 글은 계몽주의를 비판한 아도르노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 때문에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 줄 요약

1. 이성을 중시한 계몽주의와 이를 비판한 (**아도르노**)의 입장
2. 계몽의 전개 과정 ① – (**자연**)에 대한 지배
3. 계몽의 전개 과정 ② – (**인간**)에 대한 지배
4. 계몽의 전개 과정 ③ –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5. 근대 문명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계몽**)의 전개 과정

나 표현주의

주제 표현주의의 특징 및 의의

해제 이 글은 이성에 대한 회의감과 인간 실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한 예술 운동인 표현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표현주의**)의 등장 배경
2.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려고 한 표현주의 회화
3. (**표현주의**) 회화의 특징
4. 표현주의의 (**의의**)

36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근대 사회에서 지배 논리로 전화된 이성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비판적으로 본 아도르노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에서 이를 비판하며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등장한 표현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가)의 3문단에 언급된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이나 (나)의 1문단에 언급된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 등은 근대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와 (나) 모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가)는 계몽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 아도르노의 견해에 따라 근대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 점, 인간이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하게 된 점 등을 비판하고 있을 뿐,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 않다. 한편 (나)는 이성에 대한 회의감과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했던 예술 운동인 표현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예술적 관점에서 근대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을 뿐, 근대 사회의 특성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부재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을 이어 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가)의 2문단을 보면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과학 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다.'에서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이어 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나)에는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6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중립적**: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에 서는 것.

정·정·이

② 비판적

(가)에서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 과정으로 인해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면서, 근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의 표현주의는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이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등장한 예술 운동이라는 점에서, 근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낙관적

③ 교체 중립적

아도르노나 표현주의는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근대 이성을 맹신하는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낙관적(①) 태도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에서는 중립적(③) 태도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36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와 (나) 모두 특정 인물의 견해를 인용하여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의 1문단과 5문단에서 아도르노의 견해를 인용하여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가)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의 2문단에서도 마티스의 주장을 인용하여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한 표현주의에 대해 설명하는 (나)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가)와 달리 (나)는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의 5문단에서 지배 논리로 전화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을 들고 있다.

② 부재 (나)와 달리 (가)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와 (나) 모두 두 가지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가)는 계몽주의가 근대 사회의 파국을 가져왔다고 보고 계몽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아도르노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전쟁과 물질문명의 폐해를 경험한 유럽인들이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등장한 표현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두 가지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가)와 (나) 모두 통념의 한계를 언급한 후 그 극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이성을 맹신한 기존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으나, 그 극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36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마티스에 의하면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마티스는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오·오·이

① 근대 이성에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의 1문단에서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 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②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예술 운동이다.

(나)의 1문단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 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④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까지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의 4문단에서 표현주의는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고 하였다.

⑤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었다.

(나)의 2문단에서 표현주의 회화에 대해 설명하며, 표현주의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65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다루었다.

(나)의 3문단에서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화폭에 담아내었다고 하였다.

ㄷ. 표현주의 화가 마티스는 표현은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나)의 2문단에서 표현주의는 화가인 마티스는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했다고 하였다.

오·오·이

ㄴ. 교체 표현주의는 회화의 영역을 인간의 내면에서 대상의 외면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의 4문단에서 표현주의는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고 하였다.

36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역행**: 보통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아감.

정·정·이

③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성의 아래 야만의 싹이 자란다는 것은 계몽의 전개 과정에서 이성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됨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폭력적 지배를 당하게 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계몽에 대해 반대하면서 ~~구시대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옹호~~하고 있다.

(가)에 아도르노가 구시대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옹호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부재 근대 과학 혁명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신화적 상상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의 2문단을 보면 근대 과학 혁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도르노가 신화적 상상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짜깁기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의 집단적 참여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인간에 대한 폭력적 지배,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상반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6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	Ⓑ
②	인간에 대한 지배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보기〉에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세이렌의 제물이 되지 않고 섬을 무사히 지난 것은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부하들은 오로지 노만 젓게 하였다(Ⓐ). 즉 부하들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은 것(Ⓑ)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인 내적 자연을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기고 인간 스스로 억압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	Ⓑ
①	교체	인간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
③	교체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④	교체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
⑤	교체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세이렌의 제물이 되지 않고 섬을 무사히 지난 것에 대응하므로 Ⓐ나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의 3문단에서 '인간에 대한 지배'는 개인이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하들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노를 젓는 Ⓐ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끝으로 (가)의 4문단에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는 스스로 감정이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디세우스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돛대에 몸을 묶은 Ⓑ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368 답 (1) 자연 (2) 오디세우스 (3) 부하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하는 세이렌은 (자연, 인간)의 위협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을 유혹해 제물로 삼는 세이렌을 자연의 위협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2) 교체 (오디세우스, 부하들)은/는 내적 자연을 스스로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67번-②의 해설을 참고하여 볼 때,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오디세우스의 행동은 내적 자연에 해당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교체 (오디세우스, 부하들)은/는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에 해당한다.

367번-②의 해설을 참고하여 살펴볼 때, 부하들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6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나): 강물의 검은색은 물질문명의 병폐로 인해 오염된 유럽의 현실이 회화적 전통에 따라 사실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 것

(나)의 2문단에서 표현주의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고 했다. 또한 3문단에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 작품의 검은색 강물은 오염된 강물의 실제 색이 사실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고통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오·이

① (가):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 온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작가가 〈보기〉의 작품에서 나타내려고 한 감정은 존재의 허무감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이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감정이나 욕망과 같은 인간의 내적 자연이 근대 이성에 의해 억압되어 왔다고 보았다.

② (나):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나)의 1문단을 통해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와 같은 근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표현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기〉의 작품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 꿈틀거리는 강물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해골의 형상으로 표현한 이유는 작가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상자가 느끼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군.

(나)의 3문단에서 표현주의는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기〉의 작품에서 강물이 꿈틀거리는 모습(③)이나 사람의 얼굴을 해골 형상으로 표현(④)한 것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 영역의 경우, 〈보기〉에 구체적인 작품을 자료로 제시하고 지문의 관점을 적용하여 감상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이때 대체로 〈보기〉에 작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포착해야 할 특징을 함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보기〉의 설명을 집중해서 읽어야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답니다.

47 가 예술의 정의 / 나 예술 작품 비평 방법

지문 분석

본문 168~171쪽

가 예술의 정의

주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쟁

해제 이 글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고 본 모방론은 18세기 말에 낭만주의 사조가 등장하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이후 20세기 초에 등장한 표현론과 형식론,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예술 정의 불가론과 제도론 등 예술에 대해 규정한 여러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예술의 정의에 대한 (**모방론**)의 견해와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
2. 20세기 초 콜링우드의 (**표현론**)과 벨의 (**형식론**)
3. 20세기 중반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
4. 20세기 중반 디키의 (**제도론**) 및 예술의 정의에 관한 논의들이 지닌 의미

나 예술 작품 비평 방법

주제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

해제 이 글은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하는 예술 비평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비평 방법으로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예술 작품의 (**감상**)과 (**비평**)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2. 작품의 외적 요소를 중시한 (**맥락주의**) 비평
3. 맥락주의 비평에 대한 비판과, 작품의 형식적 요소를 중시한 (**형식주의**) 비평
4. 비평가의 자유 의지를 중시한 (**인상주의**) 비평

37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대안**: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

정·정·이

④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가)는 '예술의 정의'를 화제로 다루고 있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모방론을 설명하고, 낭만주의 사조의 등장으로 모방론이 쇠퇴함에 따라 낭만주의 예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뒤, 이를 해결하는 미학 이론으로 표현론과 형식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뒤샹의 「샘」을 둘러싼 예술에 대한 논쟁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예술 정의 불가론과 제도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술에 대한 감상 및 비평 방법'을 화제로 다루고 있다.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화제와 관련한 여러 이론들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립하는 관점들이 하나로 정리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가)와 (나)에는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가)와 (나)에서는 다루고 있는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가)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나)에는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비평 방법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지도 않다.

371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있고, (나)는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비평 방법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가)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이론을 18세기 말에 쇠퇴한 모방론, 20세기 초의 표현론과 형식론, 20세기 중반의 예술 정의 불가론과 제도론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 방법으로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2)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비평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특정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 ⊗)
(나)의 4문단에서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인상주의 비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비평가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37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는 모방론 이후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들을 통시적으로, (나)는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비평 이론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는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들로 모방론 이후 표현론, 형식론, 예술 정의 불가론, 제도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나)와 달리 예술 작품에 대한 두 이론의 상반된 성격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가)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을 뿐, 예술 작품에 대한 두 이론의 상반된 성격을 비교·분석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특정한 하나의 이론에 대해 여러 사상가가 보인 다양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다양한 비평 방법과 그 특징을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한 하나의 이론에 대해 여러 사상가가 보인 다양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예술론이 당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특정 예술론이 당대 사회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가)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나)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을 바탕으로 예술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가)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관점인 모방론을 설명하고, 모방론이 쇠퇴한 이후 등장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이론을 소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예술 작품의 비평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을 바탕으로 예술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37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의 2문단에서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을 예술 작품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오·오·이

② 교체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

(가)의 2문단에서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③ 교체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더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콜링우드의 표현론)

(가)의 2문단에 제시된 콜링우드의 표현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짜깁기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가)의 2문단에서 형식론은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⑤ 짜깁기 특정한 사회 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한다.
(디키의 제도론)

(가)의 4문단에서 디키의 제도론은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374 답 ㄱ, ㄷ,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의 고유 형식을 중시한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형식론은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한다.

ㄷ. '의미 있는 형식'은 예술 작품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가)의 2문단에서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고 하였다.

ㄹ.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예술 작품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가)의 2문단에서 형식론에서는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예술 작품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오·오·이

ㄴ. 교체 진정한 예술 작품은 정신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콜링우드의 표현론)

형식론이 아닌 표현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콜링우드는 표현론을 제시하며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라고 하였다.

37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만~~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나)의 2문단에서 맥락주의 비평의 비평가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하였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표현론은 예술의 조건으로 진지한 관념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제시한다.

(가)의 2문단에서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였다고 했다.

② 모방론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가)의 1문단에서 모방론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④ 인상주의 비평가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비평하는 것이다.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⑤ 제도론에서 예술 작품이란 예술계에 속하는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말한다.

(가)의 4문단에 언급된 디키의 제도론에서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37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짜깁기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가)의 4문단에서 디키의 제도론은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한다고 하였고,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가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은, 「그리움」이라는 작품이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았다거나 절차와 관례를 거친 것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디키의 관점을 적용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군.

(가)의 2문단을 보면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은 신발을 그린 작품 「그리움」을 통해 화가 A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비평할 수 있다.

③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팸플릿 정보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겠군.

(나)의 2문단에서 맥락주의 비평가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하였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음.'이라는 팸플릿 정보를 근거로, 「그리움」에 그려진 아버지의 낡은 신발을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이 그림은 우수한 작품임을 언급할 수 있겠군.

(나)의 3문단에서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이 그림이 우수한 작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⑤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림 속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겠군.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인상주의 비평이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상주의 비평가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림 속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 없이 비평가 자신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다는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

377 답 (1) 프랑스 (2) 프리드 (3) 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작품을 비평함. (프랑스)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은 (나)의 4문단에서 설명하는 인상주의 비평으로, 인상주의 비평가로 프랑스가 제시되었다.

(2) 교체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품을 비평함. (프리드)

(나)의 3문단에서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하였다. 또한 프리드를 비롯한 형식주의 비평가들의 주장을 언급하며 형식주의 비평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3) 교체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작품을 비평함. (텐)

(나)의 2문단에서 맥락주의 비평가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하였다.

37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괴한**: 외관이나 분위기가 괴상하고 기이한.
- **갈구**: 간절히 바라며 구함.

정·정·이

④ 짜깁기 B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작품의 형식적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시~~한 것이겠군.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형식주의 비평에 해당한다. (나)의 4문단에서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인상주의 관점에 따르면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겠군.

(나)의 2문단에서 맥락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겠군.

(나)의 2문단에서 맥락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이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겠군.

(나)의 4문단에서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B에서 '희망을 갈구하는'이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반영된 것이겠군.

(나)의 4문단에서 인상주의 비평(㉡)은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II 건축

48 건축에서 공간의 개념

지문 분석 본문 172~173쪽

주제 건축의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해제 이 글은 건축의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구체적인 건축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1900년대 중반까지 기능주의 건축에서는 공간을 기능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 공간 구성이 일률적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건축에서는 공간을 가변적인 대상이자,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처럼 효율 지향의 근대적인 가치관을 드러낸 기능주의 건축에서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서의 건축 경향으로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건축에서 공간의 개념 및 공간을 기능을 위한 도구로 본 (**기능주의**) 건축
❷ (**기능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물 – 로스하우스
❸ 공간을 (**가변적**) 대상이자 (**예술적**), (**감성적**)으로 보는 새로운 경향
❹ 기능주의 건축의 공간 인식을 (**탈피**)한 대표적 건축물 - 로젠탈 현대미술센터
❺ 건축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37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정·정·이

③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1~2문단에서는 공간을 기능을 위한 도구로서 여겼던 기능주의 건축에 대하여 소개하고, 3~4문단에서는 공간을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지니는 가변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건축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글은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공간을 기능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견해와 공간을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대상이자,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공간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공간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공간의 속성을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부재 특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의 원리를 밝혀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특정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의 구성 원리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⑤ 부재 다양한 사례를 종합하여 공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문단과 4문단에 건축물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 사례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380 답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 '로스하우스', 4문단에서 '로젠탈 현대미술센터'가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ㄹ. 화제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를 대비하고 있다.
공간을 기능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견해와 공간을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대상이자,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대비되어 있다.

오·오·이

ㄱ. 부재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이 글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ㄷ. 부재 대상이 완성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특정 대상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38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포괄**: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

정·정·이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특정 견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문단에서 '로스하우스'를 예로 들어 기능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4문단에서 '로젠탈 현대미술센터'를 예로 들어 기능주의 건축의 공간 인식을 탈피하려는 건축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유사한 여러 개념들을 해석하고 종합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 글은 유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수렴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며 각 이론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건축에서 공간 개념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소개하고 있을 뿐,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며 각 이론의 특성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현실의 문제를 지적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두 개념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한 후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두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8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극대화**: 아주 커짐. 또는 아주 크게 함.

정·정·이

① 짜깁기 A씨가 계단형의 비정형적인 건물을 지은 것은 주거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로군.
〈보기〉의 건물은 크기와 비례가 다른 공간들을 자유롭게 결합한 건물이다. A씨가 계단형의 비정형적인 건물을 지은 것은 3문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인 대상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간이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는 관점과 관련된다. 주거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은 공간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건축에 해당하므로, A씨가 이러한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② A씨가 건물의 전면에 대형 유리창을 설치한 것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로군.
건물의 전면에 대형 유리창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이 정원과 연결되도록 한 것은 3문단에서 말하는 공간의 가변성과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연속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A씨가 목재로 외벽을 꾸민 것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공간이 감성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 것이로군.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로 외벽을 꾸며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한 것은 3문단에서 말하는 공간을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A씨가 벽을 미닫이로 만들어 공간을 변형할 수 있게 한 것은 공간을 가변적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로군.

미닫이로 공간을 변형할 수 있게 한 것은 3문단에서 말하는 공간을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대상으로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A씨가 크기와 비례가 다른 공간을 자유롭게 결합한 것은 공간 체험자가 공간의 상대성을 통해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로군.

크기와 비례가 다른 공간들을 자유롭게 결합한 것은 4문단의 '로젠탈 현대미술센터'처럼 공간 체험자가 공간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8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로스하우스'의 건물 내부가 박스형 공간 구성을 하고 일체의 장식이 배제된 것은 공간을 기능적 도구로서의 의미로 보았기 때문이군. (○, ×)

1~2문단에 따르면 '로스하우스'는 기능주의 건축의 표본으로, 공간은 기능을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건축물이다.

(2) 전면이 유리로 처리된 '로젠탈 현대미술센터'의 로비가 외부의 보행로와 연결되어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은 공간을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인 대상으로 본 것이군. (○, ×)

'로젠탈 현대미술센터'의 로비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연결하여 통로, 전시실, 공원, 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한 것으로, 공간을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대상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짜깁기 〈보기〉의 A씨가 지은 건물 전면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은 내·외부 공간을 ~~엄격하게 차폐하는 경계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

〈보기〉의 건물에서 전면에 대형 유리창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이 정원과 연결되도록 한 것은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공간의 가변성과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A씨가 지은 건물의 대형 유리창은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엄격하게 차폐하는 경계 요소가 아니다. 경계 요소에 의해 내·외부 공간이 엄격하게 차폐되는 형태는 기능주의 건축의 특징이다.

49 바실리카식 성당

지문 분석 본문 174~175쪽

주제 바실리카식 성당의 구조 변화 및 의의

해제 이 글은 바실리카식 성당의 변화와 바실리카식 성당이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다. 먼저 유럽 성당의 기본 건축 양식인 바실리카 형식을 소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바실리카식 성당의 변화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바실리카식 성당이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 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바실리카식) 성당의 유래
❷ (초기)의 바실리카식 성당의 모습
❸ (바실리카식) 성당의 변화
❹ (절정기) 바실리카식 성당의 특징 및 바실리카식 성당의 의의

38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래**: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정·정·이

③ 교체 ~~종교적 기능을 가진~~ 시장이나 재판소 로마 시대의 건축에서 유래했다.

1문단에서 바실리카 형식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시장이나 재판소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①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축물이다.

1문단에서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는 성당 건축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 유럽의 성당은 다양한 양식으로 변화해 왔지만 그 기본은 바실리카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실리카식 성당은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② 4세기경에 출현하여 이후 부분적 변화를 겪었다.

1문단에서 4세기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평면 형태의 부분적 변화를 겪었다고 하였다.

④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웅대해지고 화려해졌다.

3문단에 따르면 바실리카식 성당은 성직자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트란셉트가 추가되어 열십자 모양의 건물이 되었고, 이때부터 건물은 더욱 웅대하고 화려해졌다고 하였다.

⑤ 실내의 벽과 천장을 종교적 예술 작품으로 장식하였다.

4문단에서 실내의 벽과 천장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등을 담은 그림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고 했다.

385 답 (1) 중세 시대 (2) 공공 (3) 직사각형 (4) 트란셉트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바실리카식 성당은 (4세기경, 중세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1문단에서 4세기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평면 형태의 부분적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2) 교체 바실리카 형식은 원래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공공, 개인)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다.

384번 – ③의 해설을 참고하여 이해한다.

(3) 교체 바실리카식 성당은 초기의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에서 열십자 모양으로 변화를 겪었다.

2문단에서 바실리카식 성당의 평면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동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방향의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어 열십자 모양의 건물이 되었다고 하였다.

(4) 교체 바실리카식 성당은 초기의 구조에서 예배를 위한 공간인 (앱스, 트란셉트)를 추가하며 변화하였다.

앱스는 바실리카식 성당 초기부터 있던 공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해지자 트란셉트가 추가되었다.

38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앱스는 오직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앱스는 동쪽 끝부분에 신성한 제단이 자리한 곳으로, 이곳은 오직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교체 ~~나르텍스~~(앱스)는 신성한 제단이 놓인 곳이다.

신성한 제단이 놓인 곳은 앱스이고, 나르텍스는 일반인들의 출입구와 현관이 있는 곳이다.

② 교체 ~~아일~~(네이브)은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곳이다.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공간은 네이브이며, 아일은 복도로 활용되는 곳이다.

③ 교체 트란셉트는 ~~일반인들이 복도로 활용~~(예배를 진행)하는 곳이다.

트란셉트는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공간이다.

⑤ 교체 ~~네이브~~(트란셉트)는 앱스 앞을 가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공간이다.

앱스 앞을 가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공간은 트란셉트이다.

38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당대의 미의식이 건물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군.

〈보기〉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미의 원천으로 인식하였으며, 파르테논 신전 건물 각 부분의 공간 구성과 지붕에 있는 신들의 조각에 인체 비례가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이 글의 4문단을 보면 바실리카식 성당의 외부 기둥이나 창, 외벽과 기둥의 조각, 실내의 벽면과 천장의 그림, 스테인드글라스로 구성된 창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바실리카식 성당은 건축을 중심으로 조각, 회화, 공예 등이 한데 어우러져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 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당대의 미의식이 건물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파르테논 신전은 바실리카식 성당과는 ~~달리~~ 건물에 조각 장식을 새겨 넣지 ~~않았군~~.

〈보기〉에서 파르테논 신전은 지붕에 신들의 조각을 새겨 넣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글의 4문단을 통해 바실리카식 성당의 출입구 쪽의 외벽과 기둥에 신이나 성인의 모습을 새겨 넣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교체 파르테논 신전은 바실리카식 성당과는 달리 외부에서 보면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주는군.

〈보기〉에서 파르테논 신전은 길게 뻗은 기단 등을 주로 활용하여 수평선을 강조한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 이 글의 4문단에서 절정기의 바실리카식 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기둥이나 창 등을 통해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③ 범위 오류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빛을 통해 건물의 내부를 강조했군.

〈보기〉에서 파르테논 신전의 건물 외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띤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이 글의 4문단에서 바실리카식 성당은 스테인드글라스로 구성된 커다란 창을 사람의 키보다 높게 설치하여 창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채로 건물 내부 공간에 풍부하게 퍼지도록 했다고 하였다. 즉 파르테논 신전은 빛을 통해 건물의 외부를, 바실리카식 성당은 빛을 통해 건물의 내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평면의 형태가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군.

〈보기〉에서 파르테논 신전은 긴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이 글의 바실리카식 성당은 초기에는 동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이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북 방향의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어 열십자 모양의 건물이 되었다고 하였다.

38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에는 ~~모두~~ 세속에서 신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보여 주는 공간이 있군.

이 글의 2문단에서 바실리카식 성당의 나르텍스로부터 네이브와 아일을 거쳐 앱스에 이르는 공간은 세속에서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의 파르테논 신전에 이러한 위계를 보여 주는 공간이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에는 모두 조각 장식이 존재하였군.

387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 모두 조각 장식을 새겨 넣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다양한 색채 효과를 주기 위해 빛을 활용하였군.

387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파르테논 신전은 건물 외부가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며, 바실리카식 성당은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채로 건물 내부 공간에 퍼지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파르테논 신전이 수평선을 강조한 인상을 준 것과 달리 바실리카식 성당은 수직선을 강조한 인상을 주었군.

387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파르테논 신전은 수평선을 강조한 인상을 주고, 바실리카식 성당은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줌을 알 수 있다.

⑤ 파르테논 신전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바실리카식 성당은 직사각형의 모습에서 열십자 모양으로 변형되었군.

387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파르테논 신전은 긴 직사각형 모양이고, 바실리카식 성당은 초기 긴 직사각형 모양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어 열십자 모양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50 선암사 승선교에 담긴 미의식

지문 분석

본문 176~177쪽

주제 소박하고 조화로운 선암사 승선교의 아름다움

해제 이 글은 선암사 가는 길에 세워진 돌다리인 승선교의 건축 원리와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승선교의 구조와 건축 방법을 제시하고 승선교와 주변 경관의 조화가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면서, 승선교에 담긴 옛사람들의 미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승선교**)의 의의와 구조
2. (**홍예**)를 세우는 과정과 (**홍예**)의 특징
3. 승선교의 (**석축**)과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
4.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
5. 승선교에 담긴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

38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4문단에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고 하였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홍예석들은 접착제로 ~~이어 붙여져~~ 이어 붙이지 않아도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2문단에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였다.

③ 교체 홍예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는 건축 구조이다.

2문단에서 홍예는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라고 할 수 없다.

④ 교체 홍예는 ~~사다리꼴~~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 틀을 활용하여 홍예석을 쌓아 만든다.

2문단에서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 틀을 세운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가설 틀의 모양은 사다리꼴이 아닌 홍예 모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홍예는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고 한 것에서 사다리꼴 모양을 한 것은 장대석의 단면임을 알 수 있다.

⑤ 교체 승선교의 하중은 ~~장부 홍예석에 집중~~좌우의 아래쪽으로 분산됨으로써 그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2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승선교가 그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홍예가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390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특별한 접착 물질 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 ×)

2문단에 따르면 홍예석은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는데, 이는 홍예석들이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이다.

(2)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에서 널리 활용되던 방식이다. (○, ×)

2문단에서 홍예는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3)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 ×)

2문단에서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4) 교체 장대석을 ~~반원~~사다리꼴 모양으로 깎아서 쌓아 올려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하는 반원형의 구조물이다. (○, ×) 반원형으로

2문단을 보면 홍예는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리는데,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39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짜깁기 홍예석은 ~~장부 가운데부터 바닥을 향해 쌓아야~~ 부드러운 곡선미를 얻을 수 있다.

2문단에서 홍예는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반원형으로 쌓아 올리는데, 이렇게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홍예석을 쌓아 올리기 전에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 틀을 먼저 세운다.

2문단에 제시된 홍예를 세우는 과정에 따르면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 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린다고 하였다.

② 홍예는 구조적 안정성 덕분에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널리 활용되었다.

2문단에서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④ 승선교는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석축을 쌓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3문단에서 승선교는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고 하였다.

⑤ 승선교에서 막돌을 쌓아 올려 세운 석축은 홍예석과 대비되어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3문단에서 승선교는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고 하였다.

39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권위적**: ①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내세우는 것. ②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내세우는 것.
- **장엄함**: 씩씩하고 웅장하며 위엄 있고 엄숙함.
- **난관**: 지나기가 어려운 곳.

정·정·이

⑤ 짜깁기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제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보기〉에서 옥천교의 두 홍예 사이 석축에 조각된 도깨비 형상은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승선교 홍예 천장의 용머리 모양의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였지만, 이 장식에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겠군.

이 글의 승선교는 뭇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라고 하였으므로,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보기〉의 옥천교는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는 등 통행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있었다. 이를 옥천교가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다는 내용과 연결 지어 본다면, 옥천교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난간에 조각 장식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이 글의 승선교의 석축은 막돌을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아 세운 것인 데 반해, 〈보기〉의 옥천교의 홍예와 석축은 모두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다고 하였다. 또한 옥천교는 다리 난간에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전체적으로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옥천교와 달리 승선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겠군.

〈보기〉의 옥천교는 창경궁의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 위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이 글의 승선교는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주는 다리로, 계곡을 건너 산사로 가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승선교는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통행로라고 볼 수 있다.

④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이겠군.

〈보기〉의 옥천교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경계 짓고 있고, 이 글의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를 경계 짓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①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겠군.

⑤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이 문제는 선지와 지문의 서술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즉 옥천교가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다는 의미라는 것과 '왕의 공간'이 곧 '권위적인 영역'을 말한다는 것을 알면 ①이 적절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⑤에서 '사악한 기운이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나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⑤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지요.

393 답 (1) 승선교 (2) 옥천교 (3) 옥천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승선교, 옥천교)의 석축은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인다.

이 글의 3문단에서 승천교의 석축은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인다고 하였다.

(2) 교체 (승선교, 옥천교)는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이다.

〈보기〉에서 옥천교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라고 하였다. 승선교는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로,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이다.

(3) 교체 (승선교, 옥천교)에는 사악한 기운의 침범을 막기 위한 도깨비 형상 조각이 있다.

〈보기〉에서 옥천교의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깨비 형상을 조각했다고 하였다. 승선교에는 홍예 천장에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는데, 이는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51 들뢰즈와 랜드스케이프 건축

지문 분석 본문 178~181쪽

주제 들뢰즈의 주름 개념에 영향을 받은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징

해제 이 글은 들뢰즈가 제안한 주름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들뢰즈는 서로 다른 대상들이 만나고 섞임으로써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들뢰즈의 주름 개념은 현대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영향을 주었는데,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나타나는 주름처럼 접히고 펼쳐진 연속된 표면은 대지와 건물을 통합하고, 공간의 성격을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하며, 내부와 외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건물의 예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제시하고, DDP에 반영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 줄 요약

1. 대상들이 관계를 맺으며 펼쳐지는 무수한 차이를 긍정한 (**들뢰즈**)
2. 들뢰즈가 말하는 (**생성**)의 원리
3. 들뢰즈가 제안한 (**주름**) 개념
4. 들뢰즈의 주름 개념의 영향을 받은 (**랜드스케이프**) 건축
5.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나타나는 (**연속된 표면**)의 특징과 의미
6.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이 잘 드러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39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속성**: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정·정·이

② ㉠은 대상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은 대상의 변화하는 속성에 주목하였다.

1, 3문단에 따르면 근대 철학(㉠)은 대상이 지닌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는 동일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반면에 들뢰즈(㉡)는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관계 맺으며 펼쳐지는 무수한 차이를 긍정하며 세계를 생성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은 공간적 개념에서~~, ㉡은 시간적 개념에서 대상의 생성을 언급하였다.

근대 철학(㉠)은 대상의 동일성을 재현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으며, 대상의 생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들뢰즈(㉡)는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주름에는 시간적 개념과 변형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들뢰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범위 오류 ~~㉠은 여떤 대상과 관계하느냐에~~, ㉡은 대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주목하였다.

들뢰즈(㉡)는 대상과 다른 대상들이 관계 맺는 것에 주목하여,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생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근대 철학(㉠)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은 차이를 본질에 종속시키고자 하였고, ~~㉡은 동일성을 차이에 종속시키고자~~ 하였다.

근대 철학(㉠)은 동일성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 즉 얼마나 유사하게 동일성을 재현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에 대해 들뢰즈(㉡)는 표상이 대상들이 지닌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였다고 했다. 이로 볼 때 근대 철학(㉠)이 대상의 차이를 본질에 종속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들뢰즈(㉡)가 동일성을 차이에 종속시키고자 했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과 ~~㉡~~의 목표는 ~~모두~~ 대상이 갖는 고정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근대 철학(㉠)은 대상이 지닌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인 동일성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들뢰즈(㉡)는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395 답 (1) 들 (2) 근 (3) 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들)

1, 3문단에서 들뢰즈(㉡)는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관계 맺으며 펼쳐지는 무수한 차이를 긍정하였으며,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2) 교체 대상의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을 찾으려고 했다. (근)

1문단에 따르면 근대 철학(㉠)은 대상이 지닌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는 동일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3) 교체 대상의 생성 과정에 시간적 개념과 변형을 포함시켰다.(들)

3문단에서 들뢰즈(㉡)는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주름에는 시간적 개념과 변형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39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은 동일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은 대상들이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1문단에서 근대 철학(㉠)은 얼마나 유사하게 동일성을 재현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리고 1~3문단에서 들뢰즈(㉡)는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에 주목하여 이를 주름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교체 ㉠은 ㉡과 달리 대상의 변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3문단에서 들뢰즈(㉡)는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생성된 주름은 시간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다시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은 처음과는 차이가 나는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간다고 했다. 즉 대상의 변형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② 교체 ㉡은 ㉠과 달리 세계를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1문단에 따르면 근대 철학(㉠)은 대상이 지닌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는 동일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③ 교체 ㉠은 대상의 동태적 속성에, ㉡은 대상의 정태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1문단에 따르면 근대 철학(㉠)에서는 대상이 지닌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는 동일성에 주목하였으므로, ㉠은 대상의 정태적 속성에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문단에서 들뢰즈(㉡)는 차이란 두 대상을 정태적으로 비교해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이 만나고 섞임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은 대상의 동태적 속성에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과 ㉡은 모두 대상들이 관계 맺으며 펼쳐지는 무수한 차이를 긍정하였다.

1문단에서 근대 철학(㉠)은 동일성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들뢰즈(㉡)는 이에 대해 표상이 대상들이 지닌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관계 맺으며 펼쳐지는 무수한 차이를 긍정하였다고 했다.

39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교체 주름은 내재적 원인에 의해 완성된다.

3문단에 따르면 주름은 대상 자체의 내재적 원인에 의해 혹은 차이를 지닌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흔적이다. 생성된 주름은 다시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주름이 내재적 원인에 의해 완성된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② 주름은 대상과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생성된다.

3문단에서 들뢰즈는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③ 생성된 주름은 다른 대상들과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3문단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은 처음과는 차이가 나는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간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주름이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주름은 대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3문단을 통해 주름은 대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것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대상의 주름은 서로를 변화시키며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

3문단에서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생성된 주름은 시간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다시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간다고 하였다.

39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들뢰즈는 이미 생성된 '주름'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3문단에서 생성된 주름은 시간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다시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은 처음과는 차이가 나는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간다고 하였다. 즉 들뢰즈는 이미 생성된 주름도 계속해서 변화하며 새로운 주름을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2) 들뢰즈의 '주름' 개념은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 ×)

4문단에서 들뢰즈가 제안한 '주름' 개념은 현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현대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하였다.

(3) 들뢰즈는 '주름'을 차이를 지닌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 ×)

3문단에서 주름은 대상 자체의 내재적 원인에 의해 혹은 차이를 지닌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9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대상과 대상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이다.

3문단에서 들뢰즈는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짜깁기 대상이 지닌 ~~고정된 진리에 대한 표상~~이다.

대상이 지닌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는 동일성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 동일성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근대 철학의 관점이다. 들뢰즈는 주름을 대상의 내재적 원인에 의해 혹은 차이를 지닌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흔적이라고 하였다. 생성된 주름은 시간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다시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은 처음과는 차이가 나는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간다고 보았다.

③ 짜깁기 두 대상을 ~~정태적으로 비교해서~~ 나오는 어떤 것이다.

2~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란 두 대상을 정태적으로 비교해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이 만나고 섞임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④ 짜깁기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종속~~시키는 것이다.

1문단에서 들뢰즈는 동일성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에 주목한 근대 철학에 대해 표상이 대상들이 지닌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였다고 했다. 이로 보아 대상들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종속시키는 것은 근대 철학과 관련된 것으로 들뢰즈의 주름 개념과는 상관이 없다.

⑤ 짜깁기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고정된 의미로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과 관련된다.

4문단에서 들뢰즈의 주름 개념에 영향을 받은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각각의 고정된 의미로 분리하여 바라보려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을 거부하였다고 했다. 이로 보아 주름을 이분법적 관점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0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짜깁기 대지와 건물의 표면에 주름처럼 이어진 곡선은 ~~대지의 의미가 건물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고 있군.

6문단에 따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현대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건물로, DDP의 표면은 주름진 곡선이 연속으로 이어져 건물 전체가 대지를 덮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다. 또한 주름진 곡선에 의해 만들어진 내부의 공간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4문단을 보면 현대 건축에서는 대지와 건물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작동한다고 하였으므로, 대지와 건물의 표면에 주름처럼 이어진 곡선을 통해 대지의 의미가 건물에 의해 규정되도록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② 건물 전체가 대지를 덮고 있는 형상은 건물과 대지를 통합하여 연속된 표면을 이룬 것에 해당하겠군.

5문단을 보면,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나타나는 연속된 표면은 건물 자체가 대지를 완전히 덮어서 대지와 건물이 통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DDP의 표면은 주름진 곡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건물 전체가 대지를 덮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으므로, DDP의 형상은 건물과 대지를 통합하여 연속된 표면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관람자는 공원에서 건물 내부로, 내부에서 잔디 언덕으로 이동하면서 시선과 응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겠군.

5문단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건물의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과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응시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DDP는 외부의 공원과 건물 간의 경계가 없어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시선과 응시를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을 건물의 입구와 이어지도록 한 것은 기존의 시설물과 건물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군.

4문단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은 대지와 건물, 건물과 건물,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각각의 고정된 의미로 분리하여 바라보려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을 거부하고 이들을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보고자 했다고 하였다. DDP 역시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을 건물의 지하 광장과 입구로 이어지도록 하여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⑤ 내부 공간들이 전시관과 패션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은 공간의 성격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군.

5문단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간은 그 성격이 고정되지 않고 우연적인 상황 혹은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의 전개로 인해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DDP의 내부 공간들도 성격이 고정되지 않고 디자인 전시관, 패션 행사, 다양한 체험 마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401 답 (1) 다양한 (2) 통합 (3) 곡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내부 공간은 (고정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6문단에서 DDP의 내부 공간들은 디자인 전시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패션 행사나 다양한 체험 마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2) 교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과 (변별,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6문단에서 DDP는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이 건물의 지하 광장과 건물의 입구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외부의 공원과 건물 간의 경계가 없이 이어지는데, 이런 점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과 통합을 추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3) 교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표면은 주름진 (곡선, 직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6문단에서 DDP의 표면은 주름진 곡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40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대지와 건물을 ~~인간에 의해 그 역할이 규정되는 수동적인~~ 그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하였다.

4문단에서 그동안 건축에서는 대지와 건물이 인간에 의해 그 역할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수동적 존재로 파악되었는데, 현대 건축에서는 대지와 건물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동적 존재로 작동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의 건축 양식을 보인다.

5문단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건물의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된다고 하였다.

③ 대지와 건물의 벽, 천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생성하여 대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한다.

5문단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나타나는 연속된 표면은 대지와 건물의 벽, 천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생성하면서 대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통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④ 공간의 성격이 우연적인 상황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의 전개로 인해 재구성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5문단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나타나는 연속된 표면은 주름처럼 접히고 펼쳐지면서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공간은 그 성격이 고정되지 않고 우연적인 상황 혹은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의 전개로 인해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⑤ 대지와 건물을 서로 관계 맺으며 접고 펼쳐지는 반복적 과정 속에서 생성된 하나의 통합적 공간으로 보고자 하였다.

4문단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은 대지와 건물, 건물과 건물,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하나의 주름 잡힌 표면, 즉 서로 관계 맺으며 접고 펼쳐지는 반복적 과정 속에서 생성된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보고자 하였다고 했다.

40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 도출(導出)되는

'도출되는'은 '판단이나 결론 따위가 이끌려 나오는'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2문단의 문맥으로 보아 두 대상을 비교해서 '차이'라는 결론이 이끌려 나오는 것이므로 '나오는(ⓐ)'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오·오·이

② 교체 ⓑ: ~~구성(構成)되다~~

'구성된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다. 3문단의 문맥으로 보아 주름은 부분이나 요소들이 일정한 전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된 것이므로 '생긴다(ⓑ)'를 '구성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교체 ⓒ: ~~봉인(封印)하여~~

'봉인하여'는 '밀봉(단단히 붙여 꼭 봉함.)한 자리에 도장을 찍어' 또는 '형체가 있는 동산에 대하여 그 모양을 바꾸지

못하도록 처분으로서 날인하여'라는 뜻이다. 5문단의 문맥으로 보아 대지가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도록 건물이 얹어진 것이므로 '덮어서(ⓒ)'를 '봉인하여'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교체 ⓓ: ~~제작(製作)해~~

'제작해'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어'라는 뜻이다. 5문단에서 말하는 '공간'은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들어(ⓓ)'를 '제작해'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교체 ⓔ: ~~주시(注視)하면~~

'주시하면'은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보면' 또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모아 자세히 살피면'이라는 뜻이다. 6문단의 문맥으로 보아 하늘에서 건물을 집중하여 보거나 자세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늘(위)에서 건물(아래) 전체를 한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이므로 '내려다보면(ⓔ)'을 '주시하면'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0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된다.

문맥상 ⓑ의 '생기다'는 옷에 없던 주름이 새로 있게 되었다는 말이므로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된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생기다'는 '계획에 지장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등과 같이 쓰인다.

③ 교체 ~~자기의 소유가 아니던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

'자기 소유가 아니던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다.'라는 의미의 '생기다'는 '나에게 공짜로 집이 생겼다.', '돈이 생겼다.' 등과 같이 쓰인다.

40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 ~~추론해~~

'가정해(㉯)'는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해'의 의미이므로, '미루어 생각하여 논해'의 의미인 '추론해'로 바꿔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오·오·이

① ㉮: 비슷하게

'유사하게(㉮)'는 '서로 비슷하게'의 의미이므로, '비슷하게'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 붙여 주게

'부여하게(㉰)'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게'의 의미이므로, '붙여 주게'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 생겨나는

'생성되는(㉱)'은 '사물이 생겨나는'의 의미이므로, '생겨나는'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⑤ ㉲: 쓰인다

'활용된다(㉲)'는 '충분히 잘 이용된다.'의 의미이므로, '쓰인다'로 바꿔 쓸 수 있다.

III 회화, 사진

52 조토 디 본도네의 회화

본문 182~183쪽

지문 분석

주제 조토 디 본도네 회화의 특징

해제 이 글은 13세기 말 이탈리아 화가인 조토 디 본도네의 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토는 비잔틴 미술의 경향과는 다른 새로운 회화, 즉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회화를 시도한 화가임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조토의 회화가 지닌 사실적 경향이 사실에 기반한 관찰과 구도에 대한 면밀한 고려, 사실적이고 생생한 인물 묘사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13세기 유럽 (**비잔틴**) 미술 종교화의 특징
❷ 13세기 말 이탈리아의 화가 (**조토**) 회화의 특징
❸ 조토 회화의 입체감, 사실감의 기반이 되는 (**사실적인 관찰**)
❹ (**구도**)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사실적 경향을 강조한 조토 회화
❺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조토 회화

40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르네상스 미술은 ~~비잔틴 미술~~ 조토 회화의 원근법을 계승하였다.

1~2문단에서 13세기 유럽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영향 아래 있었으나, 13세기 말 이와 구별되는 회화가 나타났다고 하며 선구자로 조토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조토는 평면의 세부적 묘사에 치중하였던 당시의 화가들과 달리 원근법을 사용하여 거리와 깊이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비잔틴 미술에는 원근법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에서 조토의 업적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르네상스 미술은 비잔틴 미술이 아닌 조토 회화의 원근법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고대 로마 미술은 회화에서 공간감을 나타냈다.

2문단에서 조토가 고대 로마 미술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었던 회화에서의 공간을 회복시켰다고 한 내용을 통해 고대 로마 회화에는 공간감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③ 비잔틴 미술은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1문단에서 13세기 유럽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당대 화가는 성서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들을 배치했다고 하였다.

④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평면적인 회화가 대부분이었다.

2문단에서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회화의 선구자로 조토가 나타났다고 하며, 조토는 평면적 작품 위주였던 당시에 입체감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평면적인 회화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13세기 유럽 회화에 묘사된 인물은 좌우 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1문단에서 13세기 유럽 미술의 회화 속 인물은 좌우 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하였다.

40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조토 디 본도네의 회화는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 (○, ×)

5문단에서 조토의 업적은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라고 하였다.

(2) 짜깁기 조토 디 본도네는 유럽 회화에서 공간감을 표현한 ~~최초의~~ 화가이다. (○, ×)

2문단에서 조토가 고대 로마 미술을 마지막으로 천여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회화에서의 공간을 회복시켰다고 한 것을 통해 유럽 회화에서 공간감을 최초로 표현한 것은 조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짜깁기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조토 디 본도네의 회화는 중세 유럽 회화의 분위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 ×)

5문단에서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조토의 그림은 여전히 중세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40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짜깁기 조토 디 본도네는 신격화되는 대상과 인간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회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2문단에서 조토는 인물의 표정 묘사와 시선 처리에서 생생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는데, 심지어 신격화되어 왔던 대상까지도 사실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려 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신격화되는 대상과 인간을 그릴 때 각각 다른 회화 기법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조토 디 본도네는 입체감을 표현하여 회화에서의 공간을 회복시켰다.

2문단에서 조토는 평면적 작품 위주였던 당시에 입체감을 표현하여, 고대 로마 미술을 마지막으로 천여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회화에서의 공간을 회복시켰다고 하였다.

② 조토 디 본도네는 핼리 혜성의 모습을 관찰하여 이를 그림에 반영하였다.

3문단에서 조토는 핼리 혜성의 모습을 관찰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방 박사의 경배」를 그렸다고 하였다.

④ 비잔틴 미술의 영향 아래에 있던 13세기 유럽 회화에 묘사된 인물의 표정에서는 감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1문단에서 비잔틴 미술의 영향 아래 있던 13세기 유럽 미술에서 인물은 아무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과 작위적인 시선을 가진 모습이었다고 하였다.

⑤ 조토 디 본도네는 원근법과 중첩법을 사용하여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간격이 느껴지도록 하였고 거리와 깊이를 표현하였다.

4문단에서 조토는 뒤로 갈수록 인물과 사물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원근법과, 앞과 뒤의 인물이나 사물이 겹쳐지도록 표현하는 중첩법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간격이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거리와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40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짜깁기 ㉢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하고 생생한 시선 처리는 ~~중세 종교화에서 이어 온~~ 인물 표현의 방식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군.

1문단에서 13세기 유럽의 종교화에서는 인물을 아무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과 작위적인 시선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에서의 생생한 시선 처리가 중세 종교화에서 이어 온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2문단에 따르면 생생한 시선 처리는 기존의 회화와 구별되는 조토 회화의 특징에 해당한다.

오·오·이

① ㉠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중첩법으로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은 사람들의 머리를 겹쳐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앞과 뒤의 인물을 겹쳐지도록 표현하는 중첩법을 사용한 조토 회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에서 성모 마리아와 같이 신격화되어 온 대상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불어넣은 것을 찾을 수 있군.

㉡에서 조토는 성모 마리아의 비통한 표정을 그려 냄으로써 생생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신격화되어 온 대상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표현한 조토 회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 인물들이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그림들과 대비되는 새로운 구도를 읽어 낼 수 있군.

㉣의 인물은 뒤돌아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인물들이 모두 정면을 향하는 구도로 표현되었던 당시의 그림들과 대비된다.

⑤ ㉤에서 슬퍼하는 사람의 자세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화가가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해 온 결과라 할 수 있군.

㉤의 인물은 자세를 통해 슬퍼하는 감정이 드러나도록 묘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사물과 인간에 대해 관찰한 것을 그림에 반영하여 보다 사실감 있는 회화를 그린 조토 회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410 답 ㄴ, ㄹ, 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신격화되어 왔던 인물을 인간적으로 그렸다.

2문단에서 조토는 신격화되어 왔던 대상까지도 사실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려 냈다고 하였다.

ㄹ. 사물과 인간에 대한 관찰을 그림에 반영하였다.

3문단에서 조토는 사물과 인간에 대해 관찰한 것을 그림에 반영해 내었다고 하였다.

ㅁ. 뒤로 갈수록 인물과 사물의 크기를 작게 그렸다.

4문단에서 조토는 뒤로 갈수록 인물과 사물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원근법을 사용하였다고 했다.

오·오·이

ㄱ. 교체 인물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 구도로 그렸다.

13세기 유럽 회화

4문단에서 조토는 앞과 뒤의 인물이나 사물이 겹쳐지도록 표현하는 중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도록 그린 것은 13세기 유럽 회화의 특징이다.

ㄷ. 교체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를 회화에 배치하였다.

13세기 유럽 회화

1문단에 따르면 13세기 유럽 회화에서 당대의 화가는 성서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를 배치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를 회화에 배치하는 것은 조토 회화의 특징이 아닌 비잔틴 미술 영향의 아래에 있던 13세기 유럽 회화의 특징이다.

53 푸생의 작품 세계

지문 분석 본문 184~185쪽

주제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푸생의 작품 세계

해제 이 글은 그림을 통해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한 푸생의 작품 세계를 다루고 있다. 푸생이 추구하는 그림의 성격을 밝히고 그림에 사용된 소재와 표현 원리에 대해 풍경화를 예로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푸생은 이성에 바탕을 둔 고대 예술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아,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 또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 이성의 법칙에 입각한 균형과 대칭,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화와 질서를 구현함으로써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한 줄 요약

1. 그림을 통해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한 푸생
2. (**푸생**)의 그림의 소재 및 표현 원리
3. (**풍경화**)의 예로 살펴본 푸생의 표현 원리
4. 푸생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미적 즐거움**)

41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푸생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 차원의 아름다~~움과 지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문단에서 푸생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인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푸생이 그림을 통해 경험적 차원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푸생의 풍경화는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3문단에서 푸생은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고 하였다.

② 푸생은 고대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 원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1문단에서 푸생은 이성이 자연의 보편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고대 그리스·로마의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고대 예술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였다.

④ 푸생이 배경의 일부로 사용한 고대 건축물은 주제 구현을 위해 그가 특별히 선별한 대상이다.

3문단에서 푸생의 풍경에는 자연 배경과 특별히 선택된 건축물이 등장하는데, 고대의 건축물은 배경의 일부로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⑤ 푸생은 풍경화를 그릴 때 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 공간 이행을 사용하여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

3문단에서 푸생은 풍경화에서 배경에 전경, 중경, 후경의 명백한 구분과 좌우상하의 대칭, 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인 공간 이행, 수평과 수직의 기하학적 질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고 하였다.

41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고대 예술은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영원불변성을 추구하였다. (◎, ×)

1문단에서 푸생은 우연성과 변화무쌍함을 멀리하는 대신,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영원불변성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의 고전성에서 미의 원리를 찾고자 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고대 예술은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영원불변성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2) 짜깁기 푸생은 압축된 표현을 사용하면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

2문단에서 푸생은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 그것을 서사의 차원이 아닌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를 위해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푸생은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압축적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푸생은 작품을 제작할 때 자신이 정한 표현 원리들을 모든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 ×)

4문단에서 푸생은 작품 제작에 있어 자신이 정한 표현 원리들을 명료한 법칙으로 규정하여 모든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41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푸생의 작품은 의식적인 작업의 결과로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 지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4문단에서 푸생에게 예술은 의식적인 작업의 결과이며, 이 때문에 감상자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이라기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고 하였다. 따라서 푸생의 작품이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푸생은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 등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

2문단에서 푸생은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푸생의 풍경화는 전경, 중경, 후경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며 좌우상하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3문단에서 푸생은 풍경화의 배경에 전경, 중경, 후경의 명백한 구분과 좌우상하의 대칭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푸생은 고대 예술의 주된 대상을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

2문단에서 푸생은 고대 예술의 주된 대상인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으며, 그것을 서사의 차원이 아닌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⑤ 푸생은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의 고전성에서 아름다움의 원리를 찾고자 했다.

1문단에서 푸생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의 고전성에서 미의 원리를 찾고자 했다고 하였다.

41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생동감**: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 **모방**: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정·정·이

④ '배치'와 '재배치' 과정은 짜임새 있는 구도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2문단에서 푸생은 조화와 질서를 자연의 영원불변한 본질이라고 여기고 이를 그림에서 구현하기 위해, 화면을 구성할 때도 짜임새 있는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밀랍 인형들을 배치한 후 그 배치를 바꿔 보기도 하는 '배치'와 '재배치' 과정은 짜임새 있는 구도를 갖추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짜깁기 '주제'를 먼저 정한 것은 대상의 ~~변화무쌍함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1문단에서 푸생은 우연성과 변화무쌍함을 멀리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푸생이 대상의 변화무쌍함을 반영하기 위해 '주제'를 먼저 정한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교체 '간단한 스케치'는 ~~감각을 통한~~ 지적이고 정신적인 미적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4문단에서 감상자들이 푸생의 작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이라기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고 하였다. 따라서 푸생이 감각을 통한 미적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간단한 스케치'를 한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③ 짜깁기 '밀랍 인형'은 작품 속 인물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2문단에서 푸생은 작품 속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고대 조각상 중에서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을 골라 인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푸생이 작품 속 인물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 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⑤ 짜깁기 '전체적인 구도'는 자연의 ~~사실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고 모방~~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3문단에서 푸생의 작품 속 자연 풍경은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푸생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자연의 이미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푸생이 자연의 사실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고 모방하여 전체적인 구도를 만들어 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⑤ '전체적인 구도'는 자연의 사실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고 모방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문제의 지문을 보면 자연은 작품의 배경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서는 자연이나 배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⑤에서 갑자기 자연을 모방하여 전체적인 구도를 만들어 냈다고 했어요. 게다가 지문과 〈보기〉 모두 '모방'과 유사한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요. 이 경우처럼, 〈보기〉가 제시된 문제에서 선지에 〈보기〉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제시되었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아요.

41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일환**: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것 가운데 한 부분.

정·정·이

② 부재 '스케치'할 때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자칫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렸겠군.

2문단에서 푸생은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여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3문단에서 푸생의 작품 속 자연 풍경이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푸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자연의 이미지라고 한 것으로 보아, 푸생이 '스케치'할 때 사실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렸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삶의 본질 등을 '주제'로 삼았겠군.

3문단에서 푸생은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하였고, 그의 풍경화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삶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푸생이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삶의 본질을 '주제'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③ 작품 속 인물의 표상인 '밀랍 인형'은 표현 의도에 맞는 이상적인 고대 조각상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겠군.

2문단에서 푸생은 인물들을 표현할 때,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고대 조각상 중에서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을 골랐다고 하였다. 따라서 작품 속 인물을 표상하는 '밀랍 인형'은 표현 의도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고대 조각상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배치'와 '재배치'는 자신이 정한 표현 원리들을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군.

4문단에서 푸생은 자신이 정한 표현 원리들을 명료한 법칙으로 규정하여 모든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푸생이 밀랍 인형들을 배치한 후 그 배치를 바꿔 보기도 한 것은 자신이 정한 표현의 원리들을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⑤ 균형과 대칭, 선이나 도형 등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체적인 구도'를 잡았겠군.

2문단에서 푸생은 작품 구성에 있어서 화면은 오로지 이성의 법칙에 입각한 균형과 대칭, 선이나 도형 등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짜임새 있는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고 했다고 하였다.

54 회화주의 사진

본문 186~187쪽

지문 분석

주제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작품과 예술관

해제 이 글은 단순히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사진을 회화적 표현의 모방을 통해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표현 기법과 창작 의도를 설명하면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알리고자 했던 그의 노력을 밝히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회화주의 사진)의 등장 배경과 개념
❷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사진에 사용된 기법
❸ (스타이컨)의 예술관
❹ 스타이컨의 사진의 (구도)와 (메시지)
❺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 스타이컨

416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한정**: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또는 그런 한도.

정·정·이

①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도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도 이에 동감했다고 하였다.

오·오·이

② 짜깁기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 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문단으로 보아,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여긴 것은 스타이컨과 로댕으로, 빅토르 위고도 이와 같이 생각했는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또한 빅토르 위고가 스타이컨의 사진에서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은 스타이컨이 로댕과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를 찍은 사진과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것으로, 실제 빅토르 위고가 그들을 내려다본 것은 아니다.

③ 교체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 아니라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을 추구한 것이다.

④ 짜깁기 로댕과 스타이컨은 조각의 역할이 자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문단에서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하였다고 했다.

⑤ 짜깁기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되었다.

5문단에서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었다고 하였다.

정·오 지름길

①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②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①과 ②에는 겹치는 단어가 여럿 등장해요. 이렇게 겹치는 단어가 등장한다면 재빠르게 지문에서 이 단어들이 있는 문장을 찾아봐요. 한 번에 두 개의 선지를 판단할 수 있어 문제를 더욱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417 답 (1) 재현 (2) 로댕 (3) 감광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19세기 초까지 사진은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1문단에서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2) 교체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피사체는 조각가 (로댕)와/과 그의 작품들이다.

2문단에서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3) 교체 스타이컨은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인화 과정에서 (감광액)을/를 사용하여 질감에 변화를 주었다.

2문단에서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고 했다.

41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진이나 조각은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인가?

3문단에서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스타이컨(ⓐ)의 생각에 로댕(ⓑ)도 동감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②의 질문에 스타이컨(ⓐ)과 로댕(ⓑ)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오·오·이

① 상반 사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현실을 재현하는 것인가? → 아니요

19세기 초까지 사진은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는데,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진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하였다. 스타이컨(ⓐ) 역시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화주의 사진을 창작했고, 로댕(ⓑ)도 이에 동감하였다. 따라서 ①의 질문에 스타이컨(ⓐ)과 로댕(ⓑ)은 모두 '아니요'로 답할 것이다.

③ 부재 사진이나 조각이 문학보다 창작의 고통이 더 수반되는 예술 영역인가?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작품에 나타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사진이나 조각이 문학보다 창작의 고통이 더 수반되는 예술 영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부재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예술가들의 정기적인 교류는 반드시 필요한가?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작품 활동에 예술가들의 정기적인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⑤ 부재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은 회화주의 사진 중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인가?

2문단에서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스타이컨(ⓐ)과 로댕(ⓑ)이 그 작품이 회화주의 사진 중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했는지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41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짝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2문단에 따르면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였다. 이때 근경에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을,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를 배치하였다. 따라서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아니며,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것도 아니다.

오·오·이

①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2문단에서 ㉠은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②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2문단에서 ㉠은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 4문단에서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된다고 하였다.

③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4문단에서 ㉠의 구도가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4문단에 따르면 ㉠에서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42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세~~ 두 개의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하였다. (○, (×))

2문단에서 ㉠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2) 근경과 원경의 명암 대비가 나타난다. ((○), ×)

4문단에서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된다고 하였다.

(3) 상반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 (×))

4문단에서 ㉠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고 했다.

42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은 인화할 때 감광액을 사용하여 질감을 ~~살림~~ 억제함으로써 피사체의 ~~생명력과 표현성~~ 사람인 듯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2문단에서 ㉠의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고 했고, 4문단에서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고 했다.

오·오·이

① 스타이컨의 예술관에 동의한 로댕은 ㉠의 피사체가 되어 주었다.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도 이에 동감하여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었다고 하였다.

② ㉠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한 사진이다.

1문단에서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한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리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은 이러한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며, 명암의 대비와 합성의 기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③ ㉠의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근경에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

2문단에서 ㉠의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⑤ 스타이컨은 ㉠을 통해 조각상도 문학 작품처럼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4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의 구도를 통해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55 볼탕스키의 작품 세계

지문 분석 본문 188~189쪽

주제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한 볼탕스키의 작품 세계

해제 이 글은 아마추어의 사진을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하여 새로운 미적 기능을 지니게 한 볼탕스키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볼탕스키는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감상자가 작품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진의 양면성을 드러냄으로써 감상자가 사진을 다의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는 감상자의 의식적인 이미지 읽기를 권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볼탕스키가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한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한 줄 요약

1.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한 개념 미술가 볼탕스키
2. 볼탕스키가 주목한 아마추어 사진의 특징인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
3. 볼탕스키가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한 의도
4. 감상자의 의식적인 (**이미지**) 읽기를 권고하는 볼탕스키

42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볼탕스키 작품 세계의 특징

– 오브제로서의 아마추어 사진 활용을 중심으로

이 글은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한 볼탕스키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 개념 미술가 볼탕스키를 소개하고, 2문단에서는 볼탕스키가 주목한 아마추어 사진의 특징인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3~5문단에서는 볼탕스키가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한 의도와 그 효과, 이를 통해 감상자의 의식적인 이미지 읽기를 권고하는 볼탕스키의 의도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표제는 '볼탕스키 작품 세계의 특징'이, 부제는 '오브제로서의 아마추어 사진 활용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오·오·이

① 부재 개념 ~~미술의 전개 과정~~

– 볼탕스키 사진이 가지는 양면성을 중심으로

1문단에서 개념 미술의 특징을 설명하였을 뿐, 이 글에 개념 미술의 전개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범위 오류 볼탕스키의 오브제 ~~활용 기법~~

– 가족사진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4문단에서 볼탕스키가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글의 중심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오브제로서 가족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3문단에서 들었던 예시에 불과하므로 글 전체의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④ 부재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의 ~~관계~~

– 볼탕스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에 대한 설명이 2문단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글의 중심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부재 볼탕스키의 작품이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

– 사진의 문화적 코드를 읽는 방법을 중심으로

볼탕스키의 작품이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볼탕스키는 대표적인 ~~모더니즘 예술가~~ 개념 미술가이다. (○, ×)

1문단을 통해 볼탕스키는 개념 미술가임을 알 수 있다.

(2) 볼탕스키는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하였다. (○, ×)

1문단에서 볼탕스키는 비전문가가 사적 일상이나 행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찍은 아마추어 사진을 자신의 작품에 오브제로 사용하였다고 했다.

(3) 교체 ~~소시오그램~~ 이데오그램은 사회가 공유하는 사진의 전형적 스타일을 의미한다. (○, ×)

2문단에 따르면 사회가 공유하는 사진의 전형적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은 이데오그램이고, 소시오그램은 개인들 간의 사회 문화적 관계 양상을 드러내는 사회적 지표이다.

42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사진과 제목을 터무니없게 조합하는 기법을 활용한 것은 감상자가 ~~사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4문단에서 볼탕스키는 제목이나 설명과 같은 텍스트를 사진과 엉터리로 조합하여 감상자가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진이 보여 주는 것이 진실인지, 텍스트가 보여 주는 것이 진실인지 감상자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고 하였다. 이는 사진에 부여된 진실성을 의심하고 사진을 다의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법이 감상자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감상자가 사진에 부여된 진실성을 의심하고 사진을 여러 의미로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다.

4문단에서 볼탕스키는 사람들이 사진을 진짜라고 믿는 마음을 역이용하여 사진이 갖는 사실성과 허구성이라는 양면성을 드러냄으로써, 사진에 부여된 진실성을 의심하고 사진을 다의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하였다.

② 사실과 허구가 공존하는 사진의 양면성을 드러냄으로써 감상자의 의식적인 이미지 읽기를 권고하고 있다.

5문단에서 볼탕스키는 일상적인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사실과 허구가 공존하는 사진의 양면성을 작품을 통해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감상자의 의식적인 이미지 읽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하였다.

③ 아마추어 사진이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을 특징으로 갖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했다.

2문단에서 볼탕스키가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한 것은 그것이 갖는 특징인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④ 오브제로 사용한 아마추어 사진 속에서 감상자가 문화적 코드를 읽어 작품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3문단에서 볼탕스키는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사회적 규범 체제나 공동체의 특징과 같은 일종의 문화적 코드를 읽게 함으로써, 작품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42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답습: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행함.

정·정·이

③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면서 예술 작품이 된다.

1문단에서 볼탕스키는 아마추어 사진을 자신의 작품에 오브제로 사용하여 전시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게 했다고 했고, 〈보기〉에서 예술가가 선택하여 작품화한 산업 생산물은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잃고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진 대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볼탕스키가 작품에 사용한 오브제인 아마추어 사진(㉠)과 예술가가 선택하여 작품화한 산업 생산물(㉡)은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면서 예술 작품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답습한다.

1문단에서 개념 미술가들은 예술적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통속적이라 인식되었던 기성품들까지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예술 작품과 다른 양식의 작품을 창조했다고 하였다. 또 〈보기〉에서 '레디메이드(예술가가 선택하여 작품화한 산업 생산물)'는 관습적인 미의 기준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 ㉡이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답습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교체 일상 공간 속에서도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

1문단에서 작품에 오브제로 활용된 아마추어 사진(㉠)은 전시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의 ㉡ 역시 일상적 공간에서 전시 공간으로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된 것이므로, ㉠과 ㉡이 일상 공간 속에서도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④ 범위 오류 원본의 재가공이나 재구성 없이 예술 작품이 된다.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볼탕스키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재촬영하여 원래의 이미지를 일부러 흐리게 만들거나 사진을 재배열하는 등 ㉠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반면 〈보기〉의 ㉡은 산업 생산물이 일상적 공간에서 전시 공간으로 단순히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된 것이다. 따라서 원본의 재가공이나 재구성 없이 예술 작품이 된 것은 ㉡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부재 대중이 예술성을 인정해 예술가가 선택한 소재이다.

㉠과 ㉡ 모두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예술 작품이 된 것이며, 대중이 예술성을 인정하여 예술가가 소재로 선택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정·오 지름길

윗글의 ㉠과 〈보기〉의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두 개념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를 풀 때에는 〈보기〉를 읽지 않고 지문의 내용만으로도 선지를 걸러 낼 수 있어요. '공통점'은 두 대상 모두에게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선지는 오답으로 걸러 낼 수 있지요. 이 문제도 선지의 내용이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고, 그 후에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판단해 보세요. 그럼 정답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42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레디메이드'는 볼탕스키의 작품처럼 전시 공간을 벗어나 원래의 장소로 이동하면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된다.

〈보기〉에서 레디메이드는 산업 생산물이 일상적 공간에서 전시 공간으로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된 것으로, 전시 공간을 벗어나 원래의 장소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된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볼탕스키의 작품은 일상적인 아마추어 사진을, '레디메이드'는 산업 생산물을 오브제로 활용했다.

1문단에서 볼탕스키는 비전문가가 사적 일상이나 행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찍은 아마추어 사진을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보기〉에서 '레디메이드'는 산업 생산물이 예술 작품이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만으로 예술 작품이 된 '레디메이드'와 달리 볼탕스키의 작품은 재가공의 과정을 거친다.

〈보기〉에 따르면 '레디메이드'는 산업 생산물이 일상적 공간에서 전시 공간으로 단순히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된 것이다. 이와 달리 4문단에서 볼탕스키는 아마추어 사진을 반복적으로 재촬영하여 원래 사진의 이미지를 일부러 흐리게 만들거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진을 재배열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하였다. 즉 볼탕스키의 작품은 〈보기〉의 '레디메이드'와 달리 재가공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③ 예술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중시한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레디메이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1문단에서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예술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양식이나 이미지 차용을 거부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업 생산물이 일상적 공간에서 전시 공간으로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된 '레디메이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⑤ 볼탕스키의 작품은 보편적이고 공통된 문화적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레디메이드'는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잃게 된다.

5문단에서 볼탕스키는 일상적인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보편적이고 공통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보기〉의 '레디메이드', 즉 예술가가 선택하여 작품화한 산업 생산물은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잃게 되고,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진 대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56 투시 원근법

지문 분석 본문 190~193쪽

주제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와 최적의 관람 거리

해제 이 글은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와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 대한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르네상스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기존의 자연적 원근법에서 탈피하여 투시 원근법으로 대상을 표현했다고 하며, 투시 원근법의 원리와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투시도의 구현 원리는 평면도와 상승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히고, 투시 원근법을 통해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한 최적의 관람 거리를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프란체스카가 투시 원근법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과 최근 투시 원근법을 활용하는 영역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투시 원근법**)을 통해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 한 르네상스 화가들
❷ (**시선**), (**사영**)의 개념과 사영들을 모아 생기는 화면의 상
❸ (**소실점**)의 개념 및 소실점 개수에 따른 투시 원근법의 종류
❹ (**평면도**)와 (**상승도**)를 통한 투시도의 구현 원리
❺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한 최적의 (**관람 거리**)
❻ 투시 원근법의 (**한계**)와 의의

42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부재 투시 원근법이 ~~변화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투시 원근법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역사적, 또는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여 서술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② 구체적인 예를 들어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3~5문단에서 〈그림 1〉을 통해 평행한 철로를 투시 원근법으로 그리는 과정을 예로 보여 주며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③ 투시 원근법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7문단에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상이 왜곡된다는 프란체스카의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시선, 사영, 소실점 등 투시 원근법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⑤ 자연적 원근법과의 차이점을 들어 투시 원근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1문단에서 일정한 비례나 법칙이 없었던 자연적 원근법과 달리 투시 원근법은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428 답 ㄱ,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예를 제시하여 투시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427번-②의 해설을 참고하여 이해한다.

ㄹ.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6문단에서 〈그림 2〉를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한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ㄴ. 부재 투시 원근법의 한계점과 ~~그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7문단에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을 보고 그린 그림에서는 상이 왜곡된다는 투시 원근법의 한계가 제시되어 있으나,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ㄷ. 부재 투시 원근법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7문단에 투시 원근법에 대한 프란체스카의 비판적 견해가 드러나 있으나, 투시 원근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절충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2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합의**: 두 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함.

정·정·이

④ 투시 원근법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7문단에서 투시 원근법은 여전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언급한 후, 최근에는 증강 현실의 구현에 투시 원근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투시 원근법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 투시 원근법에 대해 학자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부재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1문단에서 투시 원근법이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투시 원근법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서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투시 원근법을 한 점 투시 원근법, 두 점 투시 원근법, 세 점 투시 원근법으로 나뉜다고 투시 원근법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예시도 쓰이지 않았다.

⑤ 부재 투시 원근법의 개념과 투시 원근법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고 있다.

투시 원근법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43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상승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 양 끝점의 사영은 중앙선에서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상승도]에서 받침목의 양 끝점은 바닥면에 한 점으로 표시된다. 이때 받침목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상승도]에 표시되는 받침목의 양 끝점은 점점 그림의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끝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은 작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사영은 중앙선과 가까워질 것이다.

오·오·이

① [평면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이 작아진다.

[평면도]를 보면 눈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받침목의 왼쪽 점과 눈을 연결한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은, 눈에서 가장 가까운 받침목의 왼쪽 점(A)과 눈을 연결한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보다 작다. 따라서 [평면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은 작아질 것이다.

② [상승도]에서 한 개의 받침목의 양 끝점은 화면에 동일한 점으로 표시된다.

[상승도]를 보면 눈에서 가장 가까운 받침목의 왼쪽 끝점인 A와 오른쪽 끝점인 B는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한 점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사영 또한 동일한 점으로 표시될 것이다.

④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받침목일수록 그 상이 소실점에 가까워진다.
[투시도]를 보면 눈에서 가장 가까운 받침목보다 눈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받침목이 소실점에 더 가까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받침목일수록 그 상이 소실점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⑤ [투시도]에서 소실점은 평면도의 중앙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을 연장하였을 때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그림 1〉을 통해 [평면도]의 중앙선을 연장한 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을 연장한 선이 만나는 점이 [투시도]의 소실점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431 답 (1) 위 (2) 옆 (3) 위, 옆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평면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위, 아래, 옆)에서 본 그림이다.
4문단에서 철로의 평면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 철로의 각 점이 화면에 어떻게 사영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2) 교체 [상승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위, 아래, 옆)에서 본 그림이다.
4문단에서 상승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옆에서 본 그림이라고 하였다.

(3) 교체 [투시도]는 그릴 화면 (위, 아래, 옆)에 [평면도]를, 그릴 화면 (위, 아래, 옆)에 [상승도]를 두고 두 그림의 정보를 종합하여 그린다.
5문단에서 투시도를 그릴 화면 위쪽에 평면도를, 화면 왼쪽에 상승도를 놓는다고 하였다.

43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철로의 평면도에서 받침목이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는 ~~커진다~~ 작아진다.
4문단에 철로의 평면도에서 받침목이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진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오·이

① 15세기 이전의 회화에서는 자연적 원근법이 활용되었다.
1문단에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에서는 자연적 원근법을, 15세기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투시 원근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를 통해 15세기 이전의 회화에서는 자연적 원근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투시 원근법에서 소실점은 두 개 이상 나타날 수도 있다.
3문단에서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한 점 투시 원근법, 두 점 투시 원근법, 세 점 투시 원근법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④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이다.
6문단에서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⑤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리면 상이 왜곡된다.
7문단에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을 보고 그린 그림에서는 상이 왜곡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43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 거리를 90 cm로 유지해야겠군.
사각형의 가로를 C, 세로를 D라고 하고, 점 V와 V' 사이의 거리를 c,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C : D = c : d$가 성립한다.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면 C와 D는 같은 값이다. 그림의 가로 길이는 180 cm이고 점 V는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점 V'는 그림의 세로 테두리의 중앙에 위치하므로 V와 V' 사이의 거리, 즉 c의 값은 90 cm이다. 따라서 최적의 관람 거리 d는 90 cm이다.

오·오·이

① 교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 cm였다면, 화가가 보고 그린 실제 타일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겠군.
V와 V' 사이의 거리가 90 cm이고,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 cm라고 할 때, $C : D = 90\text{ cm} : 120\text{ cm}$가 되므로 타일의 세로 길이인 D가 가로 길이인 C의 값보다 클 것이다.

③ 상반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V와 V'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겠군~~ 달라지지 않는다.
소실점 V는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과 지평선이 만나는 점 V'는 어느 타일에서 연결해도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V와 V' 사

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④ 교체 가로의 길이가 100 cm, 세로의 길이가 50 cm인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최적의 관람 거리는 ~~180 cm~~ 45 cm겠군.

가로의 길이 C가 100 cm, 세로의 길이인 D가 50 cm라면, $100 : 50=90 : d$를 통해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d의 값은 45 cm이다.

⑤ 교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V'는 ~~화면의 밖에 위치하겠군.~~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과 지평선이 만나는 점 V'는 실제 타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림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43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은 보는 위치에 따라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할 수 있다. (○, ×)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관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 교체 〈그림 2〉가 정사각형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면 점 V와 V' 사이의 거리는 최적의 관람 거리보다 ~~짧~~ 같을 것이다. (○, ×)

〈그림 2〉가 정사각형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면 C와 D의 값은 같을 것이다. $C : D=c : d$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므로 점 V와 V' 사이의 거리는 최적의 관람 거리와 같다.

(3) 〈그림 2〉에서 직사각형의 실제 크기와, 점 V와 V' 사이의 거리를 안다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 ×)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가로의 길이가 C이고 세로의 길이가 D인 직사각형을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렸을 때 $C : D=c : d$가 성립하여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림 2〉에서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점 V와 V' 사이의 거리를 안다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43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굴절**: 휘어서 꺾임.
- **포착**: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정·정·이

⑤ 짜깁기 ㉠이 실재를 표상한다 하더라도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놓여 있으면 ~~왜곡된 이미지~~를 보게 된다.

〈보기〉에 따르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투시도상에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실재를 표상하는 투명한 화면을 설정해야 한다. 또 [A]에 따르면 유리판(㉠)은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놓여 있다고 가정했으며,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을 그대로 그린다면 실제 모습과 비례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리판이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놓여 있으면 왜곡된 이미지를 보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왜곡된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은 화면이 불투명하거나 굴절되어 있을 경우라고 〈보기〉에 언급되어 있다.

오·오·이

① ㉠이 놓여 있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상자를 투시도상에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이다.

〈보기〉에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투시도상에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실재를 표상하는 투명한 화면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A]를 통해 투명한 화면이 유리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 대신 불투명하거나 굴절된 화면을 놓을 경우 상자를 있는 그대로 포착해 낼 수 없다.

〈보기〉에서 화면이 불투명하거나 굴절되어 있을 경우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포착해 낼 수 없다고 하였다.

③ 사영과 상자 사이에 완벽한 일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처럼 투명한 화면이어야 한다.

〈보기〉에서 투명한 화면을 가정할 때 비로소 거기에 표상되어지는 기호들과 대상 사이에 완벽한 일체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한편 [A]에 눈과 사물 위의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시선이라 하고 시선이 유리판과 만나는 점을 사영이라고 했으므로, 〈보기〉에서 말하는 '투명한 화면에 표상되어지는 기호들'은 '사영'이다. 따라서 사영과 상자 사이에 완벽한 일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유리판(㉠)처럼 투명한 화면이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과 시선이 만나는 점들을 모아서 그리면 실제 상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된다.

〈보기〉에 따르면 투명한 화면일 때 거기에 표상되어지는 기호(사영)들과 대상 사이에 완벽한 일체 관계가 형성되어 온전하게 이 세계를 담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시선이 유리판(㉠)과 만나는 점(사영)들을 모아서 그리면 실제 상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IV 음악, 영화

57 음악 수사학

지문 분석 본문 194~195쪽

주제 음형의 사용을 강조한 마테존의 음악 수사학

해제 이 글은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의 작곡과 연주에 적용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 수사학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음악 수사학을 체계화한 마테존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음형의 사용을 강조하였다고 밝힌 뒤,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에 속하는 음형의 종류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음악 수사학 및 음형의 의의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음악 수사학**)의 태동과 음형의 사용을 강조한 (**마테존**)
❷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의 개념
❸ 선율 음형인 (**아나포라**), (**영탄법**), (**멈춤**)의 기능
❹ 장식 음형인 (**악센트**), (**트릴**), (**트레몰로**)의 방식
❺ (**음악 수사학**) 및 마테존이 체계화한 (**음형**)의 의의

43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부재 마테존은 장식 음형보다는 선율 음형을 중시하였다.

(나)를 통해 마테존이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장식 음형보다 선율 음형을 중시하였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오·이

② 바로크 시대에는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가)에서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에서는 음악이 구체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음악 수사학이 태동하였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마테존은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가)에서 음악 수사학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사를 위주로 작곡을 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지만, 마테존에 와서는 가사 없이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했다.

④ 마테존은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마)에서 마테존이 체계화한 음형은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했다.

⑤ 음악 수사학에서는 음형을 통해 감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가)에서 음악 수사학을 체계화한 마테존은 청중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음형의 사용을 강조했다고 했으며, (마)에서 음악 수사학에서는 특정한 음형을 사용하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43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음악 수사학이 도입된 것은 16세기 이후이다. (○, ×)

(가)에서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에서는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음악 수사학이 태동했다고 하였으므로, 음악 수사학이 도입된 것은 16세기 이후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아나포라', '멈춤'은 ~~악곡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음형이다. (○, ×)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나)~(다)에 따르면 '아나포라', '멈춤'은 선율 음형으로, 선율 음형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이다. 악곡을 실제 연주할 때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음형은 장식 음형으로, '악센트', '트릴', '트레몰로'가 있다.

(3) 부재 음악 수사학에서는 성악곡~~보다~~ 기악곡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마)에 따르면 음악 수사학에서는 특정한 음형을 사용하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을 뿐, 이 글에 음악 수사학에서 성악곡보다 기악곡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43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마테존은 장식 음형 중에서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전환하는~~ '악센트'가 감정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중시하였다.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

(라)에 따르면 마테존은 감정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악센트'를 중시했는데, '악센트'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은 '트릴'이다.

오·오·이

① 마테존은 연주가가 실제 연주를 할 때 이미 만들어진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에서 마테존은 같은 내용이라도 웅변가가 상황에 따라 웅변술을 달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주가도 실제 연주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② 음악 수사학의 도입 초기에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가사를 위주로 작곡을 하는 방식을 따랐다.

(가)에 음악 수사학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사를 위주로 작곡을 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다고 언급되어 있다.

③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 중에서 '멈춤'과 '영탄법'은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나)와 (다)에 따르면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인 선율 음형 중 '멈춤'은 '영탄법'과 함께 격한 감정을 표현한다.

⑤ 18세기 말부터는 음악 수사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음악 수사학자들이 체계화한 음형은 오늘날까지 상식으로 남아 있다.

(마)에 18세기 말부터 음악 수사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만, 음악 수사학자들이 체계화한 음형은 오늘날까지 음악에 대한 상식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43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는 연주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장식 음형의 일종인 ~~트레몰로~~ 악센트를 사용한 것이군.

ⓒ는 연주자가 실제 연주에서 악보와 다르게 연주한 것으로, 장식 음형에 해당한다. 연주자는 원래 악보와 달리 세 번째 음의 앞에 낮은 음을 첨가하여 연주하였는데, 이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는 방식인 '악센트'에 해당한다. '트레몰로'는 한 음이나 여러 개의 음을 빨리 되풀이하여 연주하는 방식이다.

오·오·이

① ⓐ에는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여 감정을 강조하려는 작곡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

악보의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의 앞부분에서는 ⓐ와 같이 같은 음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선율 음형 중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는 음형인 '아나포라'에 해당한다. 이러한 '아나포라'는 작곡가가 전달하려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② ⓑ에서 음이 도약하는 것을 보니 가사를 붙인다면 감탄을 드러내는 표현이 적절하겠군.

ⓑ에서는 두 음 사이의 도약이 나타나는데 이는 선율 음형 중 '영탄법'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감탄을 표현할 수 있다.

④ ⓐ는 단어 차원, ⓑ는 문장 차원에 근거한 음형이군.

ⓐ는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는 음형인 '아나포라'로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이다. ⓑ는 두 음 사이의 도약을 통해 감탄을 표현하는 '영탄법'에 해당하는데, 이는 문장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이다.

⑤ ⓐ는 작곡 과정에서 고안되는 반면에 ⓒ는 실제 연주에서 구현되었어.

ⓐ는 작곡 과정에 적용한 선율 음형, ⓒ는 연주자가 실제 연주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다른 음을 넣어서 연주하며 구현된 장식 음형에 해당한다.

440 답 ㉠ 선율 ㉡ 아나포라 ㉢ 장식 ㉣ 트릴 ㉤ 트레몰로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짜깁기 ✓교체 ○상반 ○인과 오류 ○범위 오류

정·정·이

㉠ 교체 (선율) 음형

'영탄법'과 '멈춤'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인 선율 음형에 해당한다.

㉡ 교체 (아나포라)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강조하는 음형은 '아나포라'이다.

㉢ 교체 (장식) 음형

'악센트'는 연주자가 실제 연주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다른 음을 넣어서 연주하면서 구현되는 장식 음형에 해당한다.

㉣ 교체 (트릴)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트릴'이다.

㉤ 교체 (트레몰로)

한 음이나 여러 개의 음을 빨리 되풀이하여 연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트레몰로'이다.

58 이차 프레임의 기능

지문 분석 ㉮ 본문 196~197쪽

주제 이차 프레임의 개념과 기능

해제 이 글은 이차 프레임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차 프레임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는 기능,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현대에 이를수록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프레임, 이중 프레이밍, (**이차 프레임**)의 개념

❷ (**이차 프레임**)의 기능

❸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

44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일체감**: 남과 어우러져 하나로 되는 감정.

정·정·이

④ 교체 이차 프레임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인물 사이에는 일체감(정서적 거리감)이 형성된다.

3문단에서 이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는 정서적 거리감이 조성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차 프레임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인물 사이에 일체감이 형성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작가의 의도는 현실을 화면에 담는 촬영 행위에서도 드러난다.

1문단에서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 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② 이차 프레임 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

2문단에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된다고 한 것을 통해 이차 프레임 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차 프레임의 시각적 효과는 심리적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3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차 프레임의 시각적 효과가 심리적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이차 프레임은 액자형 서사 구조의 영화에서 이야기 전환을 알리는 데 쓰이기도 한다.

4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하며, 작중 인물의 현실 이야기와 그의 상상에 따른 이야기로 구성된 영화의 예를 제시하여 이차 프레임이 이야기 전환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44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프레임 내 프레임을 많이 두면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을 부여할 수 있다. (○, ×)

2문단에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2) 영화나 사진뿐 아니라 광고에서도 이중 프레이밍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 ×)

2문단에서 광고의 경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차 프레임 안에 상품을 위치시켜 주목을 받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한 것에서 영화와 사진뿐 아니라 광고에서도 이중 프레이밍 기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짜깁기 현대의 시각 매체 작가들은 ~~프레임을 거부하고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 ×)

5문단에서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는 현대의 시각 매체 작가들이 이차 프레임을 새롭게 활용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지, 프레임을 거부하고 이를 파괴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4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짜깁기 프레임 내 프레임을 여러 개 설정하는 것은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문단에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부여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한편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은 5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프레임 내 프레임을 여러 개 설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프레임'이라 한다.

1문단에서 프레임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고 하였다.

②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이차 프레임을 활용하면 존재감을 부각하기 쉽다.

2문단에 이차 프레임은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③ 이차 프레임은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화면 안의 대상에 대해 시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2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이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⑤ 현대 시각 매체 작가들은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5문단에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을 하는데,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44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행인**: 길을 가는 사람.

정·정·이

⑤ ㉮가 행인이 들고 있는 원형의 빈 액자 틀로 바뀌더라도 이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겠군.

1문단에서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 대신 원형의 빈 액자 틀을 활용해도 이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된다.

오·오·이

① 상반 ㉮로 인해 화면이 ~~평면적~~으로 느껴지는군.
입체적

㉮는 프레임 내 프레임으로, 2문단에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로 인해 화면이 입체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② 짜깁기 ㉮가 ~~없다면~~ 사진 속 공간의 폐쇄성이 강조되겠군.

5문단에서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즉 ㉮가 없을 때가 아니라, ㉮의 창이 봉쇄될 때 ㉮의 이차 프레임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사진 속 공간의 폐쇄성이 강조될 것이다.

③ 상반 ㉮로 인해 창 테두리 ~~외부의 풍경~~에 시선이 유도되는군.
내부의 인물

2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은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로 인해 창 테두리 내부의 인물에게 시선이 유도될 것이다.

④ 상반 ㉮ 안의 인물은 멀리 있어서 ㉮가 없더라도 작품 내 존재감이 ~~비슷하겠군~~.

2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을 활용하면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 없을 때보다 ㉮가 있을 때 ㉮ 안의 인물의 존재감은 부각될 것이다.

445 답 ㄱ,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 안의 인물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2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을 하는데,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ㄹ. ㉮로 인해 시각적으로 ㉮ 안의 인물이 외부와 분리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3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한다고 하였다.

오·오·이

ㄴ. 짜깁기 ㉮ ~~내부 이미지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거나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은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로, ㉮와는 거리가 멀다. ㉮는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ㄷ. 짜깁기 ㉮로 인해 이차 프레임의 ~~기능이 상실되어 공간의 폐쇄성이 드러난다~~.

㉮는 이차 프레임이므로, ㉮로 인해 이차 프레임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59 영화의 시퀀스

지문 분석 ㉮ 본문 198~200쪽

주제 시퀀스의 개념과 종류 및 특징

해제 이 글은 영화의 시퀀스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영화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요소인 숏과 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신 제시 방법에 따른 시퀀스의 종류와 그 효과를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또 시퀀스의 연결 방법과 시퀀스의 길이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고, 영화를 감상할 때 시퀀스를 분석하는 것의 의의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❶ 영화에서 (**숏**), (**신**), (**시퀀스**)의 개념

❷ (**에피소드 시퀀스**)와 (**병행 시퀀스**)의 개념 및 예, 효과

❸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과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의 방법 및 효과

❹ 시퀀스의 (**길이**)에 따른 특징 및 시퀀스 분석의 의의

44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영화의 발전 과정과 시퀀스의 상관관계~~

이 글에 영화의 발전 과정과 시퀀스의 상관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시퀀스의 연결 방법과 효과

4문단에서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과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 방법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② 시퀀스의 길이에 따른 특징

5문단에서 시퀀스의 길이에 따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시퀀스의 길이가 긴 영화들은 느린 템포로 사건이 진행되어 서사적 이야기 구조를 안정되게 제시하는 데 적합한 반면, 길이가 짧은 시퀀스를 사용한 영화는 빠른 템포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영화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요소와 개념

1문단에서 시퀀스를 구성하는 요소인 '숏'과 '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 신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른 시퀀스의 종류

2~3문단에서 신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에피소드 시퀀스와 병행 시퀀스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밝히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447 답 (1) 신 (2) 신 (3) 짧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영화에서 (숏, (신) 시퀀스)은/는 연극의 '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1문단에서 숏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연극의 '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고 하였다.

(2) 교체 시퀀스는 (숏, (신))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에피소드 시퀀스와 병행 시퀀스로 구분할 수 있다.

2문단에서 시퀀스는 신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에피소드 시퀀스와 병행 시퀀스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상반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은) 긴) 시퀀스를 사용한 영화는 빠른 템포로 전개되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5문단에서 길이가 매우 짧은 시퀀스를 사용한 영화는 빠른 템포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44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짜깁기 시퀀스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관객들의 사건 전개 과정 파악을 돕고 관객으로 하여금 ~~시퀀스 연결 속에 숨은 의도를 생각하게~~ 만든다.

4문단에서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쉽게 파악하고 다음에 이어질 장면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시퀀스 연결 속에 숨은 의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 방법의 효과에 해당한다.

오·오·이

① 시퀀스는 여러 개의 신이 연결된 것으로 영화의 전체 흐름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다.

1문단에서 여러 개의 신이 연결되어 영화의 전체 흐름 속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을 시퀀스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② 영화에 사용된 시퀀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감독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6문단에서 영화에 사용된 시퀀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영화의 서사 구조와 감독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③ 신은 영화에서 카메라가 찍기 시작하면서 멈출 때까지 연속된 촬영인 숏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1문단에서 영화 촬영 시 카메라가 찍기 시작하면서 멈출 때까지의 연속된 촬영을 숏이라 하고, 이러한 숏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신이라고 한다고 했다.

④ 디졸브란 원래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다른 이미지로 연결되는 기법으로 다음 시퀀스의 시작을 자연스럽게 알린다.

4문단에서 원래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다른 이미지로 연결되는 디졸브 등의 기법을 사용하면 관객들은 하나의 시퀀스가 끝나고 다음 시퀀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하였다.

44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명확하게**: 명백하고(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고) 확실하게.
- **친숙한**: 친하여 익숙하고 허물없는.

정·정·이

⑤ ㉡은 ㉠에 비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객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군.

4문단에서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쉽게 파악하고 다음에 이어질 장면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고 의아함을 불러일으켜 시퀀스 연결 속에 숨은 의도나 구조를 생각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이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에 비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객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과 ㉡은 모두 ~~사건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겠군.

시퀀스의 연결 방법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부재 ㉠과 ㉡은 모두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의미를 명확하게 완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겠군.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의미를 명확하게 완결 지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시퀀스의 연결 방법의 상관관계는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교체 ㉠은 ㉡에 비해 관객에게 친숙한 내용을 낯설게 전하기에 적합한 방법이겠군.

4문단에서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고 의아함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④ 교체 ㉡은 ㉠과 달리 디졸브와 같은 다양한 편집 기법을 활용하겠군.

4문단에서 디졸브 등의 기법을 사용해 시퀀스를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이라고 했다.

450 답 (1) ㄱ, ㄷ (2)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의 효과: (ㄱ, ㄷ)

4문단에서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쉽게 파악하고(ㄱ), 다음에 이어질 장면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ㄷ) 하였다.

(2) 교체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의 효과: (ㄴ, ㄹ)

4문단에서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고 의아함을 불러일으켜(ㄴ) 시퀀스 연결 속에 숨은 의도나 구조를 생각하게 한다고(ㄹ) 하였다.

45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에 비해 ⓑ는 대체로 전체 시퀀스의 수가 많은 편이다.

5문단에 각 시퀀스의 길이가 길면(ⓐ) 시퀀스의 수가 적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시퀀스의 길이가 긴 영화(ⓐ)에 비해 시퀀스의 길이가 짧은 영화(ⓑ)는 대체로 전체 시퀀스의 수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오·이

① 교체 ⓐ는 사건이 빠른 템포로, ⓑ는 느린 템포로 전개된다.

5문단에 각 시퀀스의 길이가 길면(ⓐ) 느린 템포로 사건이 진행되고, 길이가 짧은 시퀀스를 사용한 영화(ⓑ)는 빠른 템포로 사건이 전개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③ 교체 ⓑ에 비해 ⓐ는 극적 긴장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5문단에 길이가 매우 짧은 시퀀스를 사용한 영화(ⓑ)는 극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④ 교체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보다는 ⓐ가 더 적합하다.

5문단에 길이가 매우 짧은 시퀀스를 사용한 영화(ⓑ)는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⑤ 교체 ⓐ와 달리 ⓑ는 이야기 구조를 안정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문단에 각 시퀀스의 길이가 긴 영화(ⓐ)는 시퀀스의 수가 적어 느린 템포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사적 이야기 구조를 안정되게 제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45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E에 사용된 자막은 ~~A와 C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는 시간 표지에 해당한다.
D와 E 사이의 시간의 흐름

E에 사용된 자막 '2년 후'는 D와 E 사건 사이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표지로, A와 C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오·오·이

① A와 B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교대로 제시하여 시각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고 있다.

A와 B는 같은 시간에 '서영의 자취방 앞'과 '길가, 편의점 앞'이라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교대로 제시하여 시각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고 있다.

② A부터 D까지는 '서영'이 '현우'와 헤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퀀스로 볼 수 있다.

A부터 D까지의 신은 모두 '서영'과 '현우'가 헤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서영'과 '현우'가 헤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퀀스로 볼 수 있다.

④ D에서 E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E는 새로운 시퀀스의 시작에 해당한다.

A부터 D까지는 '서영'과 '현우'가 헤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E로 전환되면서 이별 후 '서영'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E는 새로운 시퀀스의 시작에 해당한다.

⑤ E와 F의 연결은 시간의 흐름을 짧은 장면으로 간단하게 보여 주고 있다.

E와 F 사이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으나 '한 달 후'라는 자막을 활용한 짧은 장면으로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 주고 있다.

453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짜깁기 D의 '디졸브'는 관객들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낸다. (○, ⊗)

4문단으로 볼 때 '디졸브'는 하나의 시퀀스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다음 시퀀스로 연결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관객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의 효과이므로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의 방법인 '디졸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다.

(2) 짜깁기 E와 F는 시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지가 ~~없이 인물의 행동만으로~~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 ⊗)

E와 F는 자막 '2년 후', '한 달 후'라는 표지를 사용해 시간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E와 F의 인물의 행동은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45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짜깁기 ☑ 교체 ○ 상반 ○ 인과 오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S# 1부터 ~~S# 5~~까지는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이 교대로 전개되지만 동일한 시퀀스로 볼 수 있다.
S# 4

S# 1부터 S# 4는 영서와 우현이 서로 엇갈리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퀀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 5는 '20년 후'의 사건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으므로 S# 5는 새로운 시퀀스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S# 1과 S# 2는 별개의 사건이 교대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병행 시퀀스에 해당한다.

3문단에 따르면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둘 이상의 별개 사건이 교대로 전개되는 것이 병행 시퀀스인데, S# 1과 S# 2는 같은 시간, 열차 대합실과 신작로에서 일어나는 영서와 우현의 사건이 교대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병행 시퀀스에 해당한다.

② S# 1과 S#2는 두 개의 사건에 동시성이 부여되므로 시각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을 수 있다.

S# 1과 S# 2는 S# 2의 '같은 시각'에 의해 두 개의 사건에 시간의 동시성이 부여되므로 시각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을 수 있다.

③ S# 4와 S# 5는 디졸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4문단에서 디졸브는 하나의 시퀀스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다음 시퀀스로 연결되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하였는데, S# 4에서 디졸브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S# 4와 S# 5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④ S# 5에서는 자막을 사용하여 긴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 주고 있다.

S# 5에서는 '20년 후'라는 자막을 통해 영서와 우현이 엇갈린 후의 긴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 주고 있다.